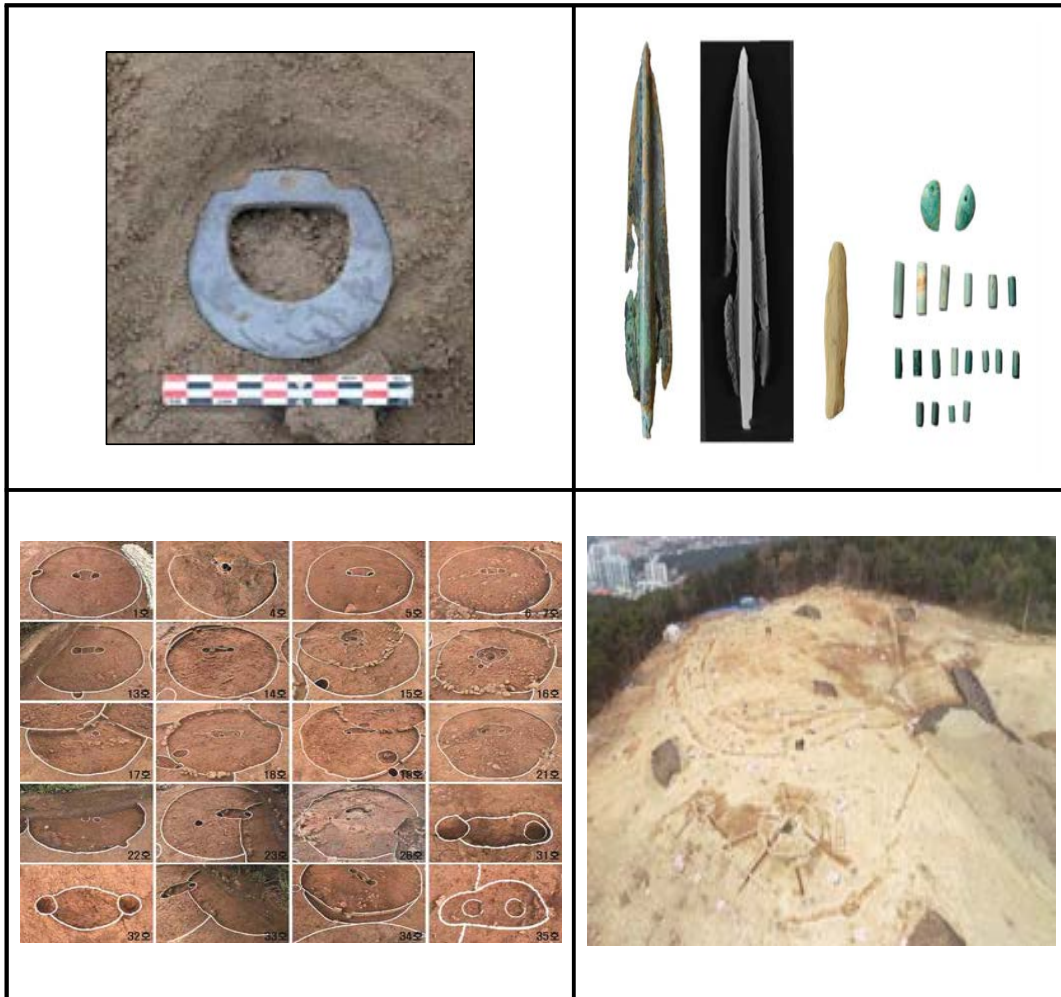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최신 발굴유적 조사성과 발표회



▣ 일시: 2025.06.27(금) 13:30~17:40

▣ 장소: 충북대학교 역사관 첨단강의실



한국청동기학회

청동기시대 최신 발굴유적 조사성과 발표회

■ 일시: 2025.06.27(금) 13:30~17:40

■ 장소: 충북대학교 역사관 첨단강의실

◆ 제1발표 13:40 ~ 14:00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조희진)

◆ 제2발표 14:00 ~ 14:20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강원고고문화연구원 홍주희)

◆ 제3발표 14:20 ~ 14:40

대전 금고동 103-1번지 일원 유적(미래문화유산연구원 신수현)

◆ 제4발표 14:40 ~ 15:00

청주 원평동 491-1번지 일원 유적(국원문화유산연구원 이동희)

◆ 질의 15:00 ~ 15:20

◆ 휴식 15:20 ~ 15:40

◆ 제5발표 15:40 ~ 16:00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부지 내(1구역-1) 유적(전남문화유산연구원 이경림)

◆ 제6발표 16:00 ~ 16:20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부지 내(3구역-2) 유적(동북아지석묘연구소 강진표)

◆ 제7발표 16:20 ~ 16:40

제주 삼양1동 1352-1번지 창고 신축부지 내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나정욱)

◆ 제8발표 16:40 ~ 17:00

울산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울산문화유산연구원 윤재빈)

◆ 질의 및 총평 17:00 ~ 17:40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청동기시대 유적

조희진(호남문화재연구원)

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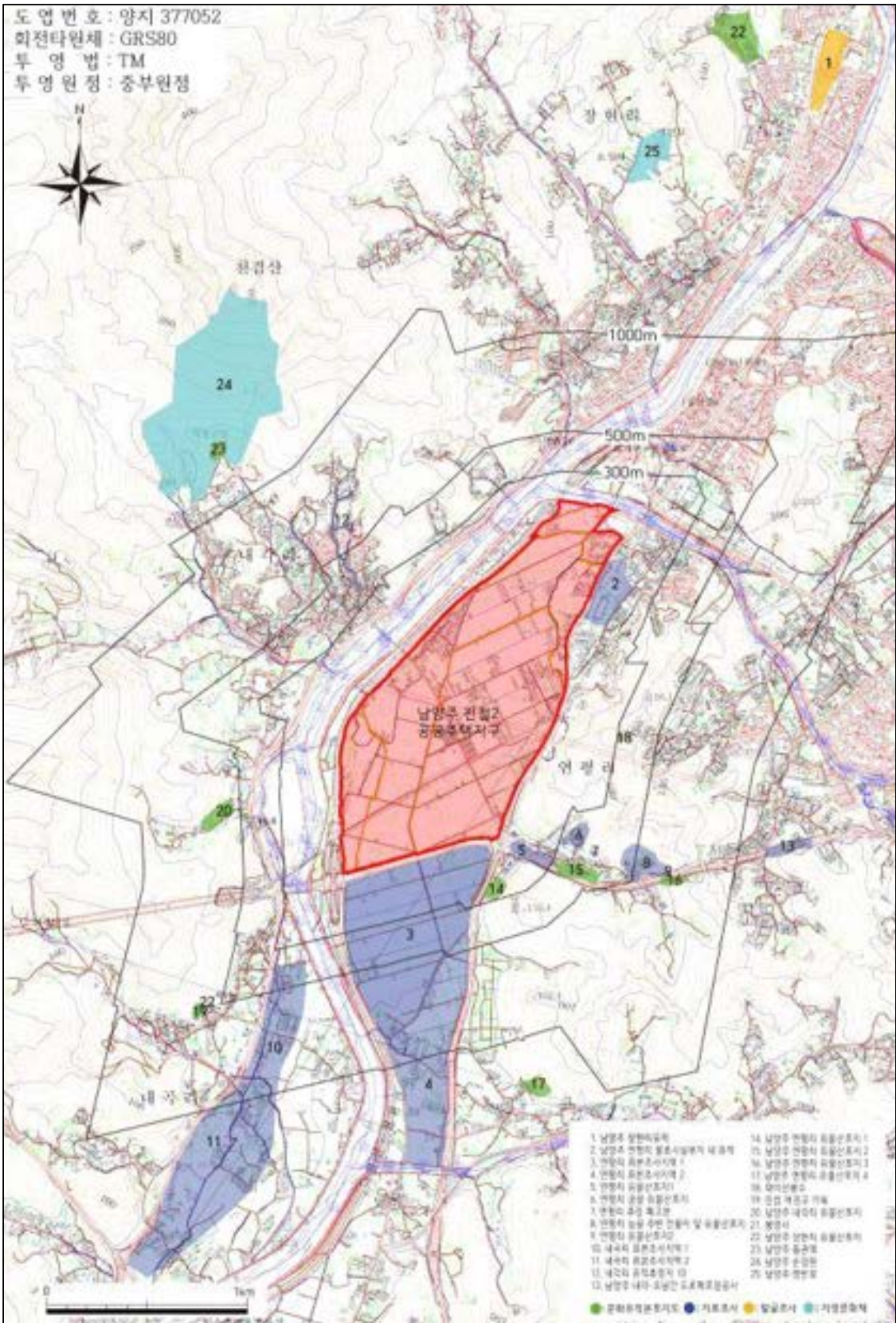
유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남양주 진접2지구내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왕숙천 중류에 접하고 있는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며 왕숙천이 굽이쳐 흐르면서 안쪽으로 범람원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북측의 진건천에서 뺀어 나온 소하천이 조사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소하천은 조사지역의 세부적인 퇴적지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적 분포 양상과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는 2020년 5월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여러 기관과 나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연구원에서는 A구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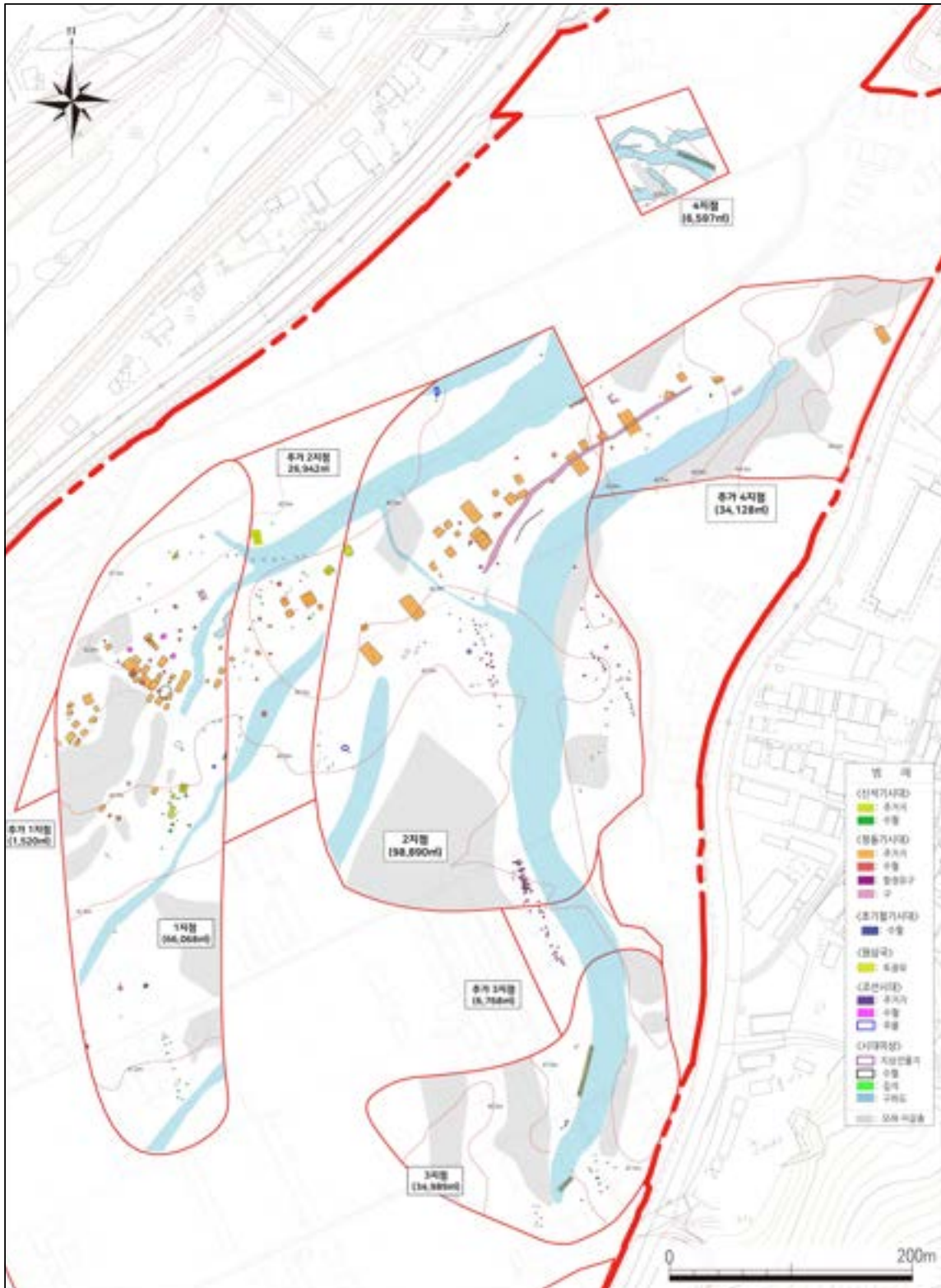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수혈,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구·함정유구, 초기철기시대 수혈, 원삼국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주거지·수혈·우물·집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1. 조사지역 전경(남서쪽에서)



도면 1. 조사지역의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



도면 2.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발굴조사 A구역 현황도

II. 조사내용

이 중 청동기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북쪽 동-서방향의 미고지와 구하도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지 70기, 수혈 51기, 구 3기, 함정유구 133기 등이 확인되어 대단위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¹⁾으로 판단된다.

1. 주거지

주거지는 왕숙천변에 형성된 동-서 방향의 미고지를 따라 해발 42~45m 길게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지 사이로 수혈도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크게 2개의 군집을 이루고 모래자갈층을 피해 주거지 축조가 더 용이한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층의 퇴적공간을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세장방형(42·44호)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소형의 7.3m²(34·37호)에서부터 초대형의 223.7m²(26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노지·초석·주공·타원형수혈·벽구·점토다짐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노지는 주거지내에 1~4개가 시설되어 있는데 위치는 주거지의 중심부의 장축방향을 따라 확인되거나, 주거지 한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돌을 이용한 위석식과 무시설식이 확인된다. 위석식은 바닥까지 시설한 석상위석식과 돌레로만 둘러져 있는 토광위석식으로 구분되며, 대형의 주거지에서는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노지가 같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초석은 대형주거지(8·16·26호)를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주거지내에 장축방향을 따라 2열로 나란하게 등 간격으로 주거지 바닥에 놓여져 있다. 주공은 벽가를 따라 시설되는 벽주공을 비롯하여 모서리 4지점에 자리한 4주공, 모서리를 포함하여 중간지점에 주공이 자리한 6주공 등 정연한 형태와 그 외 내부에서 무질서한 형태 등 다양하다. 타원형수혈은 주거지의 벽가 또는 다양한 곳에 확인되며, 형태와 규모면에서 주공과는 구분되고, 내부에서 토기나 석기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벽구는 일부 주거지에서 부분적으로 벽가를 따라 확인된다. 점토다짐시설은 주로 서쪽에 위치하는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주로 주거지내 단벽에 가깝거나 모서리에 치우친 일정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점토다짐구역의 평면형태는 방형, 원형, 부정형으로 파악되며, 점토다짐구역내에서 작업공이나 노지, 주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유물은 토기류, 토제품,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각목돌대문토기를 비롯하여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대부소호, 무문토기, 공열문토기, 외반구연토기, 발형토기 등 다양한 형태가 출토되었다. 그 외 토기를 재사용한 토제 어망추와 토제 방추차 등 토제품도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촉을 비롯하여 석검, 석도, 석부, 지석, 공이, 작업대, 방추차, 어망추, 미완성석기편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중 석검은 15호 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는데 이단병식석검으로 신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또한 일부 주거지에서는 다수의 석재편이 확인되어 석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우리원에서 조사한 A구역 외 A구역의 남쪽에 위치하는 B구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13기와 함정유구 47기가 조사되었다.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 현황표

호 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면적			
1	장방형	북서-남동	1,440	722	(54)	104	노지2, 주공, 타원형수혈, 벽구	빗살무늬토기편, 석착, 미완성석도, 지석 등	
2	장방형	북서-남동	(770)	796	(36)		주공	무문토기편, 석착 등	하단부 유실
3	장방형	북서-남동	704	606	(27)	42.7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벽구	무문토기편, 방추차, 석촉, 이형석부 등	
4	장방형	서북-동남	660	725	(16)	47.9	주공	무문토기편, 석촉 등	1호주→ 4호주→ 1호구
5	장방형	북서-남동	(2,220)	1,010	(30)		노지3, 주공	무문토기, 방추차, 석착, 지석, 작업대 등	5호주→ 1호구 교란 심함
6	장방형	북서-남동	(650)	730	(32)		노지1, 주공	각목돌대문토기편, 무문토기편, 석촉, 석도, 석재편 등	1호주→ 1호구 화재주거지
7	방형	남-북	756	632	(7)	47.8	노지1, 주공	무문토기, 토제품	
8	장방형	남-북	1,930	970	(10)	187.2	노지2, 초석, 주공	무문토기, 토제품, 석도, 지석 등	
9	방형	남-북	370	350	(4)	13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무문토기, 방추차, 석제품 등	
10	방형계		366	(228)	(10)		주공		10호주→ 1호구
11	장방형	남-북	814	(560)	(13)		노지, 주공	무문토기, 석촉, 석도, 윗판형석기 등	교란 심함
12	장방형	동-서	900	495	(5)	44.6	노지1, 주공	각목돌대, 무문토기, 석부, 지석, 작업대 등	12호주→ 1호구
13	방형	남-북	821	815	(20)	66.9	노지1	이중구연단사선, 각목돌대, 방추차, 어망추, 석촉, 지석 등	
14	방형	남-북	480	450	(20)	21.6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각목돌대, 무문토기, 홍도, 석촉, 석도, 어망추, 지석, 갈판 등	
15	방형	남-북	436	428	(22)	18.7	노지1, 주공	빗살무늬토기편, 각목돌대, 무문토기, 홍도, 석도, 지석 등	
16	장방형	남-북	1,810	950	(25)	172	노지4, 초석, 주공, 타원형수혈	각목돌대, 무문토기, 장경호, 홍도, 석촉, 석도, 지석, 옥 등	
17	장방형	동-서	960	550	(45)	52.8	노지2, 주공	무문토기, 어망추, 석착, 지석 등	
18	방형	남-북	1,080	870	(22)	94	주공	무문토기, 홍도, 방추차, 어망추, 석착, 석부, 지석 등	17호주 →18호주 →19호주
19	장방형	남-북	1,760	1,040	(28)	183	노지1, 적심?, 주공	이중구연단사선, 각목돌대, 무문토기, 홍도, 방추차, 어망추, 석촉, 석도, 석착, 지석 등	
20	방형	남-북	800	660	(35)	52.8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구	각목돌대, 무문토기, 홍도, 석도, 어망추, 지석, 공이 등	
21	말각 방형	남-북	419	440	(42)	18.4	노지1, 주공, 단시설	무문토기, 홍도, 석촉, 석착 등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면적			
22	방형	남-북	581	578	(24)	33.6	노지1, 주공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 각목돌대, 구순각목, 장경호, 석축, 어망추, 옥 등	
23	방형	남-북	743	633	(16)	47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무문토기, 갈돌 등	
24	장방형	동-서	(670)	490	(28)		노지1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각목돌대문토기 등	동쪽 결실
25	방형계		380	(170)	(16)			석도, 석재편 등	동쪽 결실
26	장방형	남-북	2,110	1,060	(36)	223.7	노지3, 주공	각목돌대문토기, 토제어망추, 석도 등	
27	장방형	동-서	572	468	(26)	26.8	노지1, 주공		
28	장방형	남-북	1,884	996	(40)	187.7	노지3, 주공, 벽구, 타원형수혈	각목돌대문토기, 무문토기, 대부소호, 토제어망추 등	
29	장방형	북서-남동	455	367	(30)	16.7	노지1, 주공, 돌출부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대각편, 토제방추차, 토제어망추 등	
30	방형	북서-남동	1,090	1,000	(43)	109	노지3, 주공, 타원형수혈	이중구연토기, 무문토기, 석부, 갈돌, 갈판 등	
31	방형	남서-북동	585	524	(44)	30.7	노지1, 주공	무문토기, 석재편 등	
32	장방형	북서-남동	711	560	(52)	39.8	노지2, 주공	구순각목토기, 지석, 방추차 등	
33	장방형	북서-남동	441	399	(48)	15.6	노지1, 타원형수혈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축 등	화재폐기
34	장방형	북동-남서	340	215	(15)	7.3			34호주→28호수
35	장방형	북동-남서	547	427	(25)	23.4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숫돌, 석재 등	35호주→29호수
36	장방형	북동-남서	801	447	(20)	35.8	주공, 타원형수혈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기류 등	
37	장방형	북동-남서	332	222	(40)	7.4			
38	세장방형	북동-남서	1,880	537	(40)	101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부, 석착, 등	
39	장방형	북동-남서	415	360	(50)	14.9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등	39호주→37호수
40	장방형	북동-남서	520	400	(30)	20.8	주공	무문토기	
41	장방형	북동-남서	597	400	(38)	23.9	노지2, 점토다짐, 타원형수혈, 주공	장경호, 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토제방추차, 석재편 등	화재폐기
42	세장방형	북서-남동	831	332	(50)	27.6	주공		42호주→43호주
43	장방형	북동-남서	688	421	(45)	29	노지1, 주공	흑색마연토기, 무문토기 등	42주→43주
44	세장방형	북서-남동	920	375	(55)	34.5		무문토기	42주→44주
45	장방형	북동-남서	873	525	(30)	45.8	노지1, 타원형수혈, 주공, 점토다짐	무문토기, 석축 등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면적			
46	장방형	북서-남동	329	278	(47)	9.2		무문토기	
47	장방형	북동-남서	411	389	(35)	16	점토다짐	무문토기, 방추차	46주→ 47주→ 48주
48	장방형	북동-남서	873	526	(45)	45.9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도, 석착, 석검, 지석 등	
49	장방형	북동-남서	695	423	(35)	29.4	노지1, 주공, 점토다짐		
50	장방형	북동-남서	597	405	(44)	24.2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51	장방형	북서-남동	771	383	(40)	29.5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무문토기, 석촉 등	
52	장방형	북서-남동	1,420	850	(45)	120.7	노지2, 주공, 벽구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방추차, 석도 등	52주→ 53주
53	장방형	북동-남서	580	400	(45)	23.2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등	53주→ 42주
54	장방형	북동-남서	773	476	(30)	36.8	노지1, 주공, 점토다짐	공열문토기, 석촉, 석재류 등	
55	장방형	북동-남서	480	350	(60)	16.8		석재편	55주→56 주
56	장방형	북서-남동	827	752	(44)	62.2	노지1, 점토다짐	장경호, 무문토기, 방추차, 석착, 갈돌 등	
57	방형	북동-남서	461	438	(25)	20.2	노지1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촉 등	
58	(장방형)	북동-남서	(420)	456	(12)				
59	장방형	북동-남서	660	368	(28)	24.3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부, 석착, 지석 등	48수→ 59주
60	장방형	북동-남서	455	366	(60)	16.7			
61	장방형	북동-남서	(280)	370	(50)				
62	장방형	북동-남서	553	410	(35)	22.7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63	장방형	북동-남서	658	360	(45)	23.7	노지1,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석부, 석착, 지석 등	
64	장방형	북동-남서	586	398	(25)	23.3	노지1, 점토다짐		
65	장방형	북동-남서	822	473	(50)	38.9	노지2, 주공,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공열문토기, 석도 등	
66	장방형	북동-남서	602	450	(40)	27.1	노지1, 주공		
67	장방형	북동-남서	335	270	(30)	9.1	노지1, 주공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68	장방형	북동-남서	593	270	(35)	16	주공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69	장방형	북동-남서	635	325	(28)	20.6		무문토기	
70	장방형	북동-남서	450	272	(32)	12.2		무문토기	51호수→ 70호주



주거군 전경(7~23호)



주거군 전경(14~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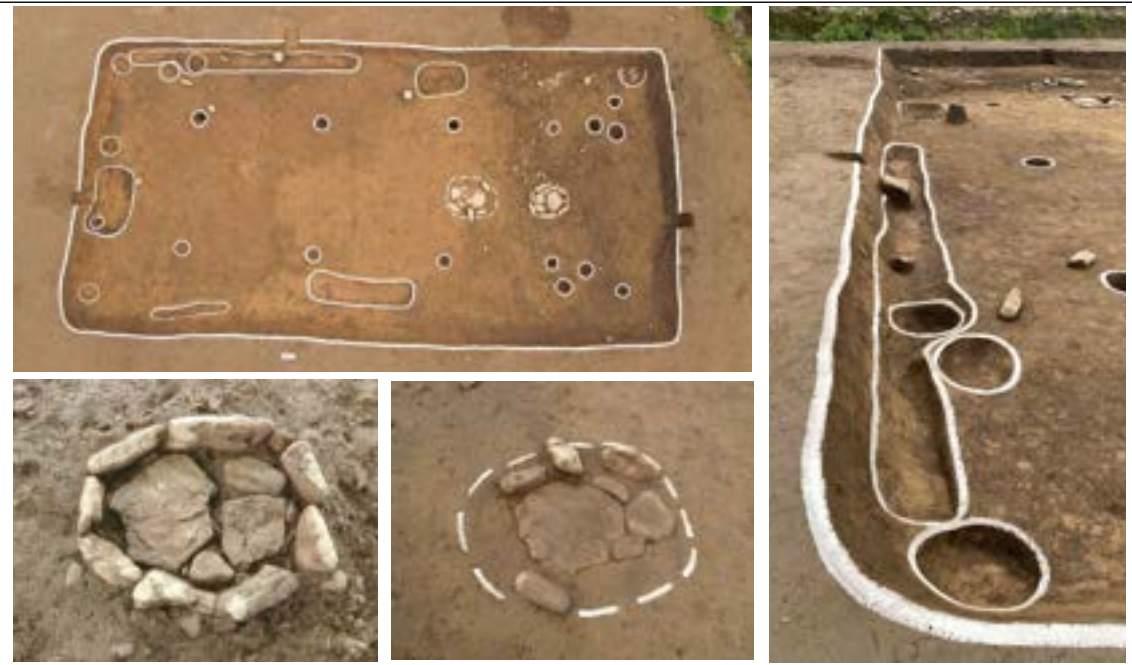


주거군 전경(29~32호)



주거군 전경(34~55호)

사진 2. 청동기시대 주거지(1)



1호 주거지



3호 주거지

사진 3. 청동기시대 주거지(2)



16호 주거지



28호 주거지

사진 4. 청동기시대 주거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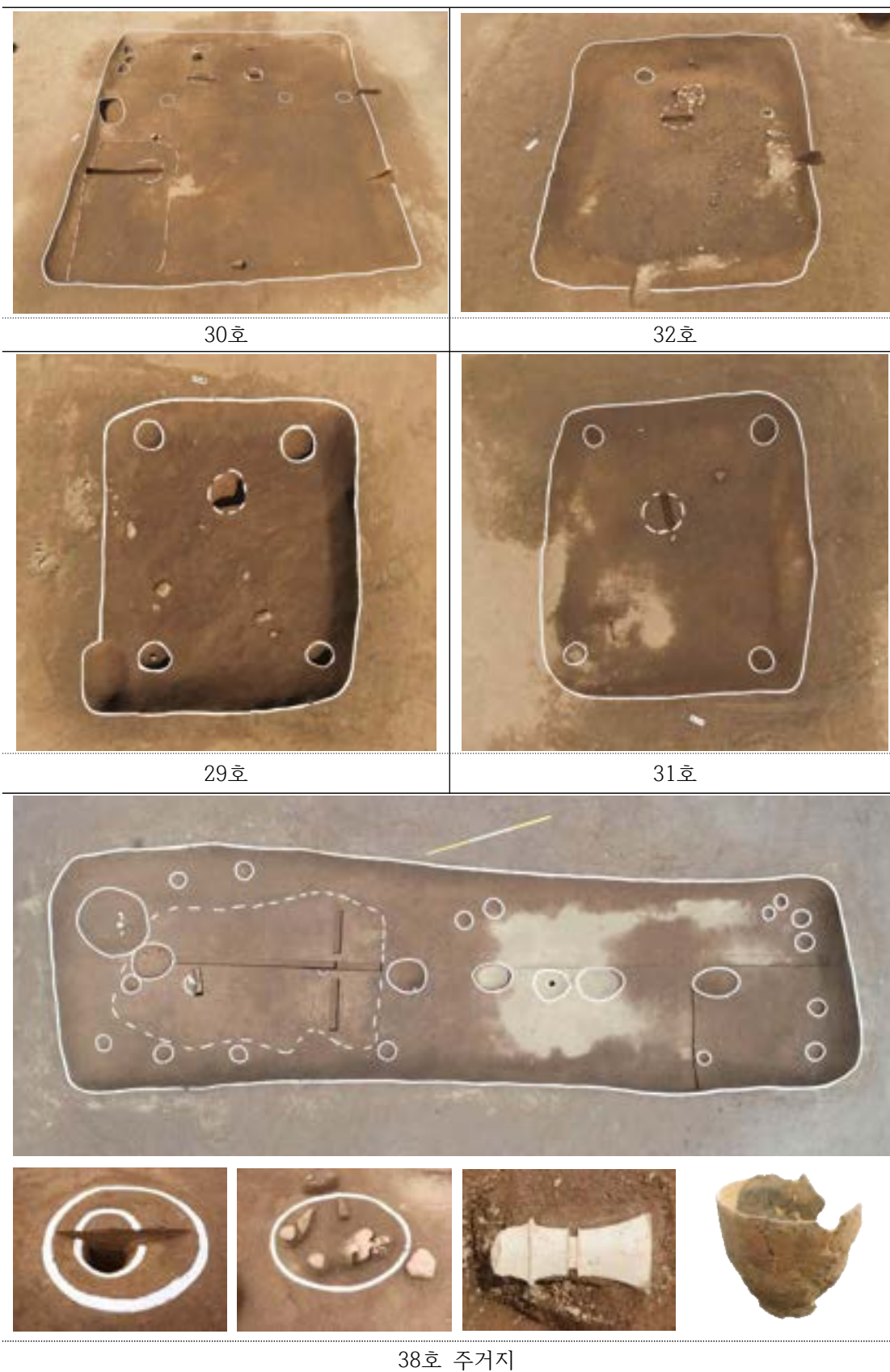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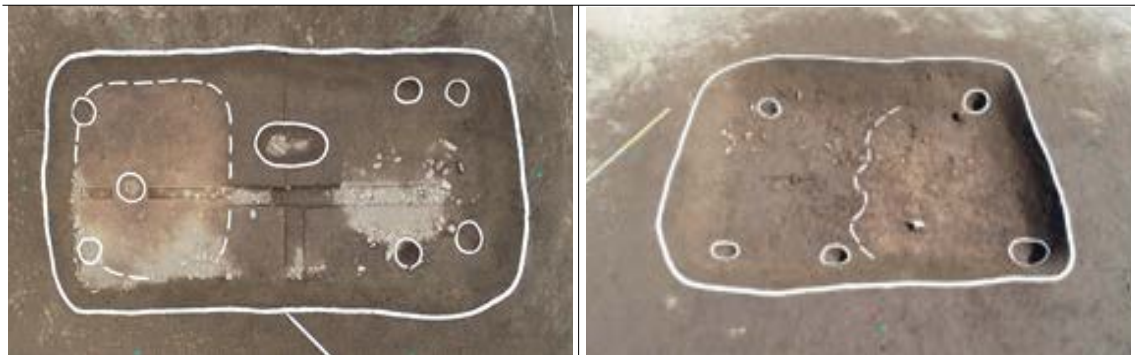


사진 5. 청동기시대 주거지(4)



63호 주거지



51호 주거지

62호 주거지



60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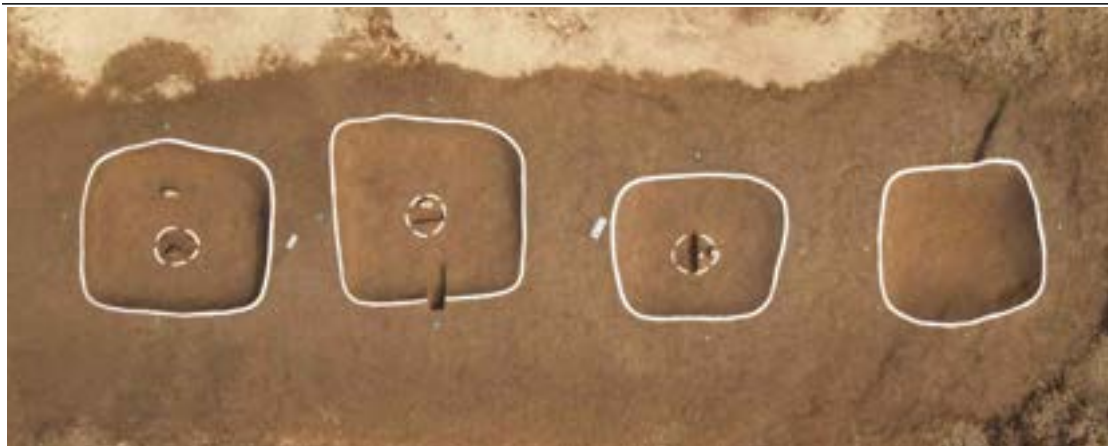
64호 주거지

65호 주거지

사진 6. 청동기시대 주거지(5)

2. 수혈

청동기시대 수혈은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총 5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주를 이루며, 규모는 120cm 내외의 소형에서 400cm 내외로 다양하다.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 없이 편평한 바닥 또는 깊은 경우 넓게 퍼진 'U'자형을 띠기도 한다. 그 중 3~6호 수혈은 인접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데 4기의 수혈이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에 소토부를 가지고 내부에 무문토기호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특징이 있다.



3~6호 수혈 전경



3호 수혈

4호 수혈

5호 수혈



20호 수혈

사진 7. 청동기시대 수혈(1)



24호



26호



38호 수혈



42호 수혈

사진 8. 청동기시대 수혈(2)

3. 구

청동기시대 구는 구하도 외에 주거지 주변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4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1호 구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3~23호 주거지 주변으로 주거지와 중복되거나 주거지군에 인접하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길이는 230m, 너비는 205~470cm 내외로 단면형태는 'U'자형이며, 잔존깊이는 20~60cm 내외이다. 이 구는 일부 주거지와 중복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1호 구가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되어 있다. 구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소량이지만 바닥쪽에서 각목돌대문토기편과 석촉편이 출토되었으며, 상면이 아닌 내부 퇴적토에서는 다른 시기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아 청동기시대 유구로 추정되지만, 일부 주거지보다는 후행하는 유구로 판단된다. 또한 2호는 1호와 동일한 방향으로 확인되어 서로 인식하고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잔존하는 부분이 1호에 비해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 등은 알 수 없다.



서쪽 전경(1·2호)



동쪽 전경(1호)



사진 9. 청동기시대 구

4. 함정유구

함정유구는 조사구역의 동쪽 남-북방향의 구하도를 따라 청동기시대 주거지 군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133기가 확인되었다. 함정유구는 크게 4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정연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구하도에 직교되는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중복되지 않고 정연하게 조성되지만 남쪽의 경우 일부 중첩된 상태도 확인되었다.

함정유구는 매립층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회암갈색사질점토층 아래 흑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장타원형을 띠며 대부분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규모는 길이 110~263cm, 너비 40~145cm이며 잔존깊이는 15~57cm 내외이다. 유구 간 간격은 0.3~27m내외로 중앙부 군집의 경우 비교적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내부 퇴적양상은 상층은 완만한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층에는 암갈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점토 등이 섞인 상태로 퇴적되었다. 내부에서는 목주흔이 확인되는데, 목주흔은 바닥면에서 벽면을 따라 3~20여 개가 확인되었다. 목주흔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5~10cm, 깊이 5~30cm 내외이다. 목주흔은 단면형태로 보아 깊이가 10cm 내외의 수직으로 박은 것과 이보다 깊은 목주흔은 사선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함정은 세장한 형태로 양쪽에서 목주를 사선 또는 세로로 박아 함정에 빠지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인접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는 흑갈색사질점토층에서 유구가 확인되는바 청동기시대 유구로 판단된다.



사진 10. 청동기시대 함정유구(1)



북서쪽

중앙부

남쪽



13호

36호

40호

사진 11. 청동기시대 함정유구(2)

Ⅲ. 조사성과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 시굴조사(추가)를 통해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는 A~C구역으로 구분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 일대는 왕숙천변의 충적대지에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대 생활근거지로서 지속적인 점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본 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A구역은 가장 북동쪽에 위치하는 공간으로서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주거군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은 왕숙천변에 형성된 동-서 방향의 미고지형을 따라 길게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지 사이로 수혈이 분포하고 있으며, 크게 2개의 군집을 이루고, 모래자갈층을 피해 주거지 축조가 더 용이한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층 퇴적공간을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형태는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면적은 소형에서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노지·주공·타원형수혈·벽구·점토다짐시설 등이 확인되는데, 이 중 노지는 무시설식과 위석식으로 구분되며 대형주거지에서는 2~4기가 시설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토기류는 각목돌대문토기를 비롯하여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공열토기, 무문토기, 대부소호, 흥도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었으며, 토제 방추차와 어망추 같은 토제품도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촉을 비롯하여 석도, 석검편, 석착, 지석, 석부, 방추차 등 다수가 출토되었으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다수의 석재편이 확인되어 석기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주거지의 규모, 노지 등의 형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의 양상에 있어서 크게 각목돌대문토기(동쪽)와 공열문토기(서쪽)의 차이가 서로 다른 주거공간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분포양상은 이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시기에 따른 취락공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여겨진다.

함정유구는 조사구역의 동쪽을 중심으로 중앙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어지며 구하도 주변에서 크게 4개의 군집을 이루어 확인되었다. 함정유구는 세장한 형태로 양쪽을 중심으로 목주를 박아 세워 함정에 빠지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함정유구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층위상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로 판단되며, 조사구역의 남동쪽에 인접하고 있는 해발 175m 내외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짐승의 방어 및 수렵과 관련된 용도로 추정된다.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홍 주 희

- 목 차 -

I. 조사개요	III. 조사내용
II. 유적의 층위 및 고지형	IV. 맺는말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제 2022-1037호)
- **조사위치 및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197번지 일원
시굴조사(36,025㎡) / 정밀발굴조사(8,055㎡)
- **조사기간** : 시굴 2022. 08. 08 ~ 2022. 09. 20 / 정밀발굴 2023. 04. 04 ~ 2023. 12. 26.
- **조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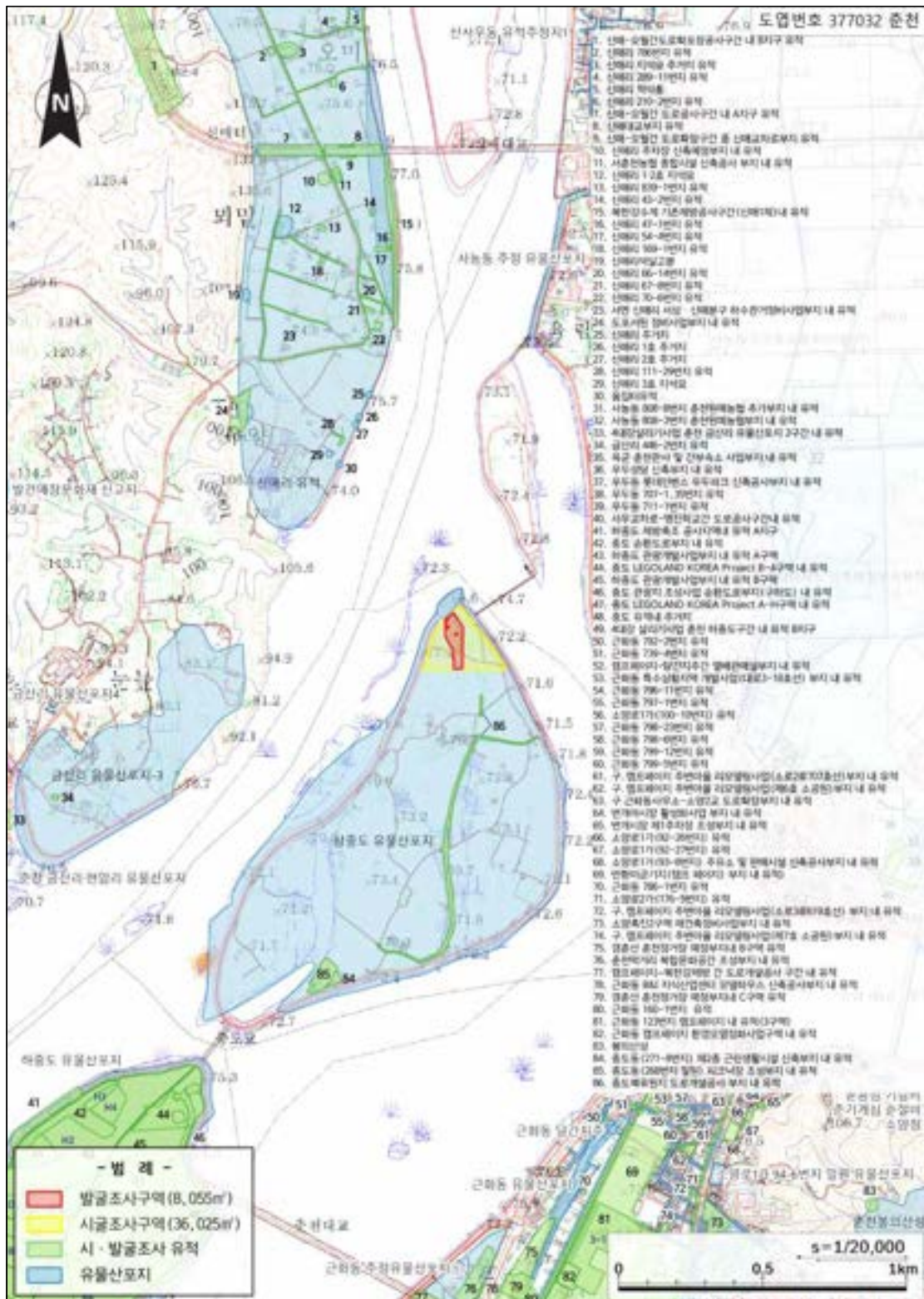
일 시	내 용
2022.08.08	• 시굴조사(36,025㎡) 착수
2022.09.20	•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 유구 확인 트렌치를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 실시
2022.09.30	• 시굴조사 완료
2022.11.04	• 1차 발굴변경허가 - 유구가 확인된 8,0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 전환
2023.04.04	• 정밀발굴조사 착수
2023.04.28	• 정밀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및 현장공개 - 제토 중 확인된 강자갈 및 회곽묘 처리 논의
2023.09.05	• 2차 발굴변경허가 8,000㎡→8,055㎡ - 유구밀도 증가(10~25%미만→25%이상) - 정밀발굴조사 면적 변경 (수목으로 인한 미조사지역 감162㎡, 추가조사지역 증217㎡)

2023.10.23 ~ 2023.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및 현장공개 - 춘천 상중도에서 처음 확인된 마을유적으로 학술적 의미 있음. - 하중도 마을유적에 버금가는 고고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유적으로 판단, 문화재청 주관의 전문가 검토회의 필요
2023.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국가유산청)
2023.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검토회의 조치사항 통보 - 구체적인 보존방안 수립 후 매장분과 위원회 심의 예정
2023.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분과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현지보존, 복토 및 모래성토 후 사업시행
2023.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완료
2024.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보존작업(복토 및 모래성토)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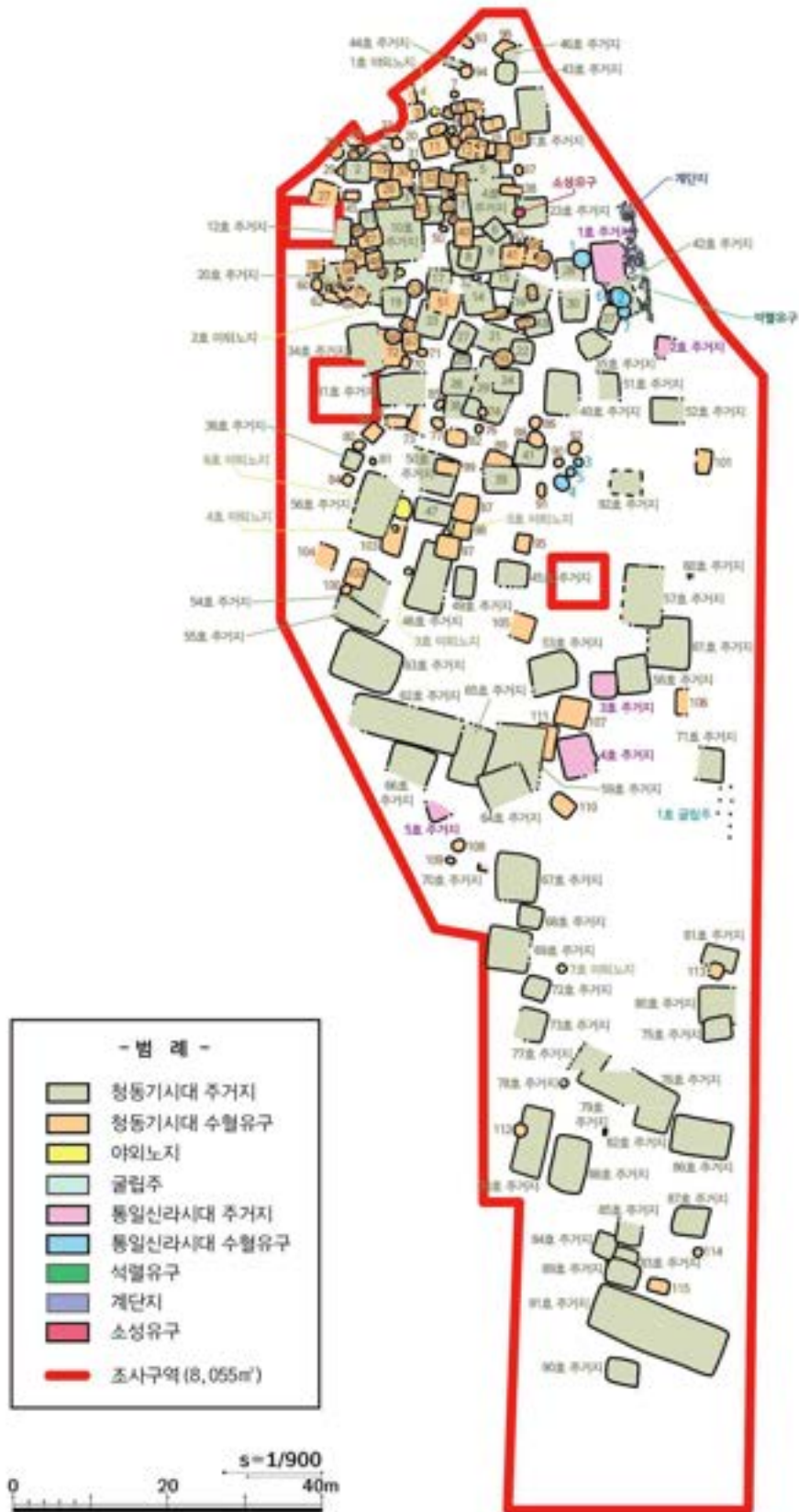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신석기 · 청동기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유구 총 237기.

청동기시대 유구(주거지, 굴립주유구, 수혈유구) 총 208기(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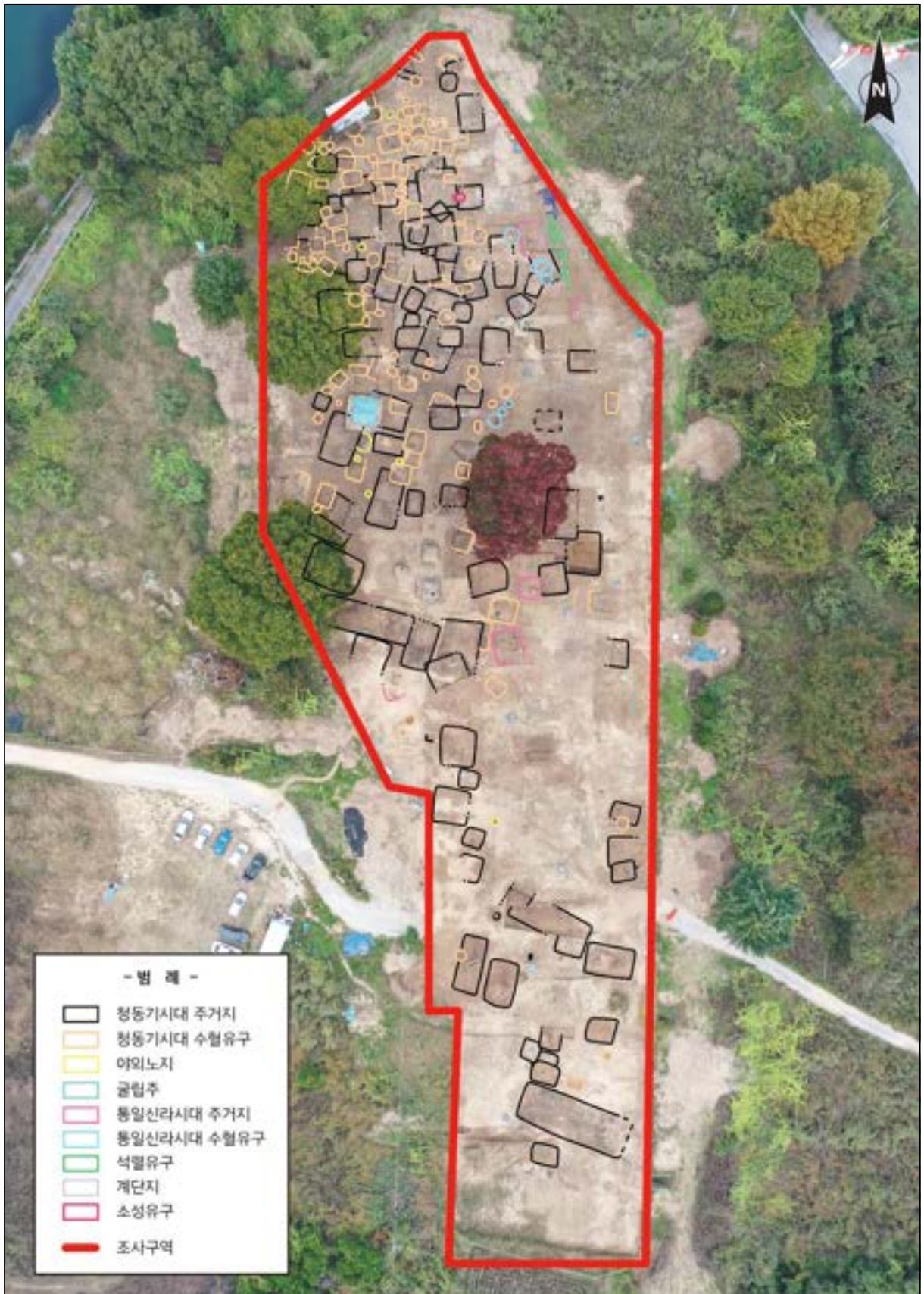
시 대	유 구 종 류	수 량	
		유구별	시대별
신석기시대	야 외 노 지	6	6
청동기시대	주 거 지	92	208
	굴립주유구	1	
	수혈유구	115	
통일신라시대	주 거 지	5	13
	석 렬 유 구	1	
	수 혈 유 구	7	
고 려 시 대	축대-계단지	1	2
	소 성 유 구	1	
조 선 후 기 ~ 일 제 강 점 기	회 광 묘	4	8
	토 광 묘	4	
합 계		237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현황(1:20,000,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도면 2. 전체 유구현황도(1:900)



도면 3. 전체 유구현황

II. 유적의 층위 및 고지형

1. 층위(사진 1·2, 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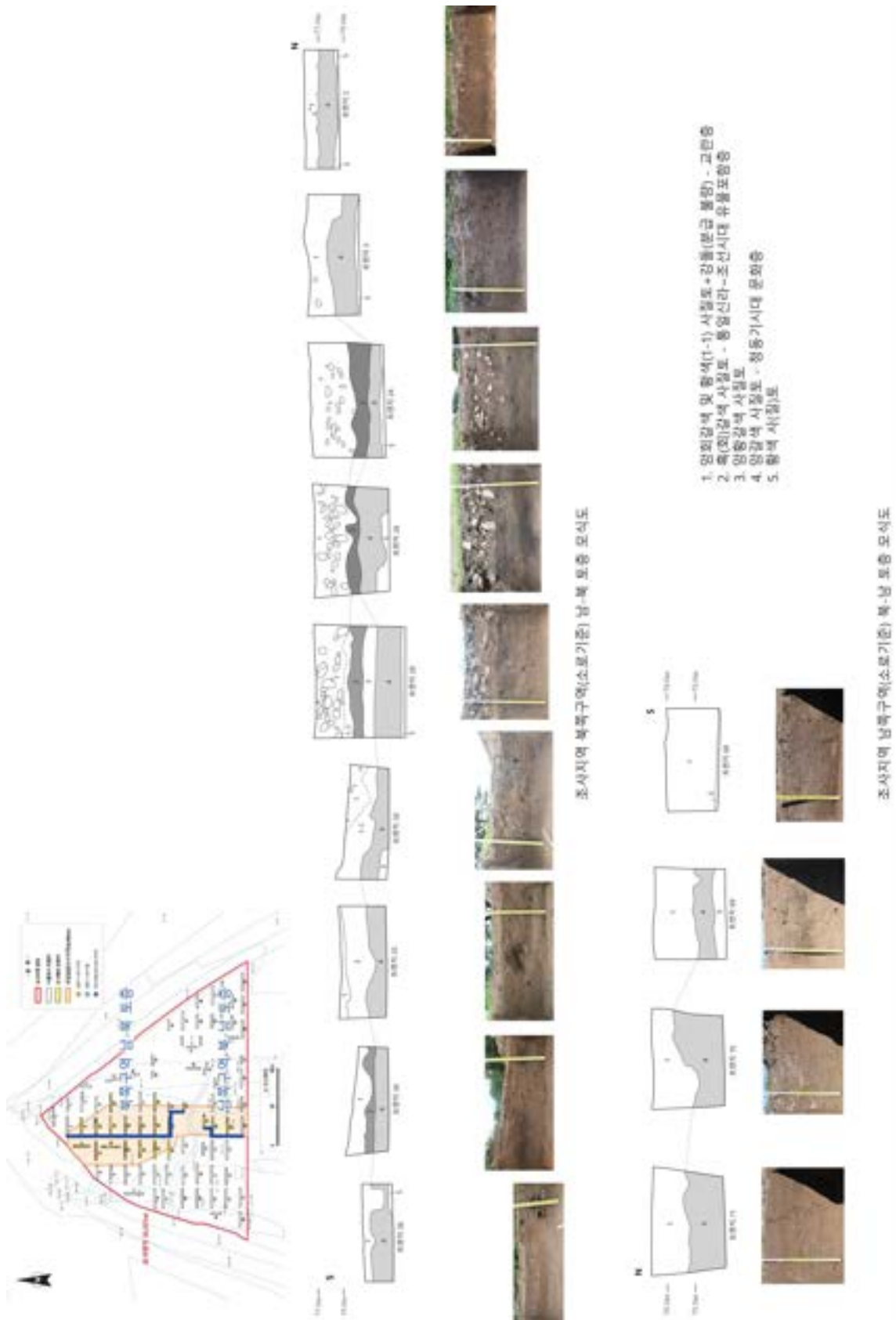
- 기준토층은 시굴조사 당시 동-서 방향으로 구획한 트렌치의 서단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제토 중 조사지역 중앙에 남-북 방향의 토층독을 기준으로 삼음.
- 「암회갈색 및 황색 사질토층(1층-교란층)-흑회갈색 사질토층(2층-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유물포함층)-암황갈색 사질토층(3층)-**암갈색 사질토층(4층)-황색 사토층(5층)**」
- 암갈색 사질토층(4층)이 청동기시대 문화층, 황색 사토층(유구확인층) 내에서 신석기·청동기·통일신라·고려시대 유구 확인 → 춘천분지 내 양상과 동일, 황색 사토층 기준 전면 제토.
- 범람(?) 등에 의한 신석기시대 문화층 소실 추정, 상부 교란으로 인해 역사시대 문화층 훼손. 청동기시대 유적 폐기 후 범람(3층).



사진 1. 동-서 토층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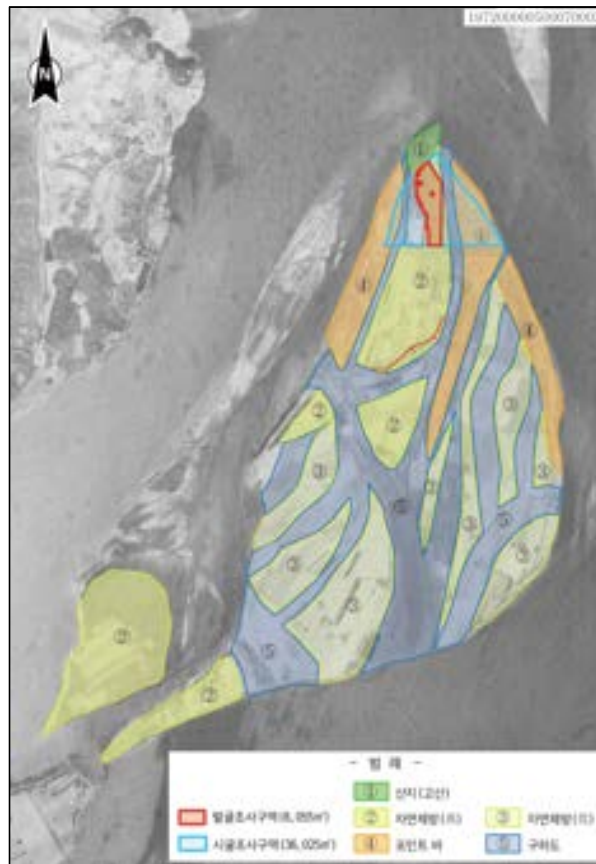
사진 2. 조사지역 전경(북→남)



도면 4. 시굴조사 당시의 남-북 토층도

2. 고지형 및 주변지역 경관 (도면 1·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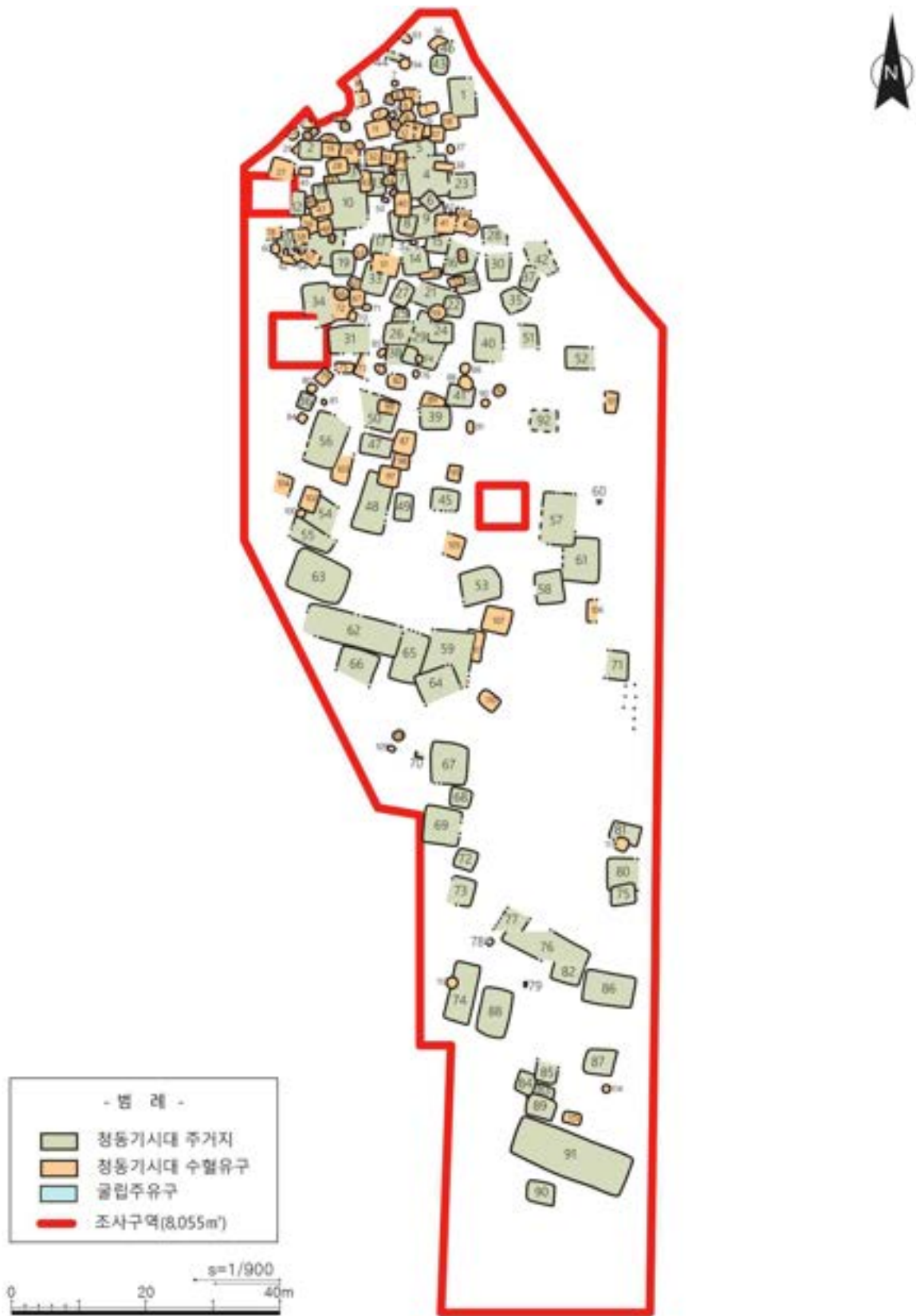
- 고산(해발 98.6m) 남쪽에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폭 40~60m의 자연제방(해발 75~76m) 상면에 입지. → 북한강 유로 폭이 넓어지고 소양강과 합류하면서 유속이 감소되어 고산을 기점으로 퇴적 활발. 고산 부근의 해발고도가 상중도에 비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점차 낮아짐.
 - 유적의 동쪽과 서쪽 양 구역은 저지대로, 고지형 분석 결과 구하도 및 포인트 바(해발 72~73m)로 판별 → 시굴조사결과 모래와 자갈의 교차퇴적 양상 확인.
 - 반경 2km 이내에 다수의 층적지 입지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위치.
 - 동쪽 : 우두동유적 - 근화동유적(우두범람원)
 - 서쪽 : 신매리 - 금산리 - 현암리유적(신매범람원)
 - 남쪽 : 중도동(하중도)유적
- 일제강점기(1910년대) 제작 지도로 보아 북한강 하천 유로는 과거 셋강의 형태로, 강변에 다수의 포인트 바를 통해 다양한 생계활동영역 확보 및 취락 간 교류 추정.



도면 5. 상중도 일원 고지형 분석도면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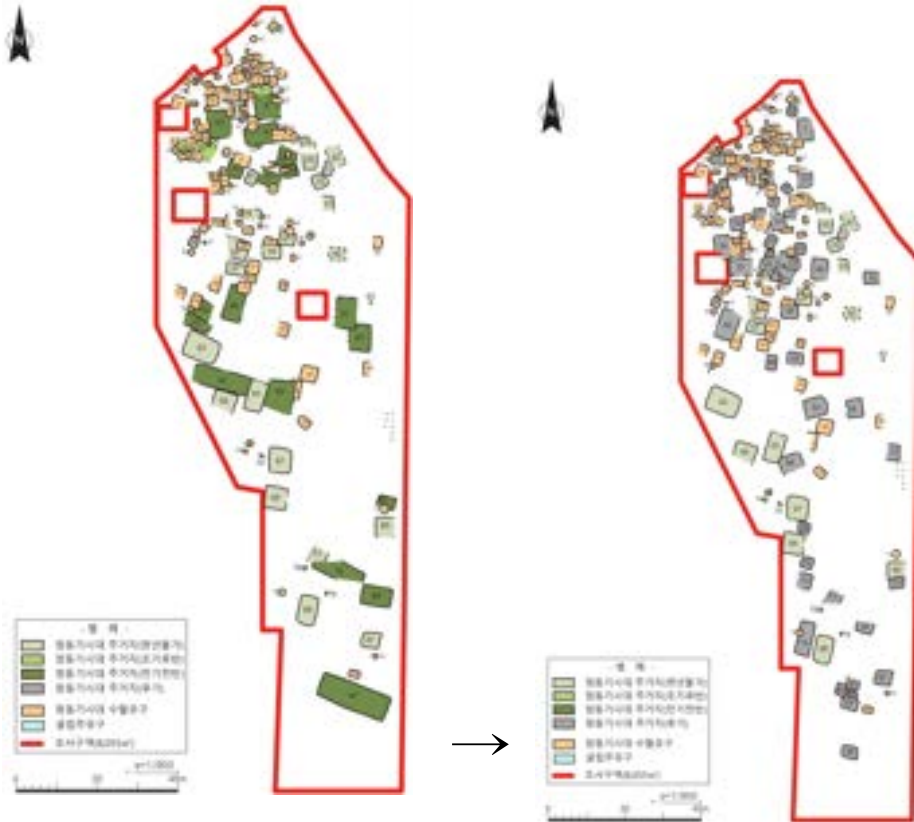


도면 6. 일제강점기 지형도 상의 유적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도면 7. 청동기시대 전체 유구현황도(1:900)

Ⅲ. 조사내용



도면 8.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취락

도면 9.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1.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취락 (도면 8)

■ 주거지 A (6동)

- 구조 : 대형 (장)방형 + (석상)위석식 노, 소형 방형
-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무문토기, 석도, 지석, 환상석기, 석제 수하식 등
- 4, 5, 20(1222~1050BC), 59(1207~986BC), 61(1127~929BC), 81호

→ 전형적인 초기(돌대문토기단계) 유구유물조합에서 벗어나 전기 유물과의 조합을 보임 (금산리유적과 유사한 전기 전반 추정). 돌대문토기문화의 색채가 멀어지고 공열문토기문화에 점차 동화.

■ 주거지 B (10동)

- 구조 : (장)방형, 세장방형 + 위석식/수혈식/평지식 노
-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공열문토기, 마연토기, 무문토기
- 석제 검파두식(월형), 석검(편), 무경식 석촉, 유경식 석촉(이단경), 석도, 석부, 지석, 어망추, 방추차, 환상석기 등
- 9(1126~982BC), 33(1117~931BC), 48(1221~1044BC), 54, 55, 57(1207~986BC), 62(1208~1007BC), 76(1014~896BC), 86(1133~1012BC), 91(1117~967BC)호

→ 전기 전반 유구유물조합.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가 주거지A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와 유사.

■ 취락형태

- 유적 북쪽~중앙 주거지 A(5, 20, 61호), 중앙~남쪽 주거지 B(48, 62, 86, 91호)로부터 점차 확산. 일부 주거지 간 중복
- 면상구조. 친족(혈족) 중심의 주거군집 형성 추정.
- 주거지 주변에 부속시설(수혈 39호 등) 배치.

<주거지 A>



사진 3. 4호 주거지



사진 4. 20호 주거지



사진 5. 55호 주거지



사진 6. 61호 주거지



사진 7. 61호 주거지 석상위석식 노



사진 8. 20호 주거지 출토
구순각목문토기



사진 9. 55호 석제 검파두식 사진 10. 55호 석제 환상석기



사진 11. 61호 석제 수하식

<주거지 B>



사진 11. 62호 주거지



사진 12. 76호 주거지



사진 13. 91호 주거지



사진 14. 62호 주거지 출토 토기



사진 15. 33호 주거지 토기 출토 모습

2.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도면 9)

■ 주거지 C (천전리식 주거지-11동)

- 구조 : 소형 (장)방형 + 황(갈)색 점토다짐구역 + 수혈식/평지식 노
 -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점토대토기(1호), 무문토기, 호형토기, 석창, 무경식 석축, 유경식 석축(일단경, 일체형), 석부, 석도(주형, 역제형), 유구석부, 지석, 방추차, 어망추 등
 - 1(788~541BC), 2(788~541BC), 6, 7, 17(652~544BC), 34, 39(516~381BC), 64, 81, 85(597~457BC), 90(573~408BC)호
- 천전리유형 유구유물조합. 공열문토기 일부 존속 및 무문화 경향. 청동기시대 중기(900~700BC) 공백.

■ 주거지 D (14동)

- 구조 : 소형 (장)방형 + 수혈식/평지식 노
-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점토대토기(56호), 무문토기, 호형토기, 석창, 무경식 석축,

유경식 석축(일단경, 일체형), 석부, 석도(주형, 역제형), 유구석부, 지석, 방추차, 어망추 등

- 31, 40, 49, 56(546~400BC), 58(766~465BC), 63, 65, 68, 72, 73, 75, 80, 84, 89호
→ 대부분 소형 방형의 주거지이나 점토대토기 공반 주거지(1, 65호)는 장방형. 천전리유형 유물조합과 공통분모.

■ 취락형태

- 주거지 C, 주거지 D가 공존하며 적어도 2개소의 면상 구조를 보임. 북쪽의 경우 유구밑 집도가 높고 중복관계가 심해 후기 세부 편년 가능성 있음.
- 친족(혈족) 중심의 주거군집 형성 추정.
- 주거군집 북쪽에 별도의 부속시설 공간 마련 가능성-11호 수혈(651~544BC), 12호 수혈(774~540BC)

<주거지 C(상) / 주거지 D(하)>



사진 16. 1호 주거지



사진 17. 39호 주거지



사진 18. 49호 주거지



사진 19. 72호 주거지



사진 20. 1호 주거지 출토 방추차



사진 21. 6호 주거지 출토 석촉



사진 22. 72호 주거지 출토 호형토기

IV. 맺는말

춘천 중도동유적의 청동기시대 유구 조사성과와 비교해보면,

-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후기에 점유. 전기 후반~중기의 시간적 공백 확인. 중도동유적과 비교할 때 초기~전기 취락은 초기 보다 전기에 치중된 양상.

- 초기~전기 취락

-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에 돌대문토기문화의 색채가 점차 열어지고, 이중구연·구순각목문·공열문 단독문양토기문화로의 전환 양상 확인. 전기 돌대문토기문화의 소멸이 동화에 가까운 방식이었을 가능성 있음.
- 청동기시대 전기로 전환되면서 선형 보다는 면상의 구조 형성.
- 전기 광주 역동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제 반원형 검파두식과 유사한 석제 검파두식이 전기 주거지(55호)에서 출토. 중국 동북지역(요동-강상 7호묘)의 영향이지만 청동제 검파두식 모방(돌출부 형태 장방형). 입주형 검파두식 이전단계로 파악.

- 후기 취락

- 북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중기 물질문화(천전리유형)가 중도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소형 방형 주거지(주거지 D)와 공존하며 지속되나 세장방형 천전리식 주거지 미확인.
- 후기 천전리식 주거지(주거지 C), 장방형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공반양상 확인.
- 면상 구조. 주거지 간 중복관계를 고려해 세부편년 필요.
-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의 군집양상은 중도동유적과 유사.

대전 금고동 103-1번지 일원 유적

신수현·문수균·최경용(미래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 유 적 명 : 대전 금고동 103-1번지 일원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 내 유적
- 허가번호 : 제2023-1251호
- 조사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시굴조사 - 4,485㎡ / 발굴조사 - 1,370㎡[1차: 1,230㎡ 2차: 140㎡]
- 조사기간 : 2023. 11. 30.~2023. 12. 05.(시굴조사)
2024. 02. 26.~2024. 05. 17.(발굴조사)

표 1. 조사경과

일시	내용
2022. 04. 01.	지표조사 실시(동방문화재연구원)
2023. 11. 30.	시굴조사 착수(실조사일수 5일)
2024. 02. 26. ~ 2023. 03. 29	발굴조사(실조사일수 25일) 조사면적- 1,230㎡(1지점 352㎡, 2지점 878㎡) - 1지점-조선시대 토광묘 7기 - 2지점-청동기 석관묘 6기, 회곽묘 1기, 수혈유구 1기
2024. 04. 25.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자문위원 : 강봉원 위원, 이상준 위원, 하문식 위원
2024. 05. 09. ~ 2024. 05. 17.	발굴조사(실조사일수 5일) 조사면적-140㎡(1지점 70㎡, 2지점 70㎡) - 1지점 조선시대 토광묘 1기 - 2지점 청동기 석관묘 1기

II. 조사지역의 위치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은 동쪽으로 약 200m 이격하여 금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 북쪽으로는 불무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완만한 가지능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능선은 조사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남쪽에는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 타운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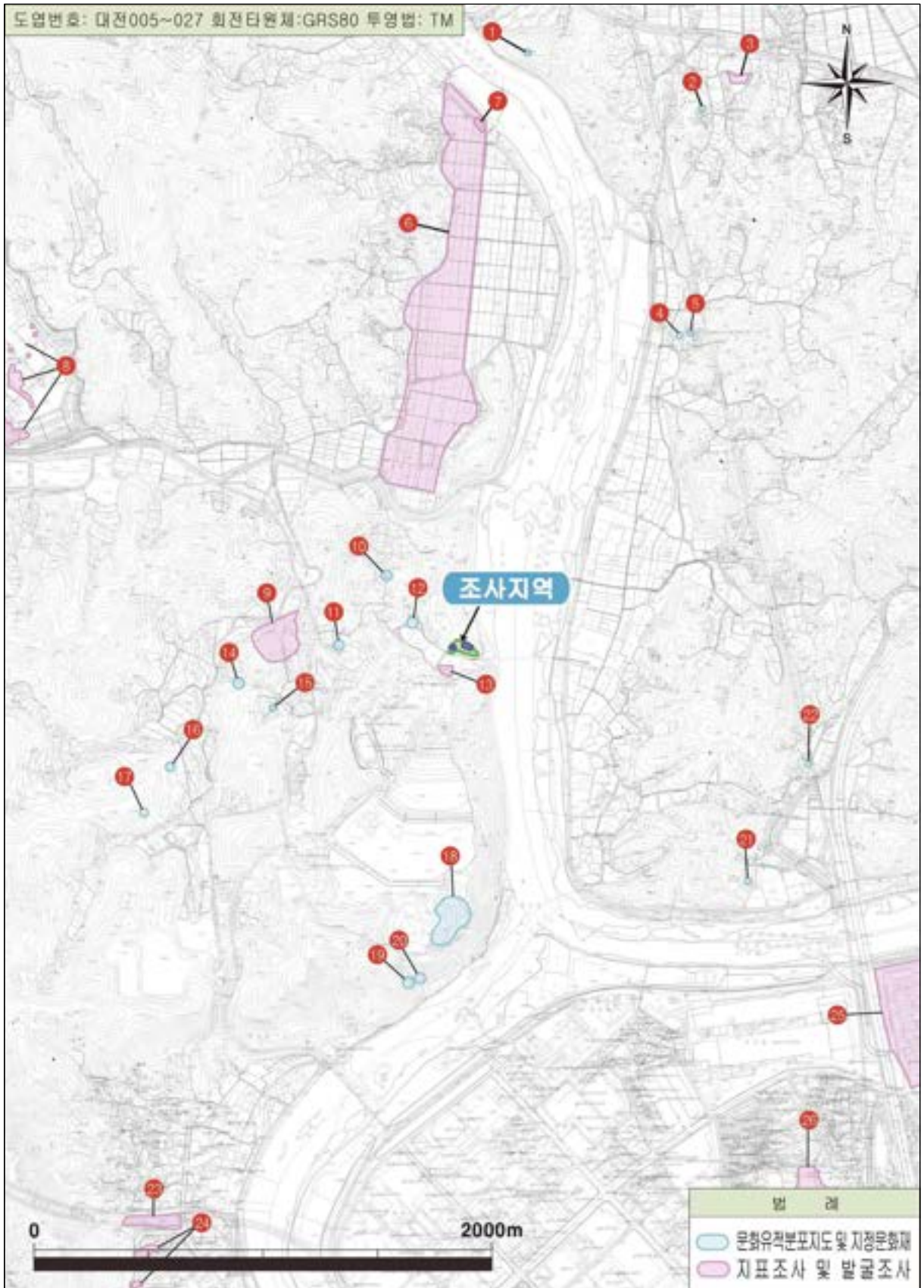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불무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이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분기하여 형성된 가지능선의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해발 50m 내외의 비교적 낮은 구릉에 해당하며, 능선 정상부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남사면과 소규모 곡부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 조사지역 위치(구글어스)



사진 2. 조사지역 항공사진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표 2.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분류	출처
1	월송정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3-5	조선	주거건축	문화유적분포지도
2	오상진 효자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14	조선	유교건축	문화유적분포지도
3	시목리 유적존재가능지역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 28번지	고려 조선	유물산포지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4
4	지선정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248	조선	주거건축	충청북도지정문화재 111호
5	강고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248	근대/일제 강점기	무덤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6	금강본류-대동 대동들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일대	시대미상	유적분포 가능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7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 하천정비 사업부지 내 유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22-6	통일신라	산업생산	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유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산106	고려 조선	무덤유적 생활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9	금고동 유물산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420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비전문화유산연구원 2020
10	대전 금고동 밤골 거리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10	시대미상	민속유적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1998
11	대전 금고동 원금고 샘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1동 442	시대미상	민속유적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1998
12	대전 금고동 밤골 샘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11	시대미상	민속유적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1998
13	금고동 유물산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101-3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14	대전 금고동 풍천임씨·역용공파 송조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1동	조선	비갈	문화유적분포지도
15	대전 금고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437	시대미상	노거수	문화유적분포지도
16	대전 금고동 손봉연 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11	조선	무덤유적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1994
17	대전 금고동 안정나씨 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109-5임	조선	무덤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18	대전 금고동 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23	삼국	성곽	유성지구편찬위원회 1998
19	대전 봉산동 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	시대미상	민속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20	대전 봉산동 각시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	시대미상	민속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21	오준입 효자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산7	조선	유교건축	문화유적분포지도
22	청원 양지리 고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329	근대/일제 강점기	주거건축	문화유적분포지도
23	봉산동 유물산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일원	시대미상	유물 산포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4	대전 봉산동 (산39번지) 유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39	통일신라 조선	생활유적 무덤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21
25	대전 대덕구 석봉동 풍한방직부지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55	삼국	유물 산포지	국립중앙과학관 2007
26	대전 목상 근린공원조성사업구역 내 유물산포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26-1답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해원문화재연구원 2018

Ⅲ. 조사내용

조사결과 1지점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8기, 2지점에서는 청동기 석관묘 7기, 회곽묘 1기, 수혈유구 1기 등 9기가 총 1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본문에서는 정확한 시기를 파악 할 수 있는 청동기 석관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석관묘는 2지점 능선의 정상부에 1기, 동쪽 능선사면에 6기로 총 7기가 확인되었다. 5호 석관묘는 제외하고 모든 석관묘는 등고선과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 개석이 확인되는 석관묘는 2호·5호·7호이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관묘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3. 석관묘 현황표

호수	장축방향	규모(cm)		장단비 (석관)	출토유물	비고
		묘광 (길이×너비×깊이)	석관 (길이×너비)			
1호	N-40°-E	.	(84)×52	.	.	.
2호	N-24°-E	160×100×52	118×60	1.96:1	석검	바닥석
3호	N-24°-E	145×78×50	96×45	2.13:1	.	바닥석
4호	N-31°-E	170×96×50	96×74	1.29:1	미완성 석촉	바닥석
5호	N-64°-W	154×90×84	111×45	2.46:1	관옥	바닥석
6호	N-34°-E	166×66×66	134×34	3.94:1	.	.
7호	N-29°-E	172×78×42	139×56	2.48:1	비파형동검, 석검, 관옥	바닥석

(1) 2호 석관묘

2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북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쪽으로 3호 석관묘가, 남동쪽으로 4호 석관묘가 위치한다. 석관묘는 표토 제거 후 묘광과 개석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개석은 길이 약 30~45cm, 너비는 20~35cm 정도 크기의 판석 4매를 이용하였으며, 빈틈은 작은 할석으로 채웠다. 개석 일부는 토사에 의해서 일부 움직인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 원위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0cm, 너비 100cm, 최대 깊이 52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1.6:1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은 N-24°-E 방향이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 118cm, 너비 60cm이며, 평면 장단비는 1.97:1이다.

북단벽과 남단벽은 각 1매의 판석을 세워서 벽석을 축조 후 작은 할석들을 쌓아올렸다. 양단벽은 길이 10~40cm, 너비 20~3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5~6단 정도 축조하였다. 석관묘의 축조 순서는 양장벽을 먼저 축조 후 양단벽을 축조하였으며, 이후 바닥석을 축조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석은 바닥 전면에 확인되었다. 길이 10~42cm, 너비 8~50cm, 두께 3~5cm 정도의 판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북쪽에 두침석으로 보이는 할석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북단벽 동쪽에서 석검 1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2. 발굴조사 유구배치도(1:800)



사진 3. 조사지역 전경



사진 4. 개석



사진 5. 전경



사진 6. 서쪽벽석



사진 7. 동쪽벽석



사진 8. 북쪽벽석



사진 9. 남쪽벽석



사진 10. 바닥석



사진 11. 출토유물(석검)

(2) 3호 석관묘

3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북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쪽으로 7호 석관묘가, 서쪽으로는 2호 석관묘가 위치한다. 석관묘는 표토 제거 후 묘광과 벽석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45cm, 너비 78cm, 최대 깊이 50cm이며, 평면 장단비는 1.85:1이다. 장축은 N-24°-E 방향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 96cm, 너비 45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2.13:1이다.

벽석은 길이 46~70cm, 너비 24~44cm, 두께 8~10cm 내외의 판석을 세워서 축조하였다. 북단벽과 동장벽은 1매, 서장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워서 축조하였으며, 남단벽은 중앙에 할석 1매를 놓고 빈 공간에 석재를 이용하여 채웠다.

석관묘의 축조순서는 북쪽 단벽을 가장 먼저 축조 후 양장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닥석을 축조하였으며 빈틈은 할석으로 채웠다. 바닥석은 바닥 전면에 확인되며, 길이 6~35cm, 너비 10~28cm, 두께 3~5cm 정도의 판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사진 12. 전경



사진 13. 북쪽 벽석



사진 14. 남쪽 벽석



사진 15. 동쪽 벽석



그림 143

사진 16. 서쪽 벽석



사진 17. 바닥석

(3) 4호 석관묘

4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북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쪽으로 5호 석관묘가, 북서쪽에 2호 석관묘가 위치한다. 석관묘는 표토 제거 후 묘광과 개석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개석은 대부분 훼손되어 작은 할석만 일부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96cm, 최대 깊이 50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1.77:1 이다. 장축은 N-31°-E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 96cm 너비 74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2.13:1 이다.

벽석은 토사로 인해 북쪽이 밀린 상태이다. 벽석은 길이 40~75cm, 너비 30~85cm, 두께 9~20cm 내외의 판석을 세워서 축조하였다. 북단벽은 1매, 서장벽은 3개, 동장벽은 2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남단벽은 벽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다음 그 위로 다른 판석 혹은 할석을 쌓아서 마무리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석은 전면에 확인되었다. 길이 15~40cm, 너비 10~35cm, 두께 3~5cm 정도의 판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벽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완성 석축 1점이 확인되었다.



사진 18. 전경



사진 19. 북쪽 벽석



사진 20. 서쪽 벽석



사진 21. 동쪽 벽석



사진 22. 남쪽 벽석



사진 23. 바닥석

(4) 5호 석관묘

5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동남쪽에 확인되었으며, 서쪽으로 4호 석관묘가, 남쪽으로 6호 석관묘가 위치한다. 장축방향은 다른 석관묘와 다르게 등고선과 직교하는 양상이다.

석관묘는 표토 제거 후 개석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개석은 5차례 걸쳐 조성하였으며, 1차 개석은 비교적 작은 할석들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2~5차 개석은 장방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개석은 대부분 원위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54cm, 너비 90cm, 최대 깊이 84cm이며, 평면 장단비는 1.71:1이다. 장축 방향은 N-64°-W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 111cm 너비 45cm이며, 평면 장단비는 2.46:1이다.

나무로 인해 일부 벽석의 밀림이 확인되지만 네벽 모두 길이 20~47cm, 너비 15~30cm, 두께 10cm 내외의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5단까지 눕혀쌓기 하여 축조하였으며, 그 위로 일부 석재를 세웠다. 네 모퉁이에 모줄임 양상이 확인되었다.

바닥석은 바닥 전면에 확인되었다. 길이 20~40cm, 너비 20~30cm, 두께 3~5cm 정도의 판석 3매를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남단벽 중앙에서 관옥이 출토되었다.



사진 24. 1차 개석



사진 25. 2차 개석



사진 26. 3차 개석



사진 27. 4차 개석



사진 28. 5차 개석



사진 29. 석관묘 전경



사진 30. 북쪽 벽석



사진 31. 남쪽 벽석



사진 32. 동쪽 벽석



사진 33. 서쪽 벽석



사진 34. 바닥석



사진 35. 출토유물(관옥)

(5) 6호 석관묘

6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남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으로 5호 석관묘가, 북서쪽에 4호 석관묘가 위치한다. 석관묘는 표토제거 후 벽석과 묘광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6cm, 너비 66cm, 최대 깊이 66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2.51:1 이다. 장축 방향은 N-34°-W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석관 규모는 길이 134cm, 너비 34cm이며, 평면 장단비는 3.94:1 이다.

벽석은 판석을 세워서 북단벽과 남단벽 각 1매, 동쪽장벽은 3매, 서쪽장벽은 2매를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바닥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관묘의 축조 순서는 북쪽과 남쪽 단벽을 축조 후에 동쪽과 서쪽 장벽을 축조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사진 36. 전경



사진 37. 북쪽 벽석



사진 38. 남쪽 벽석



사진 39. 동쪽 벽석



사진 40. 서쪽 벽석



사진 41. 서쪽벽석 모서리

(4) 7호 석관묘

7호 석관묘는 조사지역 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서쪽에 3호 석관묘가 남서쪽에 5호 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관묘는 표토 제거 후 개석과 묘광이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개석은 총 2차례 걸쳐 조성하였다. 1차 개석은 길이 13~46cm, 너비 7~27cm 정도의 다양한 크기의 할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2차 개석은 길이 17~77cm, 너비 15~38cm 정도 크기의 판석 4매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개석은 대부분 원위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78cm, 최대 깊이 42cm 이며 평면 장단비는 2.2:1이다. 장축 방향은 N-29°-E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 139cm, 너비 56cm 평면 장단비는 2.48:1이다.

벽석은 길이 38~41cm, 너비 18~24cm, 두께 3~6cm 내외의 판석을 세워쌓기 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석은 바닥 전면에 확인되며, 길이 12~31cm, 너비 30~40cm 정도의 판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중앙에서 비파형동검과 석기, 남쪽에서 관옥이 출토되었다.



사진 42. 1차 개석



사진 43. 2차 개석



사진 44. 전경



사진 45. 동쪽 벽석



사진 46. 7호 석관묘 서쪽 벽석



사진 47. 북쪽 벽석



사진 48. 남쪽 벽석



사진 49. 출토유물



사진 50. 7호 석관묘 출토유물

IV. 조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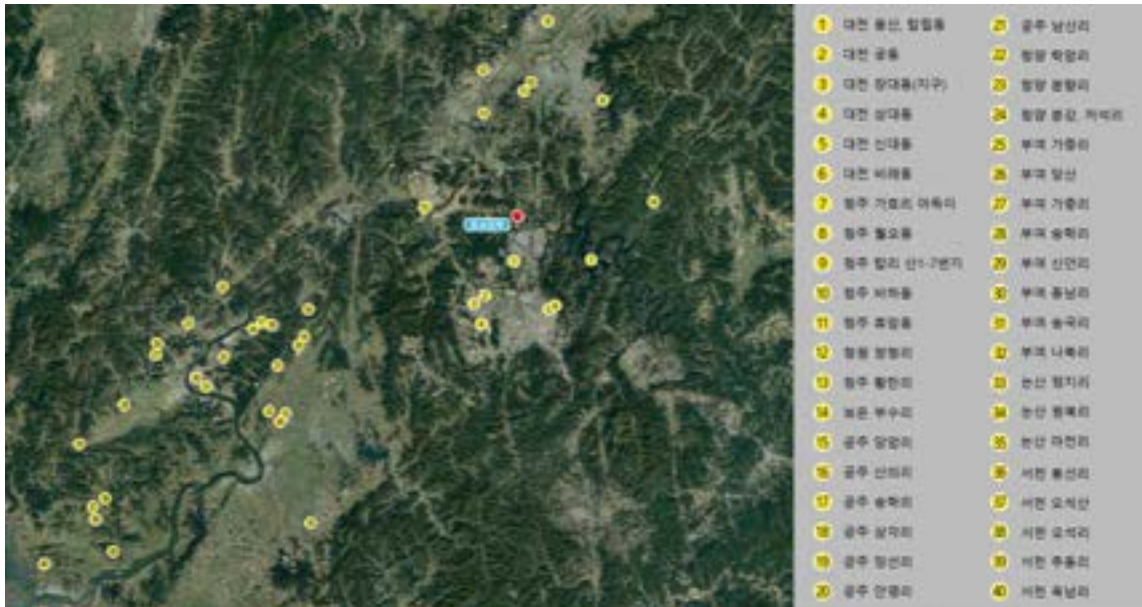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7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구릉 정상부에 1기, 나머지는 동쪽 사면부 6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석관묘는 모두 수혈식이며, 5호 석관묘를 제외하고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확인되었다.

개석은 2호, 5호, 7호에서 확인되었다. 5호와 7호는 이단 이상으로 개석을 조성하였는데 5호는 5차례, 7호는 2차례 조성하였다. 벽석 축조양상을 보면 2호와 5호 석관묘를 제외하고 북단벽과 남단벽에 큰 판석을 이용하였다. 1호, 3호, 5호는 동장벽과 서장벽도 1~3매의 큰 판석을 가로로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7호 석관묘는 판석을 세로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2호 석관묘는 북단벽 남단벽에는 큰 판석 1매로 막음을 하였으며, 동장벽과 서장벽은 다양이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5단으로 축조하였다.

바닥석은 2호, 3호, 4호, 5호, 7호에서 확인되며 판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2호 석관묘에서 석검 1점과 4호 석관묘에서 미완성 석촉 1점, 5호 석관묘에 관옥, 7호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 1점과 석검 1점, 관옥이 확인되었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석관묘 7기는 모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중류역의 특징인 할석형 석관묘 형태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인근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전지역에서 청동기 석관묘가 확인되는 유적은 6곳으로 그 중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유적은 대전 상대동 유적²⁾과 대전 비래동 유적³⁾이다(도면3). 대전 상대동 유적은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이 확인되었으며, 대전 비래동 유적은 지석묘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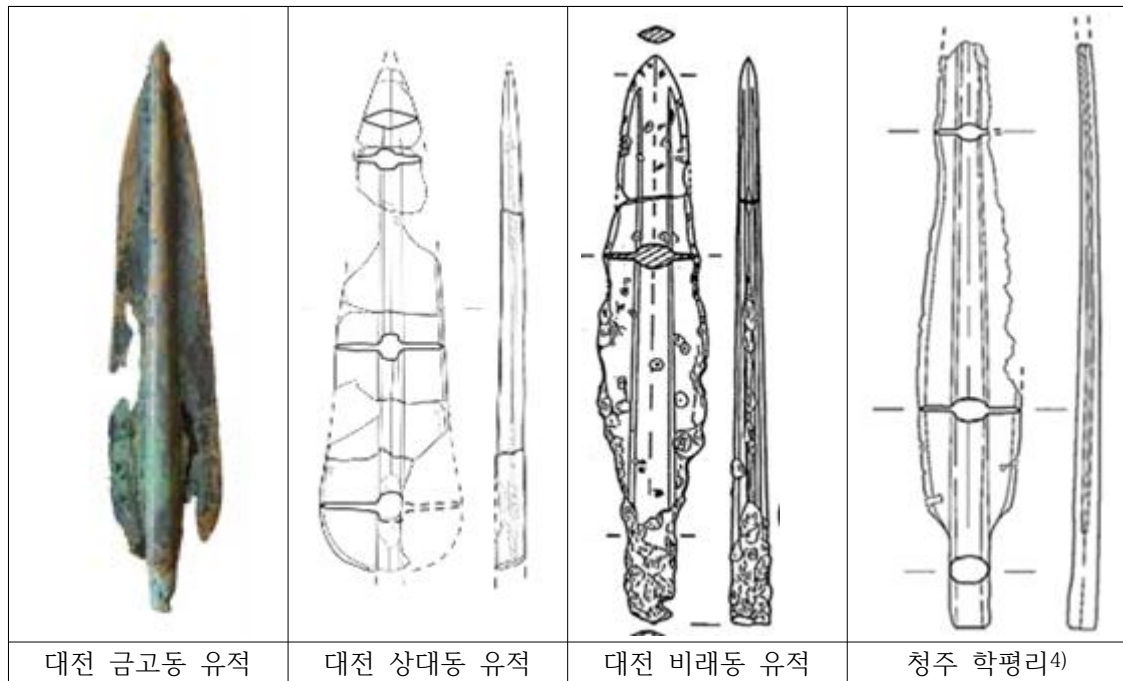


도면 3. 금강유역 청동기시대 석관묘·토광묘 분포양상

2) 백제문화재연구원, 2008,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 유적(I)

3) 성정용, 1997, 대전 신대동·비래동 청동기시대유적, 한국고고학회

표 4. 주변지역 비파형동검 비교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은 길이 25.5cm, 최대 너비 5cm, 두께 1.5cm, 무게 204.1g이다. 검신의 형태는 하단의 너비가 넓고 봉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검신의 하단 최대 너비가 확인되었다. 평면상에서 돌기부와 요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신부는 등대가 상부까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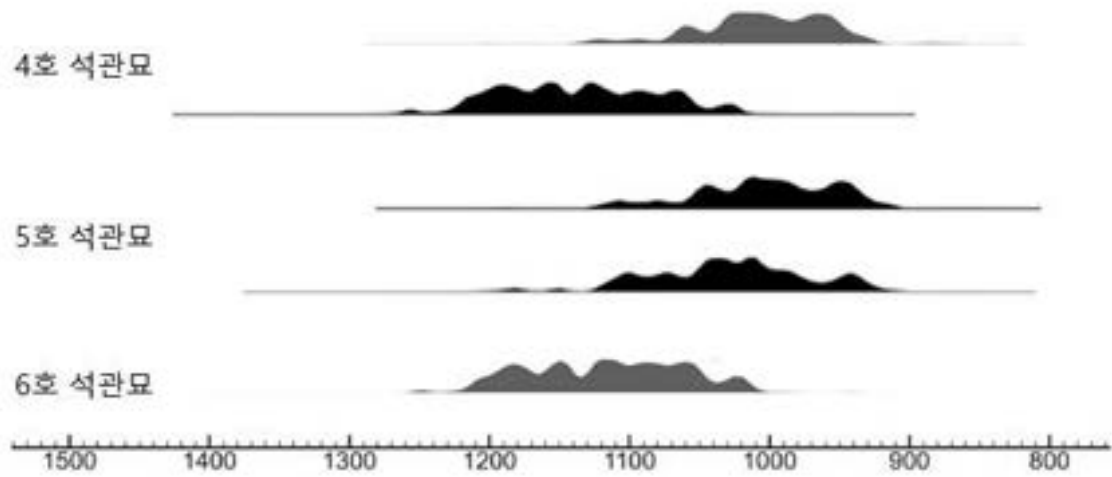
탄소연대측정은 4호, 5호, 6호 석관묘에서 확인되는 목탄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5-6와 같다.

표 5. 탄소연대측정 결과

유구명	분석번호	보정연대	측정기관
4호 석관묘	CWd240377	BC 1230~BC 1010	Carbon Analysis Lab.
4호 석관묘	RPC-240269	BC 1110~BC 900	radpion
5호 석관묘	CWd240916	BC 1130~BC 920	Carbon Analysis Lab.
5호 석관묘	CWd240378	BC 1110~BC 910	Carbon Analysis Lab.
6호 석관묘	RPC-240270	BC 1220~BC 1010	radpion

4) 한국문화재재단, 2019, 청주 학평리 219-5-222-6번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충남2·충북1)

표 6. 탄소연대측정 그래프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석관묘의 묘제 양식과 비파형동검, 관옥 등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들과 비교연구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확인되었다. 또한 절대연대측정결과 BC 12~10세기를 전후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동안 자료가 부족한 대전지역 및 금강 중류에 청동기시대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 원평동 491-1번지 일원 유적

박찬우·이동휘(국원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 유적명 : 청주 원평동(49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23-1316호
- 조사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491-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발굴조사 - 2,468㎡
- 조사기간 : 2023. 11. 01.~2023. 12. 08.

II. 조사지역의 위치

조사지역의 북쪽에는 미호강이 서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미호천이 북류하고 있다. 주변에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사지역은 북향하는 2개의 능선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역에 해당한다. 북향하는 능선은 정상부와 사면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조사지역 동쪽과 서쪽은 비교적 완만하고 주변지역과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 남쪽으로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을 편의상 2개의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수혈 2기, 노지 1기, 시대미상의 집석유구 2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2지점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4동, 수혈 10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와 회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III. 조사내용



[사진 1] 조사지역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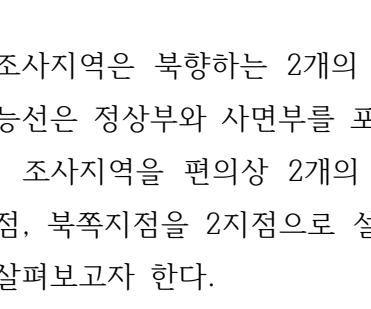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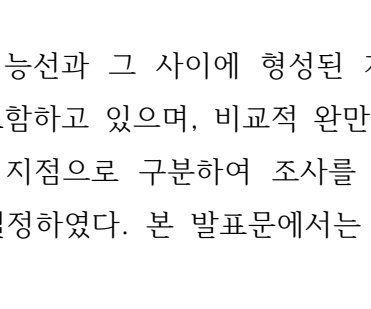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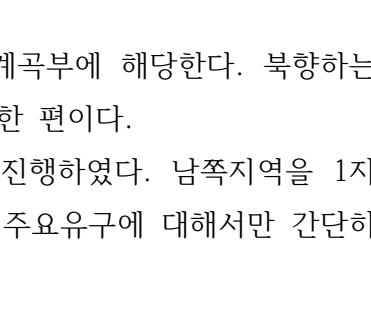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도면 2] 조사지역 1지점 현황도



[사진 14] 4호 주거지 조사 전	[사진 15] 4호 주거지 조사 후	[사진 16] 4호 주거지 토층
		
[사진 17] 4호 주거지 출토유물 1	[사진 18] 4호 주거지 출토유물 3	[사진 19]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
		
[사진 20] 5호 주거지 조사 후	[사진 21] 5호 주거지 토층	[사진 22] 6호 주거지 출토유물 1
		
[사진 23] 6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사진 24] 6호 주거지 출토유물 3	[사진 25] 6호 주거지 출토유물 5
		

조사지역은 북향하는 2개의 능선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계곡부에 해당한다. 북향하는 능선은 정상부와 사면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조사지역을 편의상 2개의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남쪽지역을 1지점, 북쪽지역을 2지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주요유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1지점

1지점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북향하는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해당하며, 비교적 지형이 완만한 편이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수혈 2

기, 노지 1기, 시대 미상의 집석유구 2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2기가 확인 되었다.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경계와 맞물려 6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이다. 주거지의 배치는 소형 방형 주거지와 원형주거지가 혼재되어 확인되고 있으며,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는 중복되어 확인되었는데, 토층조사 결과 2호 주거지(원형)가 1호 주거지(방형) 바닥면을 굴광하여 조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4호 주거지(원형)는 내부에서 송국리식 토기가 확인되었고, 주거지 중앙에 2개의 주공이 배치되어 송국리식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에서 송국리식토기, 무문토기 동체저부편, 석검편, 갈판 등이 확인되었다.

구 분	형태	잔존규모 (장축×단축×잔존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 고
1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장방형	(3.01)×(2.05)×(0.25)	N- 32°-E	수혈	무문토기편	2호 주거지와 중복
2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형	2.36×(1.82)×(0.40)	N- 38°-W	타원형 수혈	무문토기편	
3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장방형	3.28×(1.96)×(0.43)	N- 37°-W		무문토기편	
4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형	3.09×3.06×(0.60)	-	주혈	송국리식토기, 무문토기편	
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장방형	4.69×(2.49)×(0.42)	N- 62°-E	주혈		
6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장방형	(4.04)×3.10×(0.32)	N- 48°-E		무문토기편	

[표 1] 청주 원평동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제원표

IV. 소형 방형 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관계

청주 원평동 유적은 북쪽에서 서류하는 미호강과 무심천이 합수되는 지점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예전부터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청주 송절동 유적, 청주 오송 유적⁵⁾ 등 대규모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이 인접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에 해

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3, 『청주 원평동(49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淸州 松節洞 遺蹟IV: 外北洞.花溪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X』

_____, 2020, 『청주 흥덕구청사 건립부지 내 유적』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淸州 松節洞 遺蹟III: 松節洞.外北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VI: 外北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XI: VII地區 5地點』

당하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도면 3] 조사지역 주변 유적 분포도

본 발표문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들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형 방형 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관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는 송국리유형의 등장과 관련하여 문화변동 요인에 주거지가 소형화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문화요소가 변화하는 양상도 간취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해석으로 어떠한 유구·유물 복합체를 ‘~유형’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발굴조사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유구·유물 복합체가 등장하는 된 지금은 오히려 세분화된 유형의 설정이 전체 해석을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해 버린 감도 없지 않다. 특히 청동기시대 전기의 방형 주거지에서 송국리문화의 원형주거지로 전이되는 시점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여 청주 원평동 유적을 비롯한 주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지역권 내에서 세부적인 문화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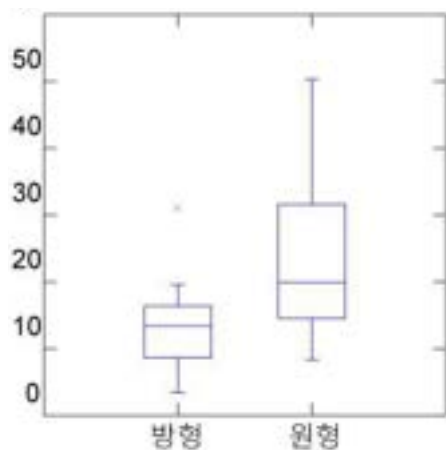
1. 원평동유적과 주변유적 주거지 비교 검토

1) 주거지 면적

원평동 유적 주변에는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유형에 해당하는 방형계 주거지부터 송국리문화의 원형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중 소형 방형 주거지는 30㎡ 이하의 주거지를 지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도면 5·6 참조) 이에 본 발표문에서도 원평동유적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중 면적이 3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을 때 소형 방형 주거지는 21기 원형주거지는 29기가 확인된다.

[도면 4] 소형 방형 주거지 면적(문수균 2016)

[도면 5] 중부내륙지역 주거지면적(김용건 2013)



소형 방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내부시설은 주혈과 소결면 등이 확인되지만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형주거지의 경우 타원형 수혈과 중심주공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송국리식 주거지도 있으나 일부 요소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도면 5]와 같이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에 비해 주거지의 면적이 전반적으로 작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수균(2016)도 경기서북부지역 중·소형 주거지를 검토하면서 이들 주거지의 평균 면적은 13.8㎡이며,

[도면 6] 원평동 주변 유적 주거지 면적

10㎡이하의 초소형 주거지의 개체 수도 40%를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원형주거지 중 면적이 월등히 차이 나는 유구가 간혹 존재함도 그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기에 해당하는 소형 방형주거지가 주거 목적이 아닌 저장시설이나 작업장 등의 기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출토유물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분석하여 각 주거지의 특징과 시기에 대한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원평동 유적과 주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에

서 출토되는 유물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 규모나 출토양상이 빈약한 편에 속한다. 이에 호서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들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원평동 주변 양상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석기

석촉의 경우에는 능형일단경식석촉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를 이루며 확인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능형일체형.능형이단경식.편평무경만입촉.편평무경평편촉이 공반된다.

지역별로 능형일단경식석촉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서산.당진지역에는 일체형.능형이단경식.편평무경만입촉이 확인되고, 천안아산지역에는 능형이단경식이 확인된다. 천안아산지역은 능형이단경식석촉이 확인되며, 서천.보령지역은 일체형.편평무경만입촉.편평무경평편촉이 확인된다. 공주.부여지역에는 일체형 석촉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전지역에는 일체형.능형이단경식.편평일단촉.편평무경평편촉이 확인되며, 청주.청원지역에서는 일체형.편평무경만입촉.편평일단촉이 확인된다. 석촉의 분류에서 이단경식석촉과 편평촉은 비교적 이른시기에 위치하며, 일단경식석촉과 일체형 석촉은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는 지역은 서산.당진 지역과 대전 지역이며, 편평일단촉은 대전.청주.청원지역에서 출토된다. 또한 공주.부여지역에는 일체형 석촉만 확인되고 있는 점은 주목 할 만 하다.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에서 삼각형석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월형석도→삼각형 석도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실제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도 반월형 석도가 상당부분 출토되고 있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출토되고 있다. 물론 삼각형석도의 비중이 반월형석도의 비중보다 높지만, 송국리문화집단에서도 반월형석도의 사용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도는 삼각형석도와 반월형석도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편주형 석도가 확인되고 있다. 삼각형석도는 서천.부여.공주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원.청주 지역에는 삼각형석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거지 평면 형태	석촉		석도	석부		석검	석창
	능형 일단	편평 무경만입	편주형	합인	주상 편인	일단 병식	
방형	●	●	●	●	●	●	●
원형	●	●	●	●	●		

[표 2] 청주 원평동 주변 유적 석기 출토양상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청주 원평동 주변에서 확인되는 석기 출토 양상은 주거지의 평면형태로 시기가 구분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석기류는 청동기시대 중기로 판단 할 수 있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서 전기와 중기의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원형주거지와 공존

했던 주거형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2)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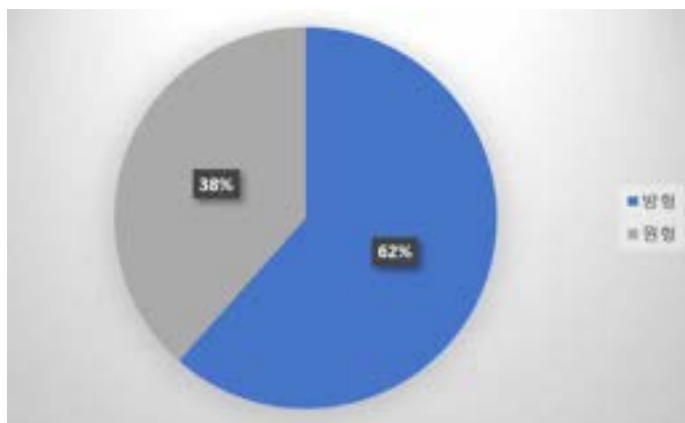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를 대표하는 토기 속성은 단연 ‘외반구연’이다. 이러한 기준 설정의 모호함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나, 외반구연이라는 속성이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국리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흥종⁶⁾은 송국리식토기에서 시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토기의 크기와 토기의 안정도로 정하여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편년을 시도하였다. 먼저 토기의 크기는 제1류 18~30cm 미만, 제2류 30~50cm 미만, 제3류 50cm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안정도는 동최대경위 위치의 비를 구한 것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A류: 기고의 10분의 5 이하에 위치, B류: 10분의 5에서 6 사이에 위치, C류: 10분의 6 이상에 위치로 구분하였다.

지역 구분	구연각		계
	≥73°	<73°	
以東	2 (6.24)	10 (5.76)	12 (48.0%)
以西	11 (6.76)	2 (6.24)	13 (52.0%)
계	13 (52.0%)	12 (48.0%)	25 (100.0%)

[표 3] 구연외반도와 지역구분의 관계(김범철 2016)

또한 김범철⁷⁾은 송국리식토기의 외반의 각도를 기준으로 차령산맥 以西와 以東을 구분하여 검정한 결과, 두 변수의 관계는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역에 따라 송국리식 토기의 구연부 외반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면 7] 주거지 형태별 외반구연토기 출토 비율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중기에 외반구연호(瓮)의 등장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청주 월평동 유적과 주변유적에서도 방형계 주거지와 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외반구연토기의 출토량은 시간성이나 그 성격을 규정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외반구연호로 분류되는 송

국리식토기는 대부분 구연부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주거지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출토

6) 이흥종, 1992, 「松菊里式 土器文化의 登場과 展開」, 『先史와 古代』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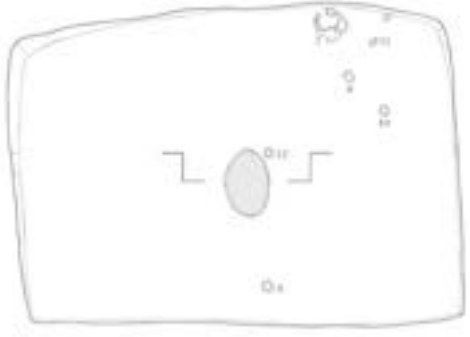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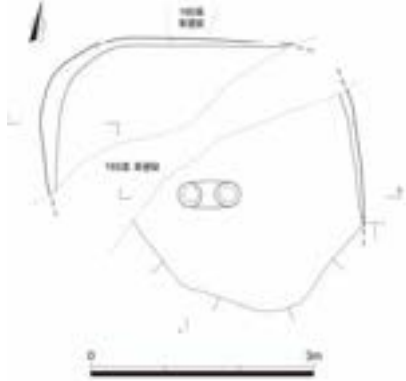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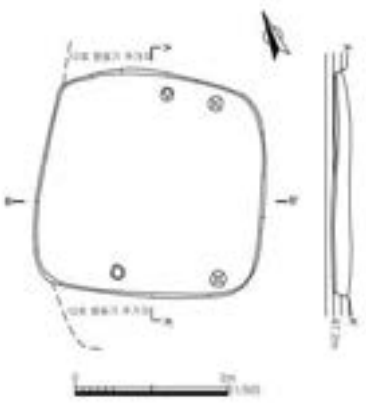

7) 김범철, 2016, 「松菊里式 土器의 形態的 變異 探索」, 『역사와 담론』 77, 호서사학회.

되는 외반구연토기의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금번 분석대상지역을 한정으로 보았을 때 방형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외반구연토기의 비율(62%)이 원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외반구연토기의 비율(38%)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출토량의 비율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간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기를 대표하는 외반구연이라는 속성이 방형계주거지에서 더 높게 확인되고 있음은 유의미한 지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3) 방형주거지 형태

주거지 평면형태의 변화는 청동기시대에서 전기와 중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지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발표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문수균⁸⁾은 소형 방형주거지를 평면, 주공, 노지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중·소형주거지들은 평면, 주공, 노지의 3가지 속성을 통해 대체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평면 형태에 있어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 기준은 전체적인 연속형 변수의 도출 이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평면비 1.5를 기준으로 방형과 장방형을 구분하였고, 주공은 배치형태와 유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심주공형은 방형주거지에서 중심주공 1기만 존재하는 단주식을 비롯하여, 복수의 중심주공을 가지는 것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장방형의 경우도 중심 주공 1기만 존재하는 단주식과 중심 주공열을 가진 형태를 포함하고, 벽주형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조성된 주공 배치를 의미하며 중심주공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부정형은 일정한 분포양상 없이 배치된 형태로 보았다. 노지 역시 주공과 마찬가지로 배치 형태와 유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심형과 편재형은 단수의 노지에 해당하며, 복수노지는 2개 이상의 노지를 가진 모든 개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8) 문수균, 2016, 「경기서북지역 청동기시대 중·소형주거지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한국청동기학회.

 <p>청주 송절동 II-1 2호주거지</p> <p>노지 시설</p>	 <p>청주 오송 유적 10호 주거지</p> <p>타원형 수혈</p>
 <p>청주 흥덕구청사부지 유적 10호 주거지</p> <p>주공배치</p>	 <p>청주 송절동 유적 7-3-5호 주거지</p> <p>무시설식</p>

[도면 8] 원평동 주변유적 방형주거지 내부시설 분류

청주 원평동 유적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주거지는 크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노지시설이 존재하는 형태, 2. 타원형수혈 및 중심주공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휴암리식), 3. 주공이 배치되는 형태, 4. 무시설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형태와 내부시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전시기와 새로운 문화유소의 결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해당문화의 전개과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며 이들이 어떠한 상관관계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원평동 유적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는 주거지의 소형화라는 큰 맥락속에서 여러 문화요소들이 탈락·수용되어 갔던 결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주 원평동 유적 주변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

주거지의 소형화는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변화상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생계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형태의 변화를 다양한 문화 변동 과정을 종합적으로 간취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문수균⁹⁾은 주거지 배치 양상의 변화는 주거지 형태 구성의 변화와 함께, 생활방식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예로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이 집중된 중·소형 주거지의 존재는 도구의 제작과 관련한 생산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출토유물이 빈약한 중·대 형 규모의 주거지와 중·소형주거지가 공존한 시기에는 공동 창고 등과 관련한 저장 기능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기 주거지와는 다른 생활 양식의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원평동 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 주거지의 양상은 석기 및 토기 유물상에서는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방형계 주거지의 모티브를 놓고 보았을 때는 다양한 시기적 요소나 내부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개별 문화요소들이 수용 및 소멸 되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은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발굴성과를 기대해 본다.

V. 맺음말

청주 원평동 491-1번지 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491-1번지 일원이며, 발굴조사 면적은 2,468m²이다. 유적은 북향하는 2개의 능선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역에 해당한다. 북향하는 능선은 정상부와 사면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조사지역 주변 북쪽지역은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동쪽과 서쪽은 조사지역과 유사한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 남쪽으로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을 편의상 2개의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조선시대 건물지 4동, 적심 4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13기, 시기미상 집석유구 3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3기와 조선시대 회곽묘 1기 등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청주 원평동 유적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 방형주거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번 분석대상지역을 소지역권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 지역 내에서는 소형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유구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양자간의 시간적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청동기 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취락에서 이들 주거지들은 공존하였으며, 특히 소형 방형 주거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문수균, 2016, 앞의 글.

- 참고문헌 -

<논문>

- 김범철, 2016, 「松菊里式 土器의 形態的 變異 探索」, 『역사와 담론』77, 호서사학회.
- 김용건, 2013, 『中部內陸地域靑銅器時代前·中期文化轉移過程研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균, 2016, 「경기서북지역 청동기시대 중·소형주거지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한국청동기학회.
- 안재호,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 이동휘, 2016, 「충청지역 송국리문화의 다양성 연구」, 『先史와 古代』50.
- 이흥종, 1992, 「松菊里式 土器文化의 登場과 展開」, 『先史와 古代』4.

<보고서>

- 국원문화유산연구원, 2023, 『청주 원평동(49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사 약보고서』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淸州 松節洞 遺蹟IV: 外北洞.花溪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X』
_____, 2020, 『청주 흥덕구청사 건립부지 내 유적』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淸州 松節洞 遺蹟III: 松節洞.外北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VI: 外北洞 遺蹟』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XI: VII地區 5地點』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부지 내(1구역-1) 유적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 서쪽구간-

이경림
(재)전남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II. 조사내용	
III. 조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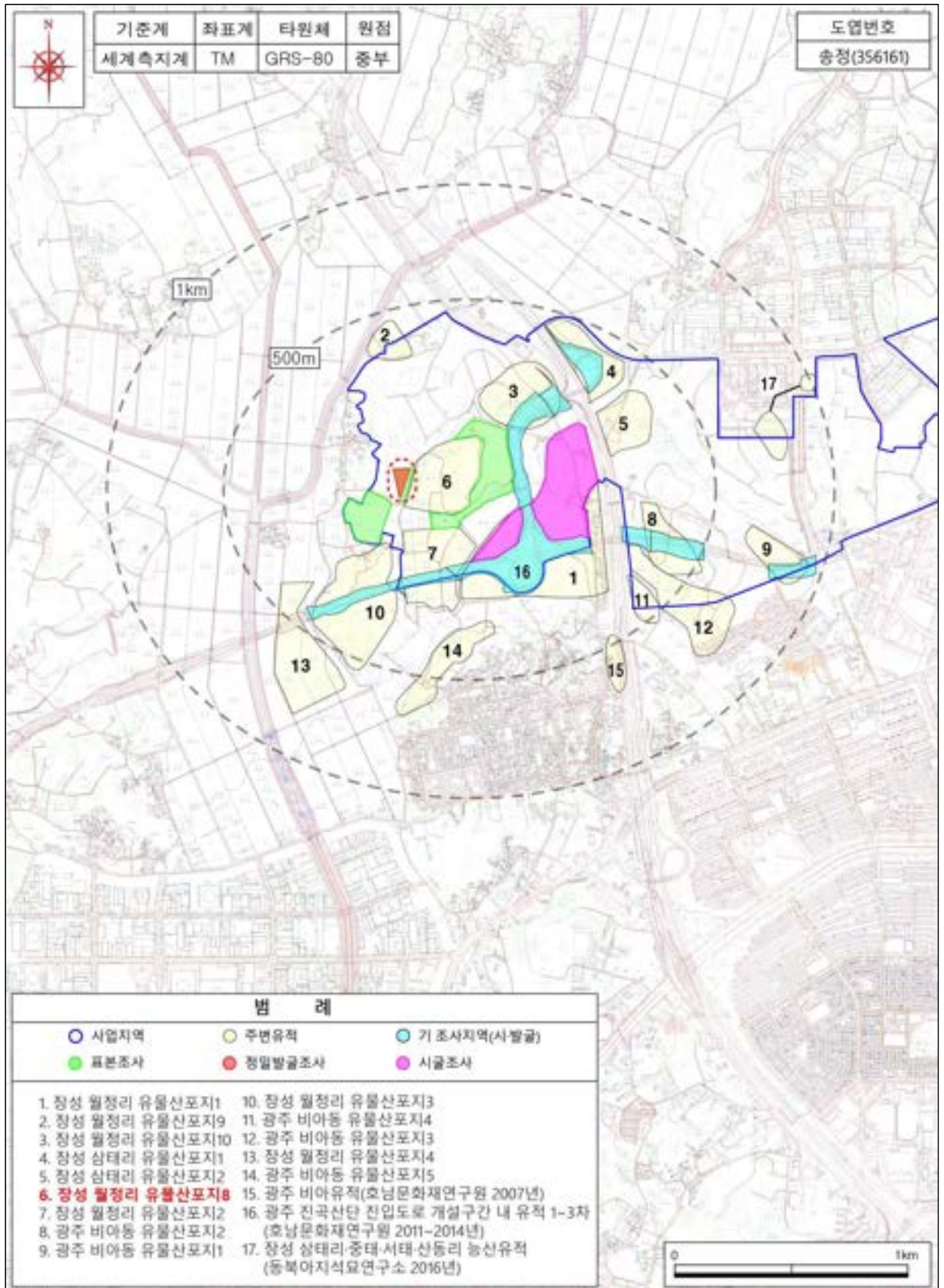
I. 조사개요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이다.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20개소 유물산포지에 대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기관이 협업하여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구역에 포함된 유적에 대해 3개 기관(전남문화유산연구원(1구역-1), 영해문화유산연구원(1구역-2), 동서종합문화유산연구원(1구역-3))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원은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1,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3(북쪽구간),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동쪽, 서쪽구간)에 대한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유적 사례 발표는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서쪽구간)**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2-6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현황은 <표 1>과 같다.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 유형	조사결과	비고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11. 12. 14 ~ 2012. 02. 10	3,800,000	지표	사업지역 내에 17개소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됨.	시굴조사의견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보완)지표조사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22. 01. 20 ~ 2022. 02. 02	3,616,853	지표	사업지역 내에 20개소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됨.	시굴조사의견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부지 내(1구역-1) '장성 월정리유물산포지8' 표본조사	전남문화유산 연구원	2024. 03. 21 ~ 2024. 04. 25	96,660	표본	삼국~조선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토광묘 등	변경허가 (유적발굴과- 1372, 2024.06.21)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부지 내(1구역-1) '장성 월정리유물산포지8' 정밀발굴조사	전남문화유산 연구원	2024. 06. 25 ~ 2024. 09. 12	5,036	발굴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유구· 구상유구,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삼국시대 주거지·수혈유구· 구상유구·지상건물지, 조선시대 토광묘 등 확인.	부분완료 (유적발굴과- 6094, 2024.10.28)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1/25,000 ; 국토지리정보원 참조)

II.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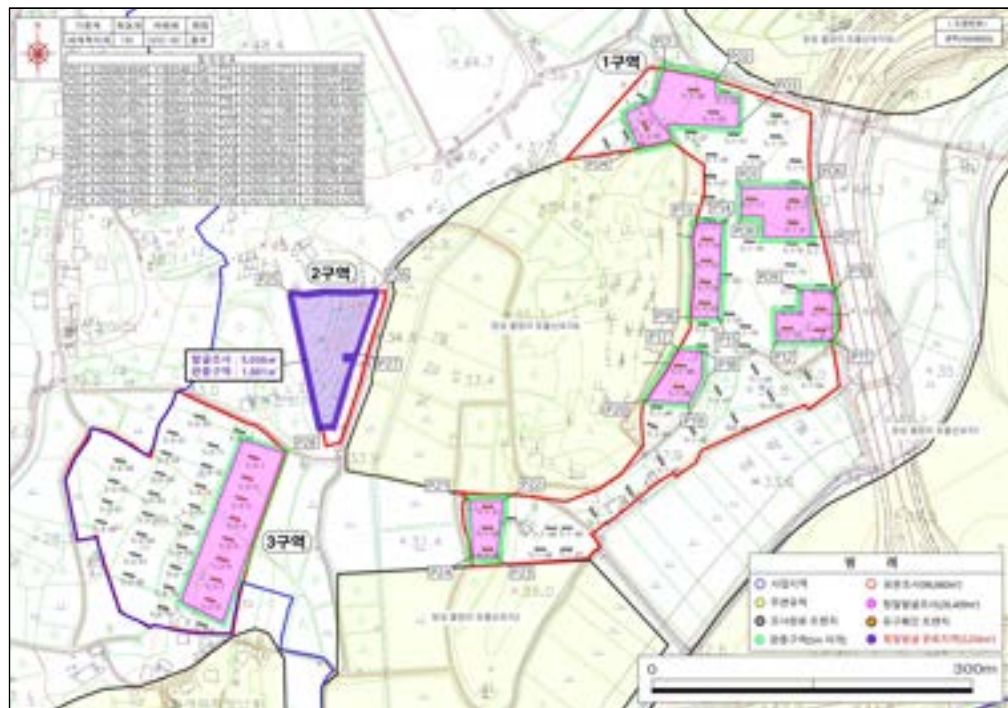
1) 유적 위치 및 퇴적양상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은 월정리 월산마을 뒤편 동쪽의 야트막한 구릉과 사면 곡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44~46m의 구릉 사이에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 과수원과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휴경상태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산포지 범위 중 중앙구간은 동서종합 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 .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주구토광묘, 토기가마, 토광묘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다¹⁰⁾.

본 연구원에서 진행한 정밀발굴 조사지역은 유물산포지의 동쪽구간과 서쪽구간에 해당하고, 동쪽구간을 1구역, 서쪽구간을 2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금번 조사는 유물산포지의 서쪽구간인 2구역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5,036㎡이다.

정밀발굴 조사결과,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3기,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4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1기, 삼국시대 주거지 4기, 삼국시대 수혈유구 16기, 삼국시대 구상유구 8기, 삼국시대 지상건물지 7기, 조선시대 토광묘 12기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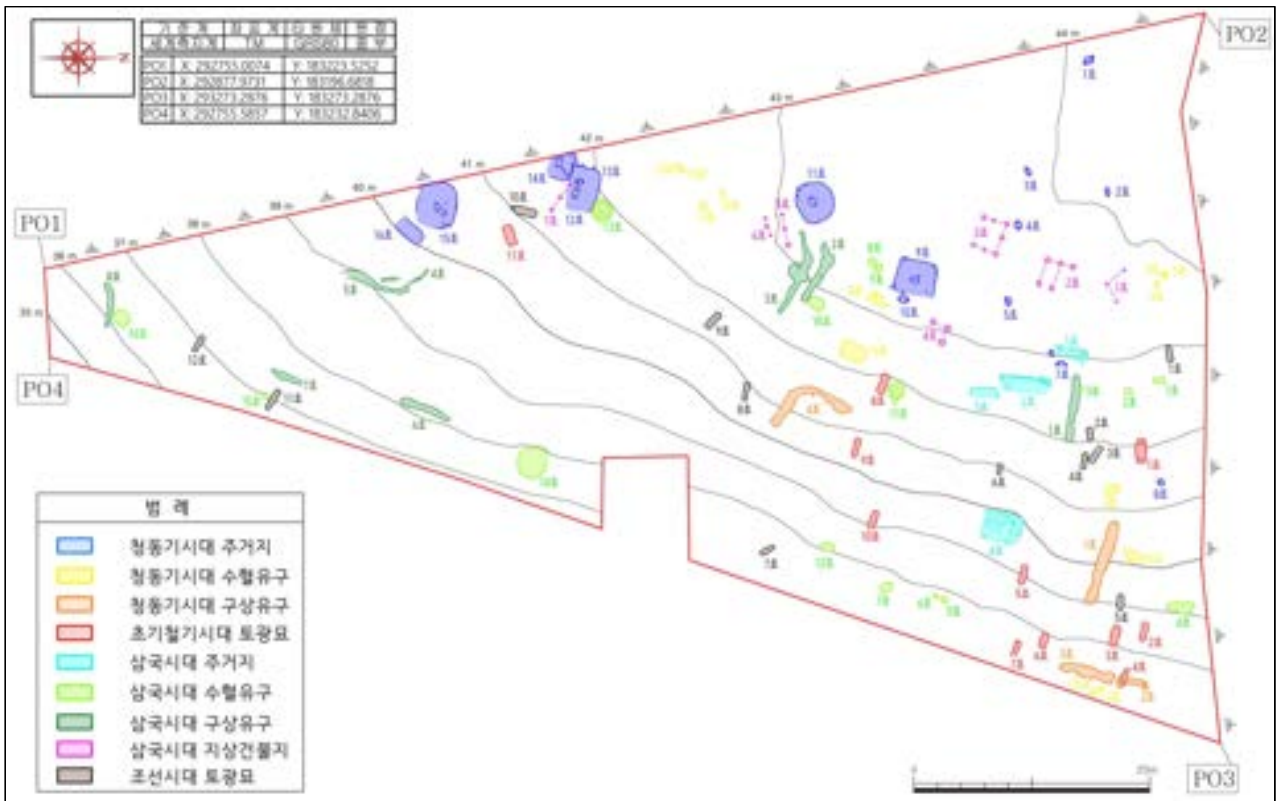


도면 2. 정밀발굴 전환지역 및 조사지역 위치도(1/5,000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0) 동서문화유산연구원, 2024,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부지 내(1구역-3) 유적 매장유산 시 · 발굴조사 약보고서』.



사진 1. 정밀발굴 조사지역 2구역(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 서쪽구간) 조사 후 전경(항공촬영, 직상에서)



도면 3. 정밀발굴 조사지역 2구역 유구현황도(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 서쪽구간)

2) 조사내용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16기,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3기,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4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18기가 확인되었고, 대부분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16호를 제외한 15기의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가 위치하는 송국리형 주거지이고, 타원형구덩이는 수혈 양 끝에 주공이 하나씩 있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평면형태는 동쪽 경사 하단부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형태를 알 수 있는 6기의 주거지 중 11호를 제외한 5기(9·12·14·15·16)의 주거지가 방형계로 판단된다. 11호의 경우 내부에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어 화재주거지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타원형구덩이 외에 벽구, 수혈, 주공 등이 확인된다. 벽구는 14·15호 에서 확인되는데, 부분 벽구의 형태로 확인된다. 수혈은 2기(9·15)에서 확인되었고, 주공은 다수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전반적으로 무문토기편, 석촉, 석부, 방추차 등이 소량 확인된다.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사현황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모(cm) (길이×너비×깊이)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노지	타원형 구덩이	벽구	주공	수혈		
1	·	북서-남동 (N13°W)	88×71×10	·	○	·	○ (2)	·	석촉, 미완성 석재	
2	·	동-서 (N2°W)	91×44×16	·	○	·	·	·	무문토기편	
3	·	북서-남동 (N71°E)	100×46×21	·	○	·	·	·	·	
4	·	동-서 (N82°E)	92×66×10	·	○	·	·	·	·	
5	·	북동-남서 (N61°E)	78×61×28	·	○	·	·	·	·	
6	·	북동-남서 (N27°E)	68×45×37	·	○	·	·	·	·	
7	·	북동-남서 (N29°E)	120×(50)×5	·	○	·	·	·	·	
8	·	북동-남서 (N11°E)	65×59×30	·	○	·	·	·	·	
9	방형계	북동-남서 (N23°E)	440×(376)×14	·	○	·	○ (8)	○ (2)	석촉, 석재, 무문토기	
10	·	북동-남서 (N20°E)	116×72×18	·	○	·	○ (1)	·	·	
11	원형계	북동-남서 (N78°E)	438×392×14	·	○	·	○ (4)	·	·	화재
12	방형계	북동-남서 (N16°E)	516×460×31	·	○	·	○ (3)	·	방추차, 석착	청12호주→청13호 주→청14호주
13	·	북동-남서 (N16°E)	84×52×14	·	○	·	·	·	·	청13호주→청14호 주
14	방형계	북서-남동 (N63°W)	314×192×10	·	○	○	○ (5)	·	석촉, 석부	청12호주→청14호 주
15	방형계	동-서 (N84°W)	477×426×60	·	○	○	○ (6)	○ (1)	무문토기 동체부	
16	방형계	북동-남서 (N49°E)	330×126×6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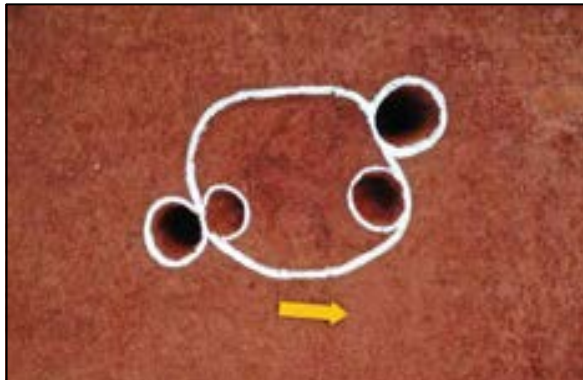


사진 2. 1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3. 1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4. 2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5. 2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6. 3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7. 3호 주거지 퇴적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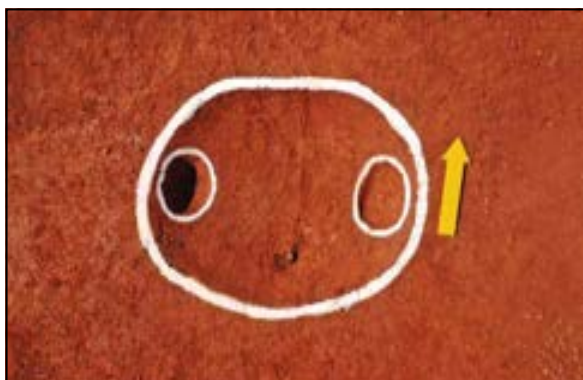


사진 8. 4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9. 4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10. 8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11. 8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12. 9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13. 9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14. 10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15. 10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16. 11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17. 11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18. 12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19. 12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20. 13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21. 13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22. 14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23. 14호 주거지 퇴적양상



사진 24. 15호 주거지 조사완료



사진 25. 15호 주거지 퇴적양상

(2)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유구로는 토광묘가 총 11기 확인되었고, 구릉 사면부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한 11호를 제외하고, 10기가 북동쪽에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등고선과 직교하는 장축방향을 가진다. 토광묘는 1단으로 굴착하였고, 바닥은 'U'자형이다.

내부 퇴적양상에서 회백색 띠가 최하단에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목관 주변으로 보강토를 채워 넣었다. 유물은 방추차와 점토대토기, 장경호, 단경호, 세형동검, 철기 등이 확인되었다.

<표 3>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조사현황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모(cm) (길이×너비×최대깊이)	출토유물	비고
1	장방형	동-서(N7°W)	260×103×86	방추차	내주공
2	장방형	북서-남동(N71°W)	(205)×62×55	동체부편	
3	장방형	북동-남서(N16°E)	176×54×54	장경호	
4	장방형	북서-남동(N70°W)	207×82×109	점토대토기	
5	장방형	북서-남동(N70°W)	211×67×72	세형동검, 장경호	
6	장방형	북서-남동(N68°W)	168×78×44	장경호	
7	장방형	북서-남동(N26°W)	(172)×58×23	.	내주공
8	장방형	북서-남동(N61°W)	220×74×36	세형동검	
9	장방형	북서-남동(N21°W)	207×63×51	세형동검	
10	장방형	북서-남동(N62°W)	197×64×35	장경호	
11	장방형	북동-남서(N76°E)	221×102×44	세형동검, 철부, 장경호, 단경호	



사진 26. 1호 토광묘 조사완료



사진 27. 1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28. 3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29. 3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30. 4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31. 4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32. 5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33. 5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34. 6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35. 6호 토광묘 퇴적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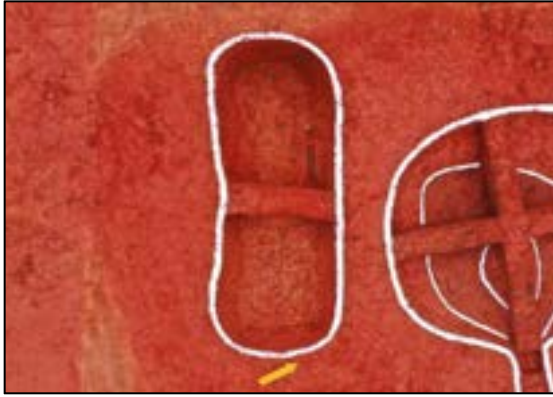


사진 36. 8호 토광묘 조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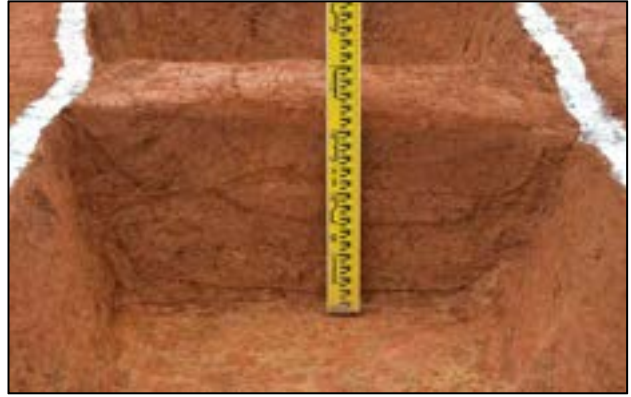


사진 37. 8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38. 9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39. 9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40. 10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41. 10호 토광묘 퇴적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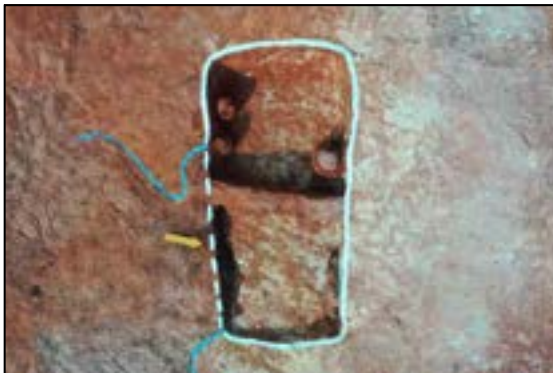


사진 42. 11호 토광묘 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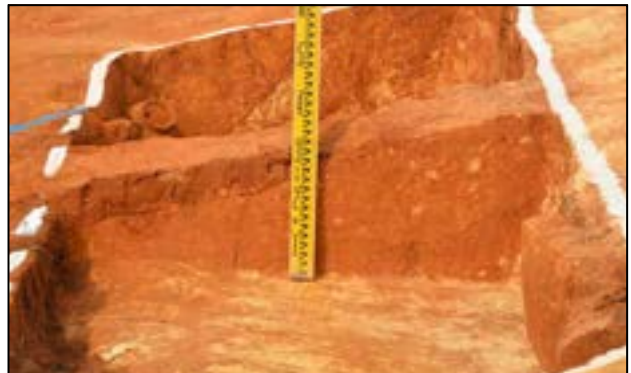


사진 43. 11호 토광묘 퇴적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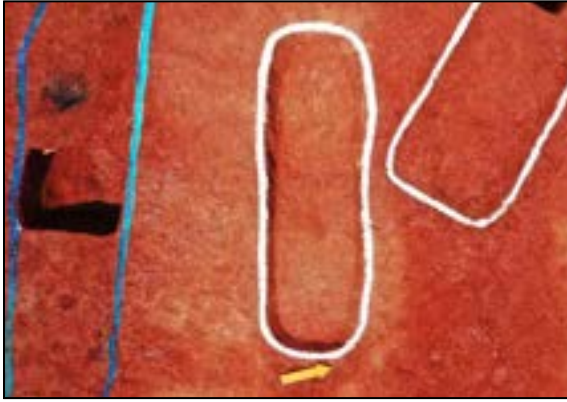


사진 60. 4호 토광묘 조사완료



사진 61. 4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62. 5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63. 5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64. 8호 토광묘 조사완료



사진 65. 8호 토광묘 퇴적양상



사진 66. 11호 토광묘 조사과정



사진 67. 11호 토광묘 퇴적양상

Ⅲ. 조사성과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이며, 조사대상 유적은 **장성 월정리 유물산포지8(서쪽구간)**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2-6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유물산포지는 월정리 월산마을 뒤편 동쪽의 야트막한 구릉과 사면 곡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44~46m의 구릉 사이에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 과수원과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휴경상태이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 수혈유구 13기, 구상유구 4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1기, 삼국시대 주거지 4기, 수혈유구 16기, 구상유구 8기, 지상건물지 7기, 조선시대 토광묘 12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석축, 석착, 석부, 방추차,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고,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에서 세형동검, 철부편, 원형점토대토기, 장경호, 단경호 등이 확인되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부지 내(3구역-2) 유적

강진표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I. 조사개요
- II. 조사내용
- III. 맺음말

I. 조사개요

발굴조사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62번지 일원으로 장성군과 시·도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사업시행 전 대상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지표조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2022)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22개소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으며, 기초사가 이루어진 2개소를 제외한 21개소에 대하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지역이 광활하여 유적의 분포양상을 고려하여 1~3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소에서는 3구역에 포함되는 장성 학림리 월정유물산포지와 광주 대촌동 대촌유물산포지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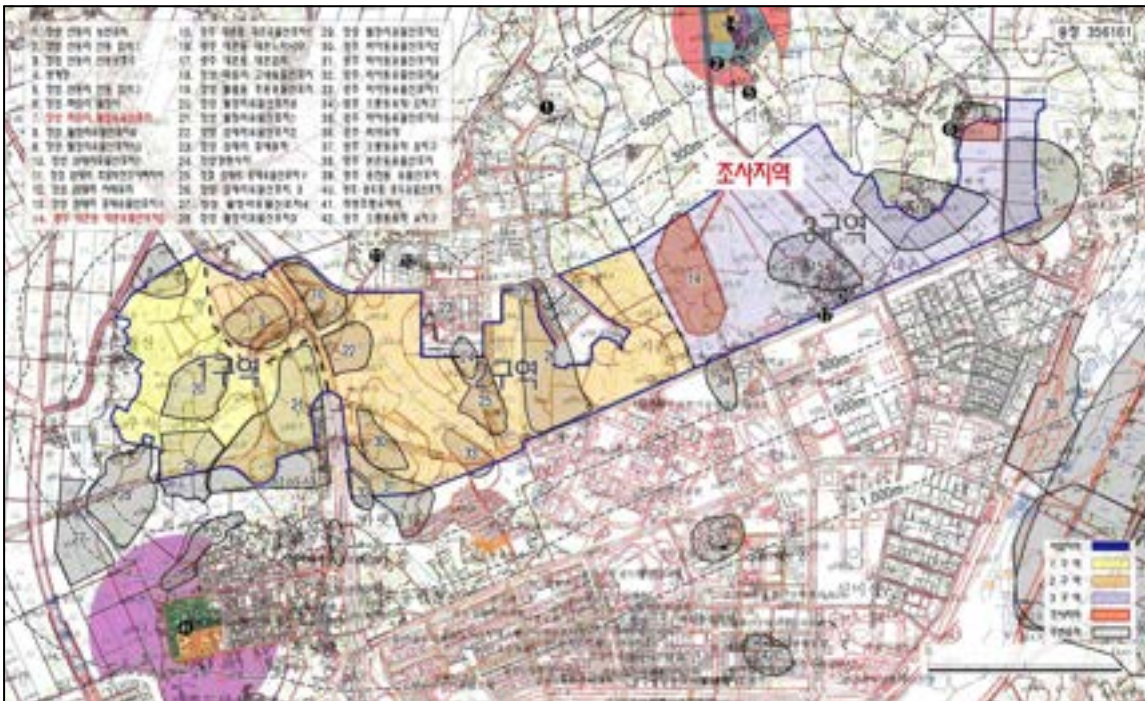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시굴조사는 지장물 보상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대촌동 대촌유물산포지2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11개 지점 총면적 35,225㎡에 대해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정밀발굴조사 면적 및 현황

유적명	발굴면적(m ²)		조사내용	시대	비고
광주 대촌동 대촌유물산포지2	1지점	7,119	석관묘, 주거지, 토광묘, 수혈, 구상유구 등	청동기~조선	
	2지점	6,099	주거지, 토광묘, 수혈, 토광묘, 구상유구, 소성유구 등	청동기~조선	
	3지점	1,062	토광묘, 수혈, 가마 등	고려~조선	
	4지점	481	수혈, 구상유구	시대미상	
	5지점	1,899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등	고려~조선	
	6지점	6,499	토광묘, 수혈, 구상유구 등	고려~조선	
	7지점	1,747	수혈, 구상유구 등	시대미상	
	8지점	4,258	수혈, 토광묘, 유물포함층 등	구석기~조선	
	9지점	2,398	수혈, 구상유구, 수레바퀴흔 등	조선	
	10지점	2,053	주거지, 토광묘, 수혈 등	청동기~조	
	11지점	1,610	주거지, 토광묘, 수혈, 구상유구 등	청동기~조선	
	총	35,225			

조사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8기, 석관묘 22기, 수혈 5기, 삼국시대 주거지 1기, 고려시대 주거지 1기, 가마 2기, 폐기장 1곳, 토광묘 1기, 수혈 17기,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9기, 수혈 17기, 구상유구 6기, 시대미상 수혈 179기, 구상유구 22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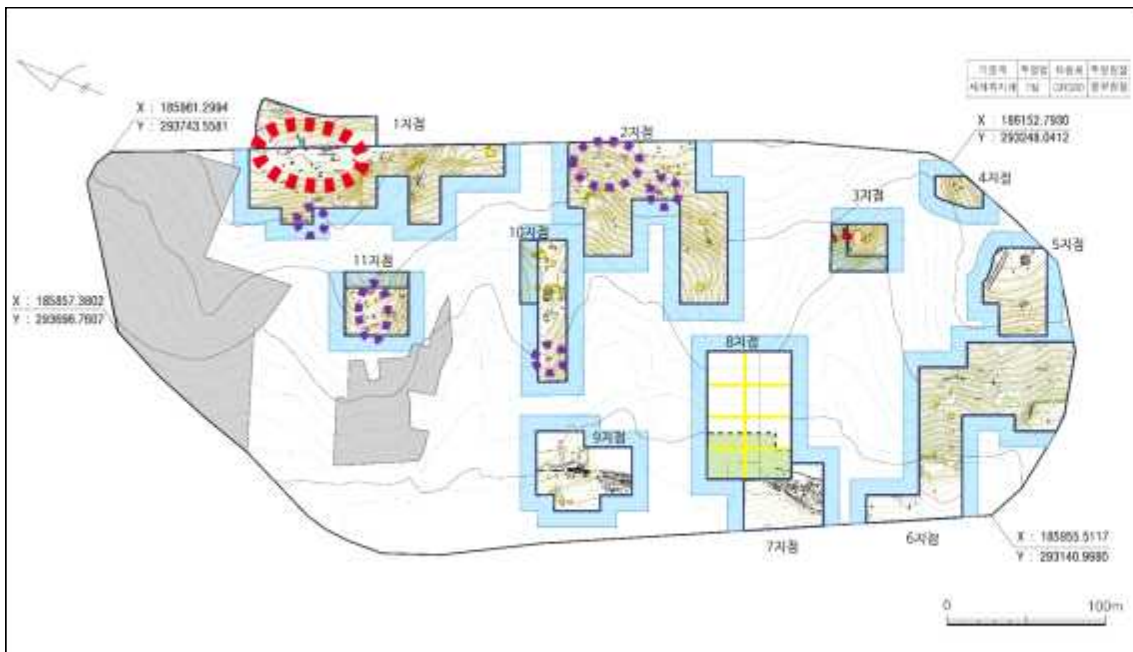


그림 2. 광주 대촌동 대촌유물산포지 2 발굴조사 지점별 배치도

II. 조사내용

(1) 유적의 입지 및 주변유적

해당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62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이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장성군 남면의 경계지역이다. 조사지역의 북서쪽은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주변으로 해발 40~5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과 충적평지가 발달하였으며, 조사지역의 동남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져 영산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다.

조사 당시 이 지역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해발 47m의 구릉지로 소나무 숲과, 밭, 과수원, 민묘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지역은 구릉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부분이 경지정리 등으로 원지형의 훼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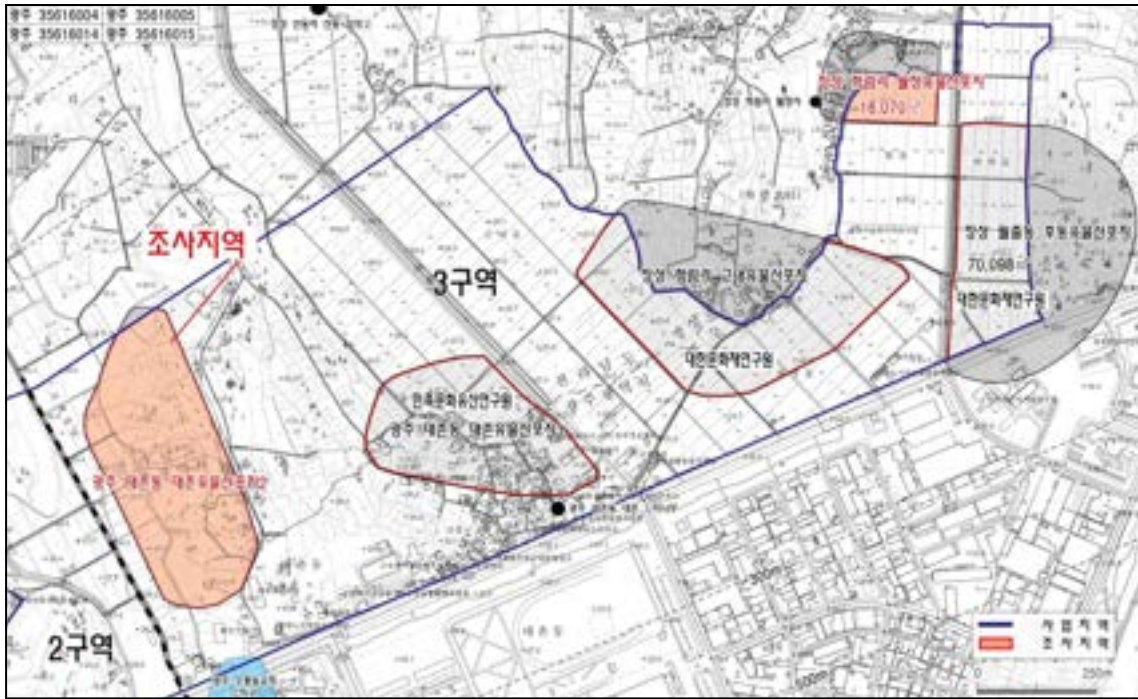


그림 3.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위치도(S:1/10,000)

(2)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8기가 조사되었다. 1지점 구릉 사면부에서 1기, 2지점 구릉 정상부에 치우쳐 4기, 10지점과 11지점 구릉 사면부 중앙에 치우쳐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사이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방형이 주를 이루며,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와 노지,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은 불다짐처리하거나,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10지점의 경우 평면형태 원형으로 내부시설로는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바닥은 점질토로 다짐처리 하였다. 유물은 토기편과 석촉, 미완성 석기, 석재편 등이 출토되었다.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 현황

지점	호수	평면 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지점	1호	방형계	468	(157)	18	미완성석기1	노지, 주공, 내부수혈
2지점	1호	방형	586	424	19~47	토기편	교란으로 형태 훼손,
	2호	방형	(348)	(172)	8~12	토기편	잔존상태 불량,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3호	방형	(338)	(191)	20~32	-	잔존상태 불량,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4호	방형	354	324	7~21	토기편, 석촉	타원형수혈, 수혈과 중복
10지점	1호	원형계	(261)	261	10	토기편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남쪽 유실
11지점	1호	방형	396	447	25	토기편	타원형수혈, 점토다짐
	2호	방형	(282)	429	13	저부, 석촉, 석제편	타원형수혈, 남쪽 유실



1지점 1호 주거지



2지점 2호 주거지



10지점 1호 주거지



11지점 1호 주거지

(3) 청동기시대 석관묘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총 22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1지점의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되었다. 석관묘의 잔존상태는 양호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방향과 나란하거나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개석이 확인된 석관묘는 총 7기이며 그중 17호는 이중개석을 사용하였다. 개석은 소형 할석과 판석재 개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판석재 개석 위로 소형할석이 저면에 걸쳐 덮여져 있는 양상이었다. 벽석은 크게 사용한 석재에 따라 크게 3가지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먼저 먼저 판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한 형식과 판석형 할석은 사용하여 조성한 형식, 할석재를 이용하여 1단을 쌓고 2단부터 입석하여 축조한 형식이다.



그림 4. 1지점 석관묘 조사 후 전경(직상)



그림 5. 1지점 석관묘 배치도


[표 3] 석관묘 벽석 사용석재

판석	할석 또는 자연석	판석+할석

[표 4] 청동기시대 석관묘 현황

지점	호수	개석유무	바닥시설	규모(cm)	벽석	유물	비고
1지점	1호	有(2중)	잔자갈	180×110×35	판석	석촉	
	2호	·	·	222×120×36	할석		
	3호	有	할석+잔자갈	230×104×20	없음		
	4호	有	·	206×100×30	판석		
	5호	·	할석	150×116×10	할석		바닥면만
	6호	·	·	(116)×82×14	판석(?)		
	7호	·	판석+할석	160×40×7	판석+할석		바닥면만
	8호	·	판석+할석	(118)×(32)×10	판석+할석		바닥면만
	9호	·	할석	196×60×20	할석		바닥면만
	10호	·	·	226×56×23	판석+할석		벽석 일부 잔존
	11호	·	잔자갈	182×(80)×17	판석+할석	옥	
	12호	·	잔자갈	160×38×38	판석	석촉	
	13호	·	할석	210×52×20	할석	석촉	바닥면만
	14호	·	할석	80×35×14	할석		바닥면만
	15호	有	·	190×36×20	판석		
	16호	·	·	(170)×38×31	판석		
	17호	有(2중)	·	172×44×32	판석		
	18호	有	·	70×45×20	판석		
	19호	有	·	160×40×31	판석		
	20호	·	·	142×56×16	판석(?)		훼손
	21호	·	할석+잔자갈	(142)×54×10	할석		
	22호	有	잔자갈	160×40×50	판석형 할석	장방형석도, 석검, 검파두식	

[표 5] 석관묘 바닥시설 구분

전면	3열	판석	무시설
			
1·9·12·22호	3·21호	7·8·13·14호	2·4·15·16·17·18·19호

바닥시설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할석 또는 잔자갈을 사용하여 전면에 깔거나 판석재를 1~3열 간 형식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1·12·13호에서 석촉 1점씩 11호에서 옥 1점, 22호 석관묘에서 장방형석도, 석검, 검파두식이 출토되었다.



그림 6. 22호 석관묘 출토유물

22기의 석관묘 중 상태가 양호한 석관묘 8기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내 조성된 공원부지로 이전·복원을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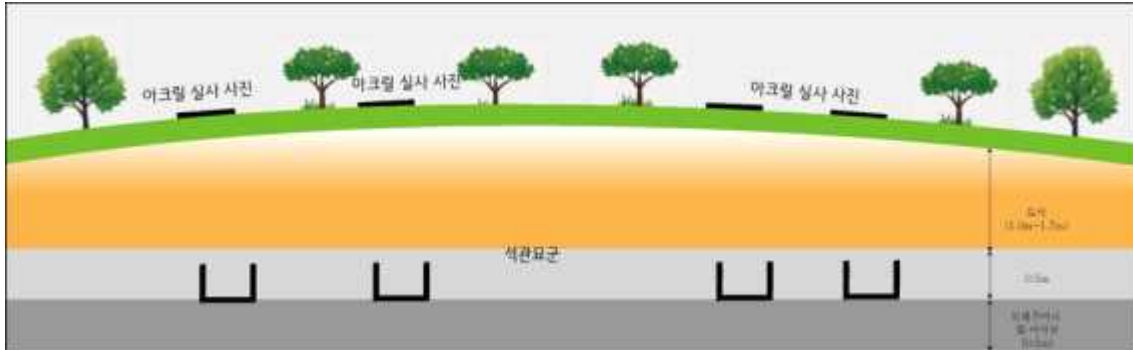


그림 7. 석관묘 이전·복원 모식도

Ⅲ. 맺음말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3구역-2지점의 광주 대촌동 대촌유물산포지에서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8기, 석관묘 22가 확인되었다.

이중 광주 대촌동 석관묘는 여타의 묘제가 조성되지 않고 석관묘만이 군집을 이룬다. 주지하다시피 석관묘는 “송국리형 묘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묘제 중 옹관묘, 석개토광묘 등은 극히 드물게 조성되고, 지석묘가 중심을 이룬다.

호남지역의 석관묘와 석관묘 포함 송국리형 묘제에 대한 아래의 연구를 보면,

- 김승욱,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45.
- _____, 2003 「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 『한국고고학보』49.
- 이영문, 2011 「소위 송국리형 묘제의 형성과 그 특징」 『문화사학』28.
- 이명훈, 2015 「송국리형 묘제의 검토」 『한국고고학보』97.
- 김규정, 2021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분묘 일고찰 -석관묘와 석관형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29.

위의 연구들에서는 석관묘의 속성으로 묘광의 다단여부, 벽석으로 사용된 석재, 벽석 축조방법, 개석 다단·유무, 바닥조성, 뒷채움 등을 추출하였다. 또한, 벽석의 사용석재를 할석의 채용으로 지석묘와 상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대촌동 석관묘는 송국리형 주거지를 조성한 청동기시대인들이 지석묘의 매장주체부 축조방법을 일부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지석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석묘 축조인들과 일정한 점유지역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다만, 판석으로 석재를 가공하는 것이 할석을 사용하는 것보다 용이하지 않으므로, 단순 석재의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촌동 석관묘는 1구역-1지점에서 확인된 토광묘의 앞 단계에 위치할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 전후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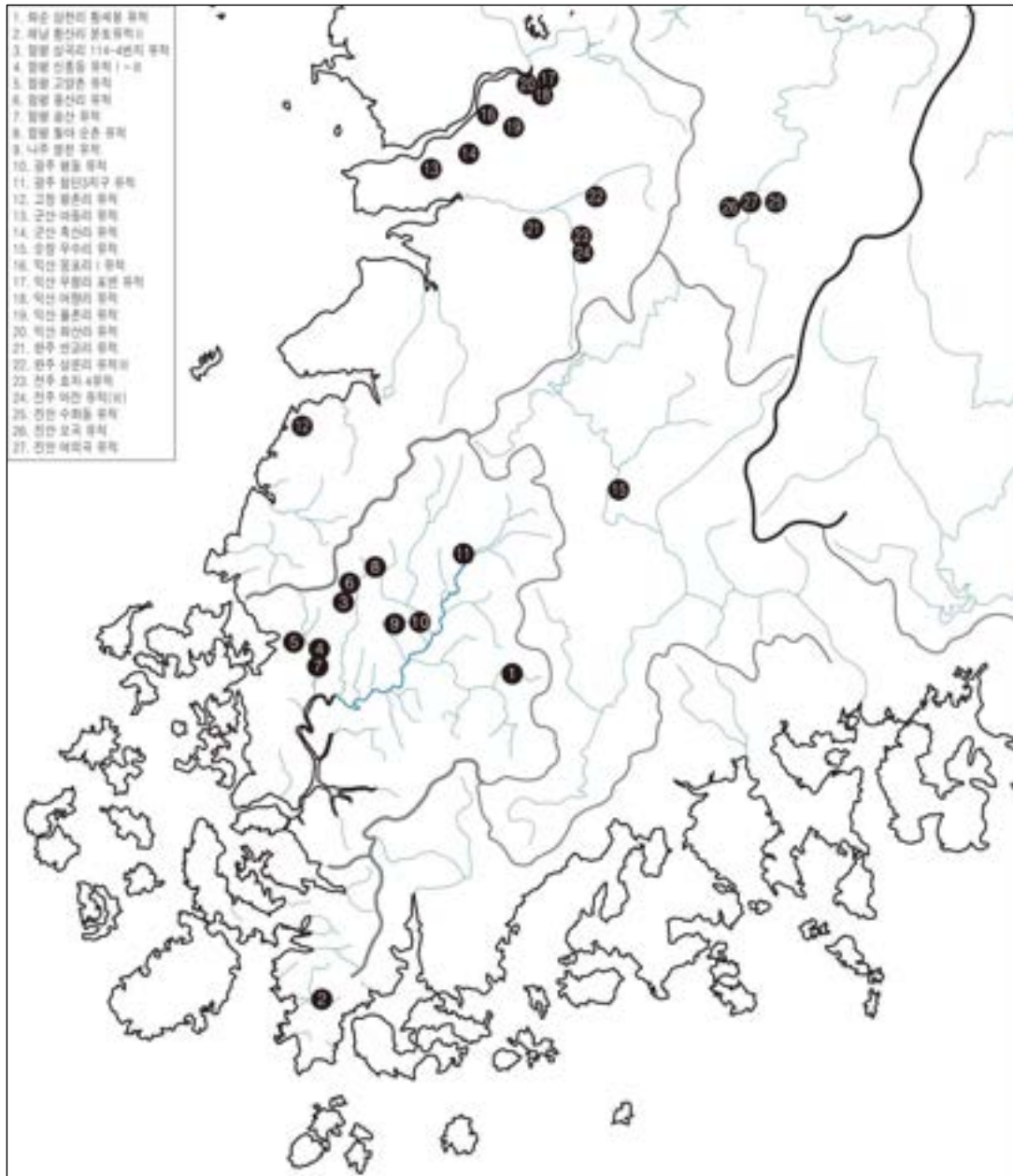


그림 8 호남지역 석관묘 분포도

제주 삼양동 1352-1번지 일원 유적

나정옥(제주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제주 삼양동 1352-1번지 일원 유적은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매장 유산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이 ‘삼양동 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조사(허가 제2024-0938호)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국비지원(진단)으로 시행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사업대상지 전 범위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정밀발굴조사(허가 제 2024-1287호)는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2월 27일까지 실조사일수 38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면적은 사업대상 전체에 해당하는 5,879㎡이다.

정밀발굴조사에서 유구는 주거지 35동, 수혈유구 15기 등 총 50기가 확인되었다. 주로 유적의 서편에 유구가 분포하는데, 동편으로는 스크리아 암반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유구를 조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구가 집중된 서편으로는 암반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스크리아가 생토면을 형성하고 일부 황갈색점토를 이루고 있다. 유적은 주거지의 유형과 출토유물의 조합에 따라 3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II. 유적의 입지

제주 삼양동 1352-1번지 일원 유적은 북서쪽의 해안으로부터 940m 가량 떨어진 해발 31~32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서쪽으로 270m 거리에 음나물내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해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서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는 봉개동 개월오름(해발 743m) 주변에서 발원한 삼수천(동냉이천)이 남북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삼양동 일대의 지질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파호이호이용암류에서부터 아아용암류의 암반조간대와 해안단애 및 검은모래 해수욕장 등 다양한 해안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섬과 신촌리 일대에는 파호이호이용암류의 빌레해안이 펼쳐져 있으며 삼양 일대에는 아아용암류가 분포한다. 이 용암류의 상부를 원당봉 용암이 덮고 있는 양상이다. 원당봉 용암은 해안선에서 해안단애를 형성하고 있다. 삼양동의 해안을 따라서는 검은모래의 해변과 사구가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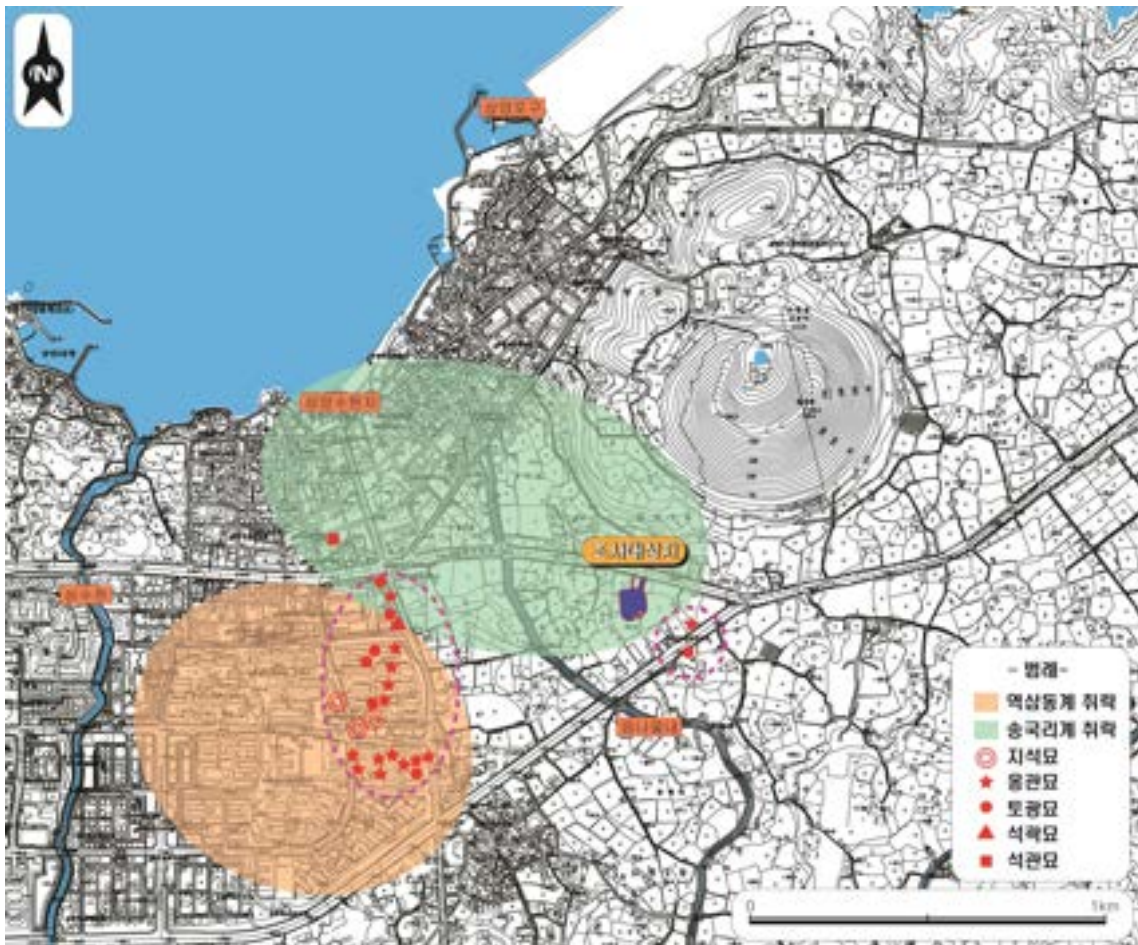


<도면1> 삼양동 일대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S=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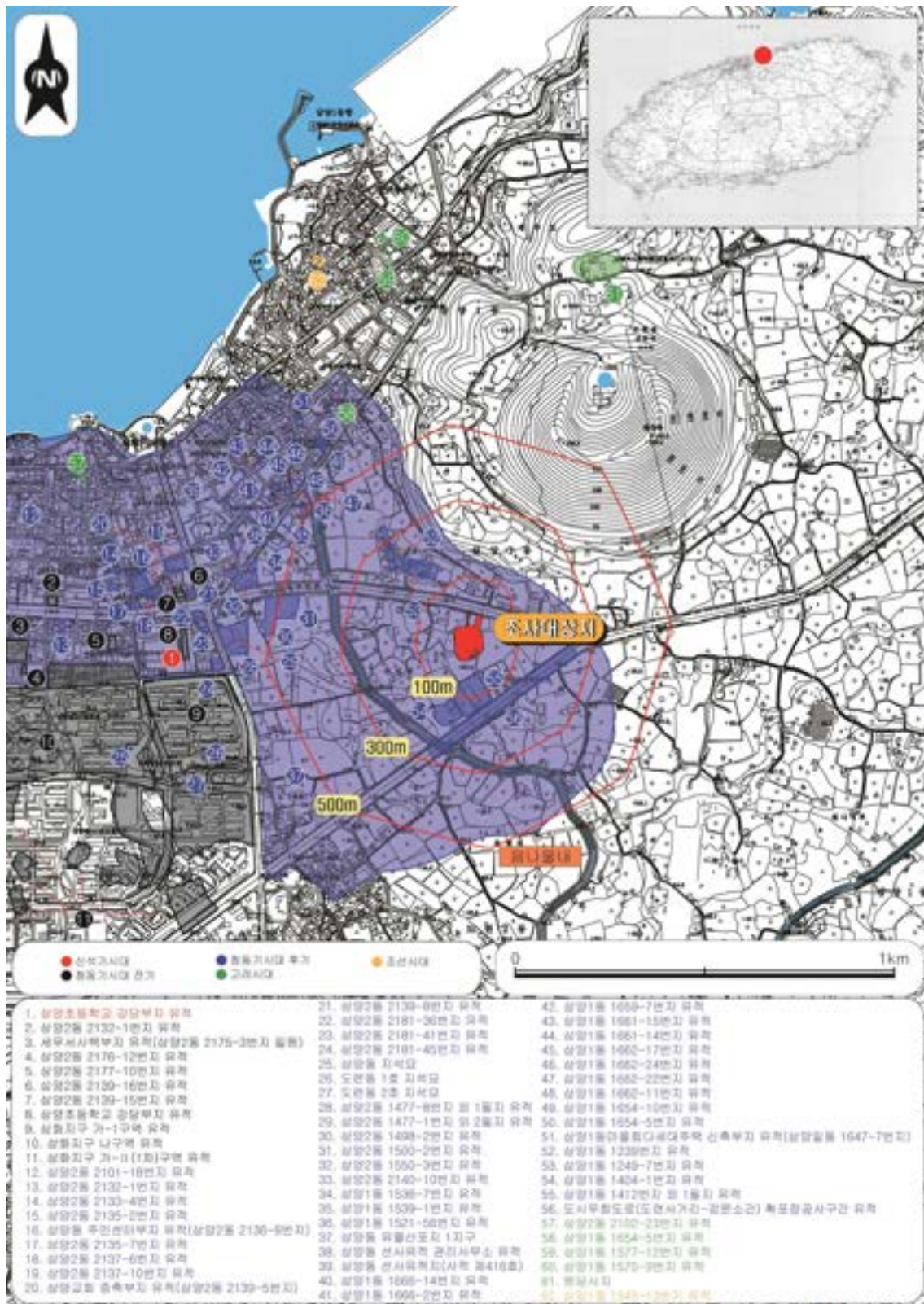
되어 있다. 주변에 위치한 원당봉 용암은 닭머루에서 삼양화력발전소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1.5km에 걸쳐 해안단애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은 분석구로서 북쪽의 바다를 향하여 분화구가 터진 말굽형 기생화산에 해당한다. 원당봉 북쪽의 화구 앞에는 앞오름 등 3개의 작

은 화산체가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 주변의 경작지는 붉은색의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탄들이 쉽게 관찰된다. 삼양동의 해안선에는 붉은색의 클링커층과 수직으로 서 있는 암맥들이 노출된 아아용암류의 암반 조건대가 관찰된다(강순석 2004).

취락의 입지 조건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음용수)과 식량자원이다. 물과 식량자원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얼마나 원활하고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김경주는 물과 식량 이외에도 거점(중심)취락의 중요한 요소로서 토양조건과 대외교류조건을 들었다. 토양조건은 농업생산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대외교류조건으로서의 자연포구의 형성은 취락 내의 부족한 물자의 공급을 위한 교역통로로 볼 수 있다(김경주 2010: 54~58). 삼양동에는 해안선을 따라 16개소의 용천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음나물내와 삼수천이 동쪽과 서쪽 양단에 자리하고 있고 양질의 미사질양토가 퇴적되어 있어 취락의 형성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안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도면2> 삼양동 유적 송곡리~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및 분묘 분포도(김경주 2018a: 129 인용 편집)



<도면3>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S=1:5,000)

Ⅲ. 조사내용

1. I 기

전체 35기의 주거지 중 10기가 I기에 해당된다. 유적 내 북동편, 북서편, 남서편에 2~4동이 근접 분포한다. 모두 원형계이며 송국리식 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 중앙의 타원형구덩이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A형(내주공식)이다. 다만, 제주도의 지질 특성 상 암반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 이를 피하여 주혈을 굴착하였기 때문에 일부 전형적인 A형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내에서 확인된 송국리식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A형 주거지이면서 규모가 크고 주혈의 깊이가 깊은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¹¹⁾. 이러한 양상은 본 유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주거지의 규모에 있어서 시기를 막론하고 도내 어느 유적과 비교해도 큰 규모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해풍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송국리형 주거지의 입지는 대부분 해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삼양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본 유적은 해안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해안과의 사이에 '원당봉'이 자리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해풍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형에 비해 바람에 취약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방형 주거지가 송국리식 주거지에 비해 보다 더 내륙 쪽에 위치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된다.

제주도 내의 송국리식 주거지는 직경이 4m가 넘으면 대형으로 분류되는데, 본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균 직경은 4.6m이다. 더불어 면적은 16.7㎡이고, 주혈 깊이는 19.3cm이다¹²⁾.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역시 동시기 다른 지역보다 큰 규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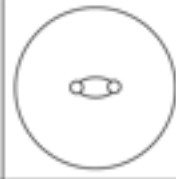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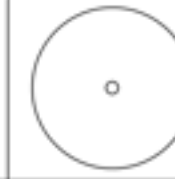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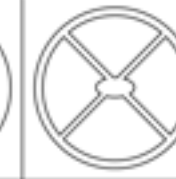
유구 번호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타원형구덩이(cm)				동편 주혈 徑×深(cm)	서편 주혈 徑×深(cm)	면적 (㎡)
			장축	단축	깊이	유형	장축	단축	깊이			
2	원형	N79°E	429	396	45	·	99	80	12	중앙 40×16(암반)		13.3
3	타원형	N76°E	[414]	(346)	7	A	124	68	11	27×24	30×12	13.5
9	원형	N83°E	512	491	57	A	123	59	11	29×20	33×32	19.7
10	원형계	N79°E	(284)	489	9	[A]	(101)	68	13	27×17	미확인(경계)	18.8
11	원형	N85°W	403	415	23	A	86	65	8	21×23	20×29	13.1
24	원형	N84°E	457	429	5	A	124	67	12	20×15	16×20	15.4
27	원형	N73°E	406	411	24	·	97	61	12	중앙 28×5(암반)		13.1
28	원형	N66°E	465	432	55	A	127	79	17	34×20	38×21	15.8
29	원형계	E-W	501	(197)	26	·	·	·	·	·	·	19.7
30	원형계	N84°E	555	(508)	19	A	107	79	16	22×14	21×21	24.2

<표1> I 기 주거지 현황

11) 이종철(2017)은 주거지의 소형화 현상을 취락 내 가족구성원의 분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적응방식으로 보았다.

12) 장축과 단축 중 하나가 불명일 경우에는 확실한 축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직경은 장축과 단축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김범철(2012: 36)에 의하면 중서부지역 송국리형 주거지의 평균 면적은 18㎡이다. 본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이에 거의 근접하지만 대부분의 제주도 내 주거지는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송국리식	예래동식	예래동→외도동 과도기	예래동→외도동 과도기	예래동→외도동 과도기	외도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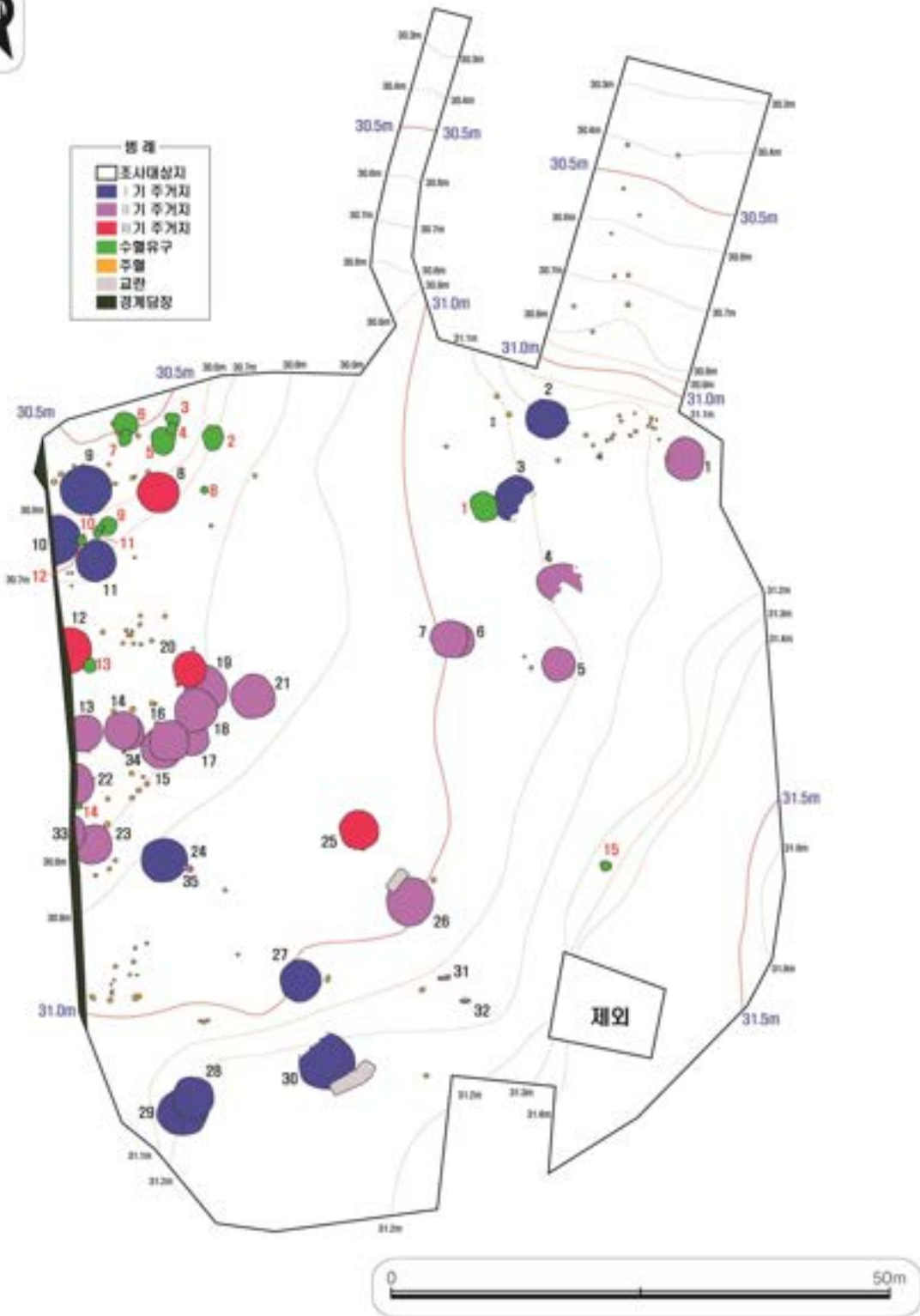
<도면4> 주거지 모식도

I기의 수혈유구는 전체 15기 중 11에 해당한다. 대부분 유적의 북서편에 밀집되어 있다. 주변에는 동시기의 주거지 3동이 자리한다. 규모는 1m 이하에서 2.5m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깊이는 20cm 이하로 매우 얇은 편이다¹³⁾. 대부분 중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구가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토기류, 석기류, 옥류, 토제품으로 구분된다. 토기류로는 무문 토기인 직립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고 유구에 따라 직립구연토기 단독, 직립구연토기+외반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외반구연토기로 분류된다. 직립구연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주거지는 11호, 24호, 28호, 29호, 30호 등 5동이다. 직립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가 공반하는 주거지는 2호와 3호로 2동이다. 외반구연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의 공반은 9호, 10호 주거지에서 볼 수 있다. 외반구연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주거지는 1호, 23호 27호, 35호 주거지로 4동이다.

본 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는 외반구연토기와 공반하지만 직립구연토기와는 같이 출토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라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용담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2018a), 삼양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8b; 제주고고학연구소 2020) 등에서도 보듯이 원형점토대토기는 직립구연토기와 공반하여 출토되기도 하고 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가 같이 출토되기도 한다. 본 유적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외반구연토기와도 공반하여 세 토기의 시기 차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직립구연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주거지가 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 대부분 유구의 어깨선이 경작층 하부에서 곧바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삭평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는 보다 깊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변의 문화층이 잔존한 곳과 비교해 보면 현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5> 유구배치도



<사진1> 1기 주거지

석기류는 석촉, 석착, 고석, 연석, 요석이 출토된다. 석촉은 9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에서 1점씩 출토되었는데, 삼각형석촉¹⁴⁾이다. 석착은 미완성품이 지표에서 수습되었고 옥류는 관옥¹⁵⁾ 1점이 9호 주거지의 바닥면에서 반파된 채 출토되었다. 토제품으로는 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이 출토되었는데, 방추차가 다수의 유구에서 확인된 반면 원판형토제품은 일부 소량이 확인될 뿐이다.

유구번호	형태	장축방향	장축	단축	깊이	출토유물
2	타원형	N19°E	254	203	14	.
3	타원형	N50°W	156	125	9	.
4	타원형	N31°E	119	101	8	무문토기
5	타원형	N7°W	273	239	14	무문토기
6	원형	N37°W	245	238	8	.
7	타원형	N11°E	159	118	9	.
9	타원형	N76°E	(123)	176	4	.
10	타원형	N78°E	81	74	5	.
11	타원형	N23°E	(71)	84	3	.
12	원형	N65°W	95	86	20	.
14	타원형	N88°W	(69)	45	19	무문토기, 고석

<표2> I기 수혈유구 현황

삼양동 유적에서 송국리문화단계의 상한은 B.C. 5세기로 비정된다¹⁶⁾. 또한 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 시기는 B.C. 4세기 후반~3세기 전반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을 B.C. 4세기 전반이나 중반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다(김경주 2018a: 124~127). 호남지역에서는 B.C. 3세기 전반~B.C. 2세기 중반에 원형점토대토기가 무주혈식의 말각방형 주거지와 공반된다(장지현 2015: 49, 김경주 2018: 127~132 재인용)¹⁷⁾. 오라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에서도 말각방형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한편, 호남지역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소멸하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시기에 대해서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¹⁸⁾.

따라서 본 유적의 I기 연대는 B.C. 5세기~B.C. 2세기 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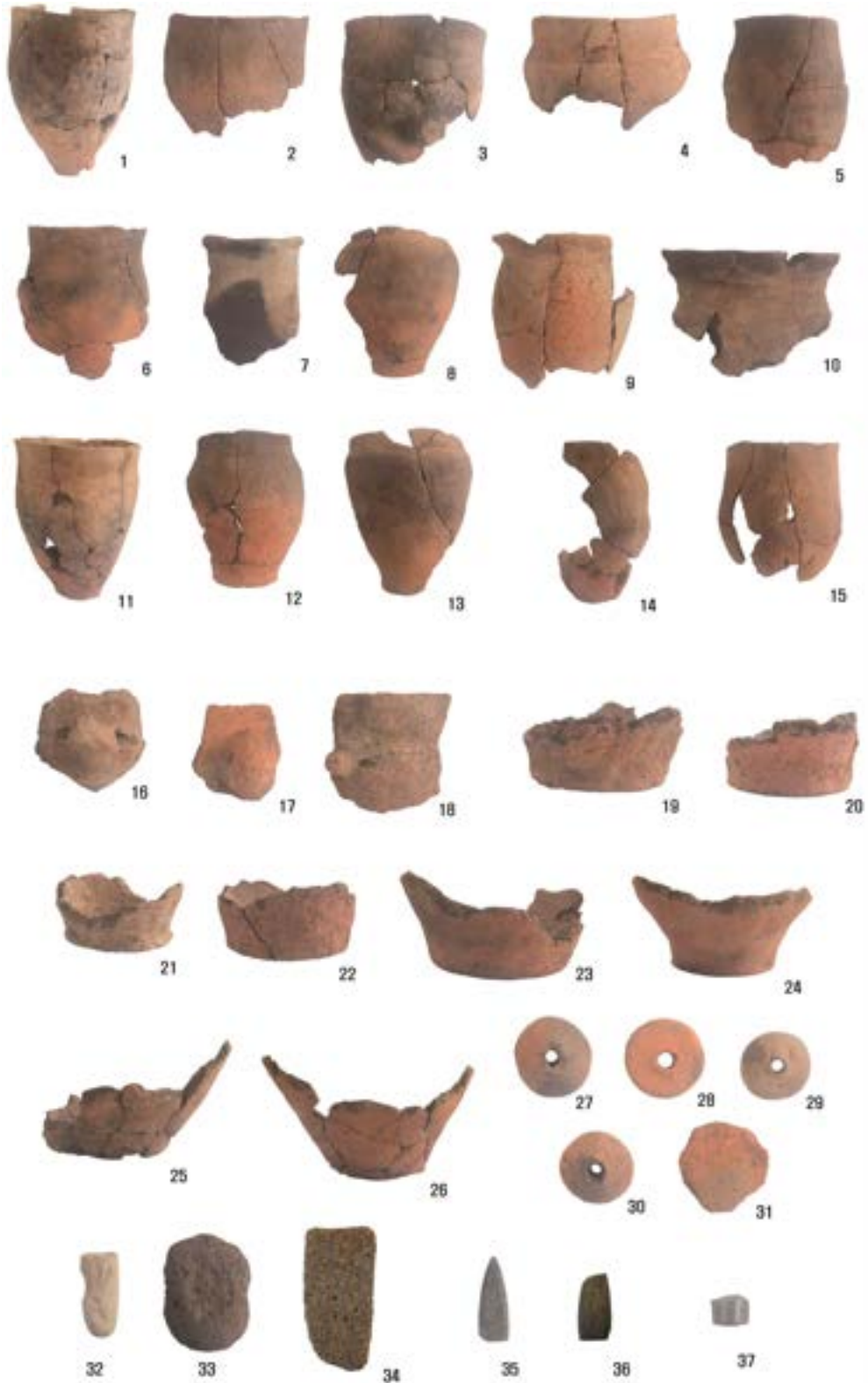
14) 호서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 출토 석촉은 대부분 삼각형석촉이다.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동으로 이전까지와는 달리 석촉이 감소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송효진 2018: 89~90). 또한 삼각형석촉은 송국리문화에서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점토대토기문화요소와 공반한다. 삼각형석촉의 제작주체는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이다(윤재빈 2024: 38, 40). 호남지역에서도 B.C. 3세기 전반~B.C. 2세기 중반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삼각형석촉과 공반된다(장지현 2015: 47~49).

15) 삼양동 유적에서는 4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다량의 관옥이 관내부장되어 있었다. 한반도 중서남부지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분묘 부장양상을 보면 유리구슬은 전국계 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매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崔雨林 2014: 51~52, 김경주 2018: 130 재인용).

16)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말기와 송국리계 초기의 AMS 분석자료를 참고하면 대체로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주 2018: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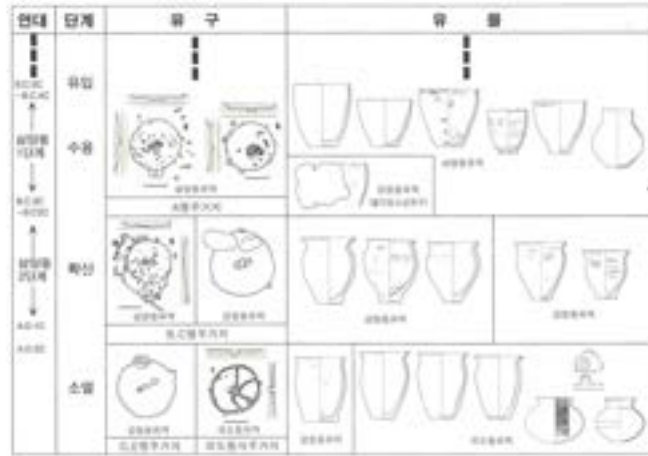
17) 일부 유적에서는 원형에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점토대토기와 이른 시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소량 확인되나 대부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장지현 2015: 49).

18) B.C. 2세기 후반~A.D. 2세기 전반(장지현 2015: 49), B.C. 1세기~A.D. 1세기(김훈희 2015: 106), B.C. 2세기 전반~A.D. 1세기(한수영 2021: 176) 등의 견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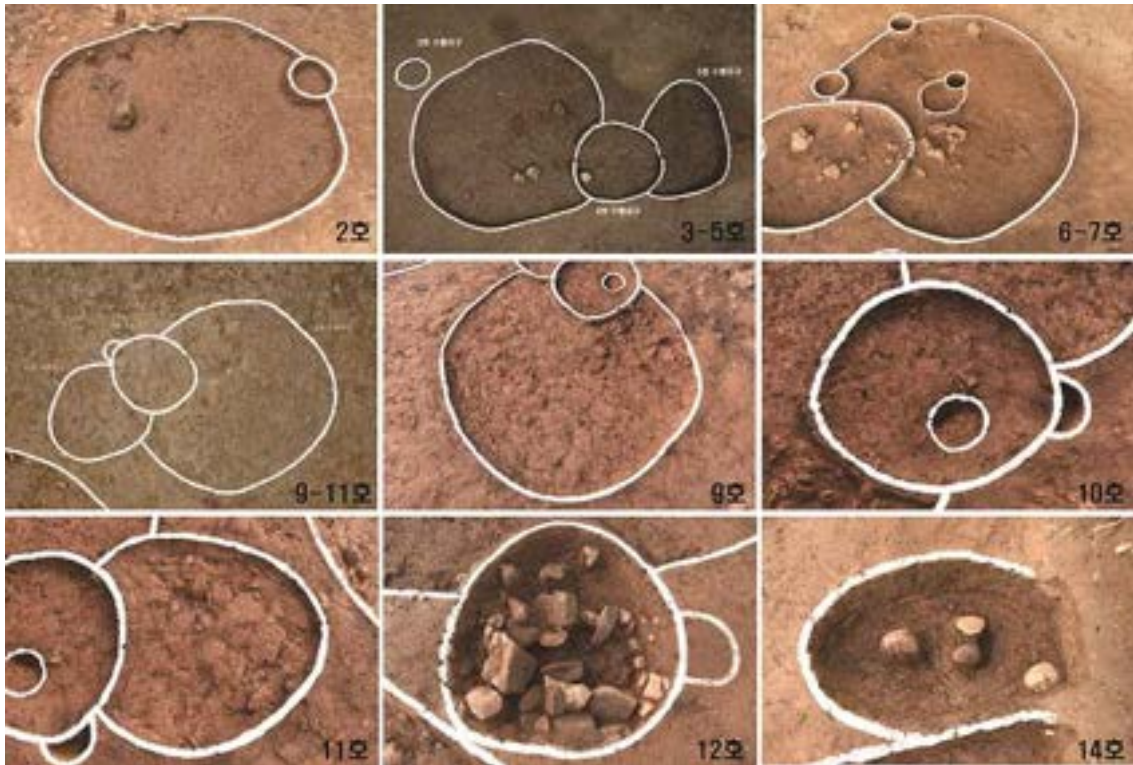
<사진2> I기 주거지 출토 유물[1~3, 16·19·20·27·28(2호), 4·5·21·29(3호), 6·7·32~37(9호), 8·17(10호), 9·22(11호), 23(24호), 10·31(27호), 11~13·18·24·30(28호), 25(29호), 14·15·26(30호)] (크기 무관)

유구 번호	출토유물
2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파수부토기, 유구석부, 고석, 요석, 토제방추차
3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소형토기, 고석, 토제방추차
9	원형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 무경식석축, 석착, 연석, 관옥, 토제방추차, 원판형토제품
10	원형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 무경식석축, 파수부편, 토제방추차
11	직립구연토기
24	직립구연토기
27	외반구연토기, 원판형토제품
28	직립구연토기, 고석, 토제방추차
29	직립구연토기, 토제방추차
30	직립구연토기, 고석, 요석, 지석



<표4>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에 따른 토기 변화(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표3> I기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3> I기 수혈유구

2. II기

II기의 주거지는 21동이 확인된다. A형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새롭게 B형(걸친주공식)이 나타난다. B형은 주로 제주 남부(서남부) 지역에서 많은 점유율을 보인다. 김경주는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를 송국리형 주거지와 구별하여 예래동식 주거지로 분류하였으며¹⁹⁾, 송국리식 주

거지(내주공식, A형)→예래동식 주거지(걸친주공식, B형)→외도동식 주거지(다양한 변이)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김경주 2024: 9).

유구 번호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타원형구덩이(cm)				동편 주혈 徑×深(cm)	서편 주혈 徑×深(cm)	면적 (㎡)
			장축	단축	깊이	유형	장축	단축	깊이			
1	원형	N84°W	382	419	22	B	(74)	67	12	32×21	34×23	12.6
4	[타원형]	N77°E	(281)	(229)	3	B	61	42	15	24×10	22×14	·
5	원형	N82°E	326	330	7	A	87	46	10	21×23	19×20	8.4
6	원형계	·	(293)	(75)	13	·	·	·	·	·	·	·
7	원형	N88°E	356	359	14	B	[61]	31	9	30×5	27×16	10.0
13	원형계	N77°E	(275)	355	13	B	106	39	11	35×3	35×7	9.9
14	원형	N77°E	369	360	16	B	111	33	6	32×12	26×14	10.4
15	원형계	N34°W	[408]	(96)	9	·	·	·	·	24×10	18×4	13.1
16	타원형	N80°E	435	389	16	A	125	85	17	20×5	26×5	13.3
17	원형계	N37°E	321	(211)	14	·	·	·	·	19×2	·	8.1
18	원형	N70°E	439	410	21	A	121	46	12	18×7	20×3	14.1
19	원형계	N85°E	428	(245)	19	A	113	42	7	18×12	24×16	14.4
21	원형	N87°E	443	425	12	A	137	79	9	27×7	29×5	14.8
22	원형계	N4°E	409	(175)	29	·	·	·	·	·	·	13.1
23	원형계	N86°E	(299)	381	12	A	109	51	9	23×9	22×9	11.4
26	원형	N79°W	463	493	15	A	119	48	13	35×11	30×9	17.9
31	·	N82°E	·	·	·	B	129	37	6	29×13	40×11	·
32	·	N88°E	·	·	·	B	106	27	6	23×6	21×4	·
33	원형계	·	(351)	(94)	8	·	·	·	·	·	·	·
34	원형계	·	(296)	(36)	11	·	·	·	·	·	·	·
35	·	·	·	·	·	A	114	53	8	24×14	24×17	·

<표5> II기 주거지 현황

이 시기의 주거지는 I기의 주거지와 중복 없이 유적의 중앙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 특히 중앙 서편의 동일 지점에서 여러 차례 중복 양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에 비해 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평균 직경은 4.0m이고, 면적은 12.3㎡, 주혈의 깊이는 10.5cm이다²⁰⁾. 여전히 제주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큰 편이지만 전대에 비해 1/4 정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주거지 간의 중복 양상을 보면 대부분 선축된 주거지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후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15호(선축)>16호(후축), 19호>18호는 중복된 벽체에 석벽을 둘러서 벽체를 보강하였다. 전대의 주거지가 매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벽체를 만든 후 전대의 주거지를 매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호>6호, 14호>34호의 경우에는 중심이 약간 이동되었을 뿐 거의 같은 자리에서 축조되었는데 보강 석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개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II기의 토기는 무문토기가 일부 남아 있지만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²¹⁾로 전환된다. 태토보강제로 현무암 석립이 많이 포함되고 기벽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청동기시대 외반구연토기와 유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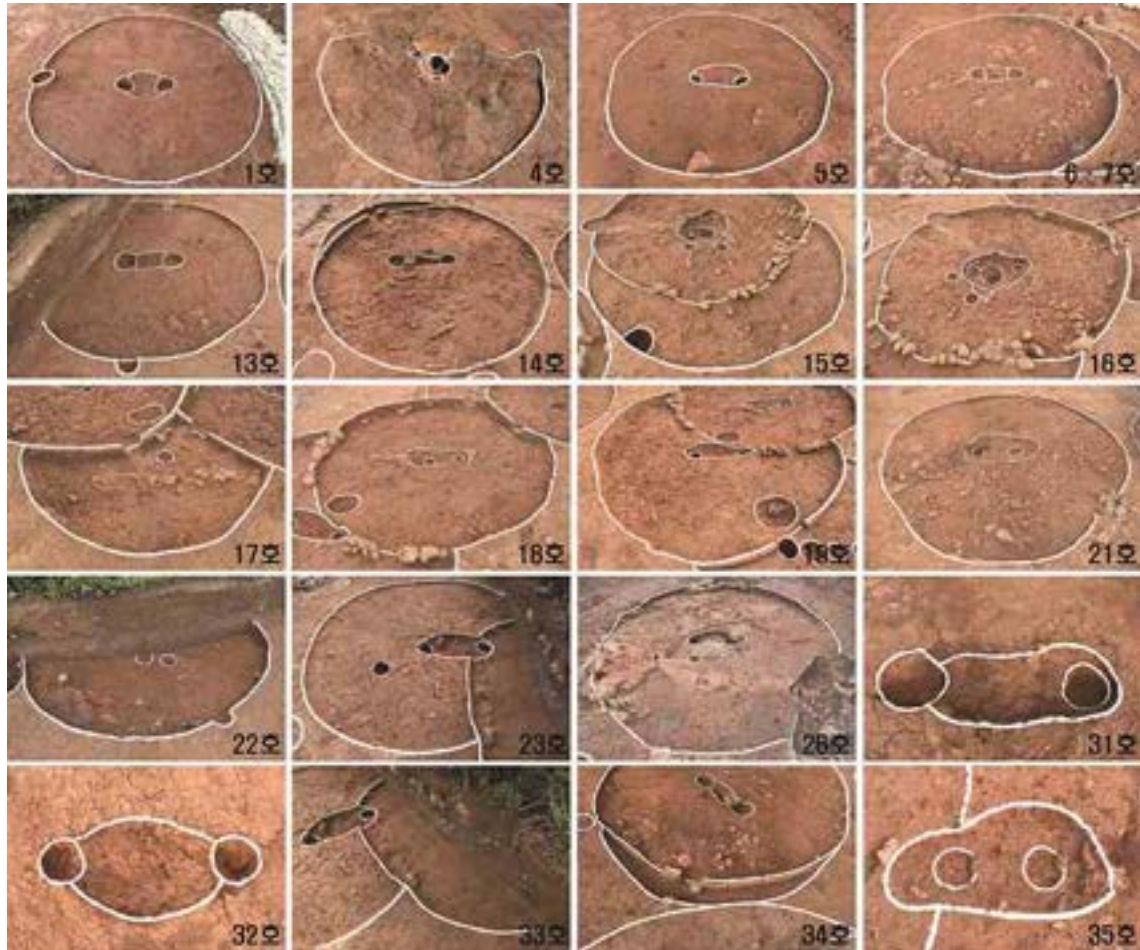
19) 이러한 형태를 하나의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고고학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처음 등장하거나 제주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종철 2017: 15).

20) A형 주거지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평균 직경 3.9m, 면적 13.5㎡, 주혈 깊이 10.1cm로 B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1) 적갈색경질토기는 경질무문토기, 중도식토기와 맥락적으로 상통하는 용어이나 삼국시대 이후의 토기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토기에는 탐라시대 전기의 외도동식토기와 광지리식토기와 더불어 탐라시대 후기의 고내리식토기까지 포함한다(김경주 2001).

계 구연부는 외반하나 동최대경이 동체 중앙에서 동체 상단으로 변형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굽저부도 시기가 흐르면서 점차 편평저부로 변화한다.

Ⅱ기의 연대는 B.C. 1세기~A.D. 2세기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4> Ⅱ기 주거지

유구번호	출토유물
1	외반구연토기, 고석
4	.
5	무문토기
6	.
7	요석
13	적갈색경질토기, 요석
14	적갈색경질토기
15	원판형토제품
16	요석, 연석, 토제방추차
17	.
18	적갈색경질토기, 연석, 요석, 토제방추차
19	미완성석기(석착), 토제방추차
21	토제방추차
22	적갈색경질토기, 토제방추차
23	외반구연토기, 원판형토제품

Ⅱ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주거지 외에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된다. 다른 시기의 수혈유구에 비해 큰 규모를 보인다. 내부에서 용도를 특정할만 한 시설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26	토제방추차
31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32	.
33	.
34	.
35	외반구연토기

<표6> II기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5> II기 수혈유구

유구번호	형태	장축방향	장축	단축	깊이	출토유물
1	타원형	N21°W	294	247	8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표7> II기 수혈유구 현황



<사진6> II기 주거지 출토 유물[1·20(1호), 21(3호), 2·3(5호), 22(7호), 4(13호), 8(15호), 9~11(16호), 5·6·12~14(17호), 15·23(19호), 16(21호), 17(22호), 18·19(26호), 7·24(31호)] (크기 무관)

3. III기

III기의 주거지는 외형적으로는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 전대의 주거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 모습에서 차이를 보인다. 타원형구덩이가 그대로 있으면서 주혈 대신에 초석이 배치(a형)되거나 주혈 내에 초석이 있는(b) 경우도 있다. 타원형구덩이가 없이 양단 주혈(c형) 혹은 중앙 주혈(d형)만 있기도 한다. 또한 타원형구덩이만 있거나(e형) 무시설식(f형)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가장 차이를 보이는 벽구와 중앙의 타원형구덩이를 연결하는 방사상의 구가 설치(g형)된 주거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본 유적에서는 c, d, g형이 확인된다. 유물은 외도동식토기가 출토된다. 외도동식토기는 저부 하단에 손누름 대신에 목판을 두르려서 조정하고 외반구연은 전대와 유사하지만 저부 축약이 사라지고 장동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김경주 2018b: 46).

본 유적에서 이 시기 주거지의 평균 직경은 4.2m이고, 면적은 13.6㎡이다. II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큰 수치를 보인다.

탐라시대는 3~9세기 경에 해당하며 전후기의 전환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경으로 보고 있다(김경주 2018b: 39). c·d·e형 주거지는 원삼국시대에서 탐라시대 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의 주거지로 판단되며 g형은 특수목적 주거지로 보고 있다.

III기의 연대는 A.D. 3세기~4세기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7> III기 주거지

유구 번호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타원형구덩이(cm)				동편 주혈 徑×深(cm)	서편 주혈 徑×深(cm)	면적 (㎡)
			장축	단축	깊이	유형	장축	단축	깊이			
8	원형	N84°E	421	402	17	C	40	46	6	26×10	23×5	13.3
12	원형계	N81°E	(247)	448	24	F	(103)	73	18	·	·	15.8
20	원형계	N86°E	(247)	(236)	7	D				24×21	26×19	·
25	원형	N81°E	381	392	24	E	·	·	·	보조28×11	중앙22×25	11.7

<표8> III기 주거지 현황



<사진8> 외도동 특수목적 주거지(Ⅲ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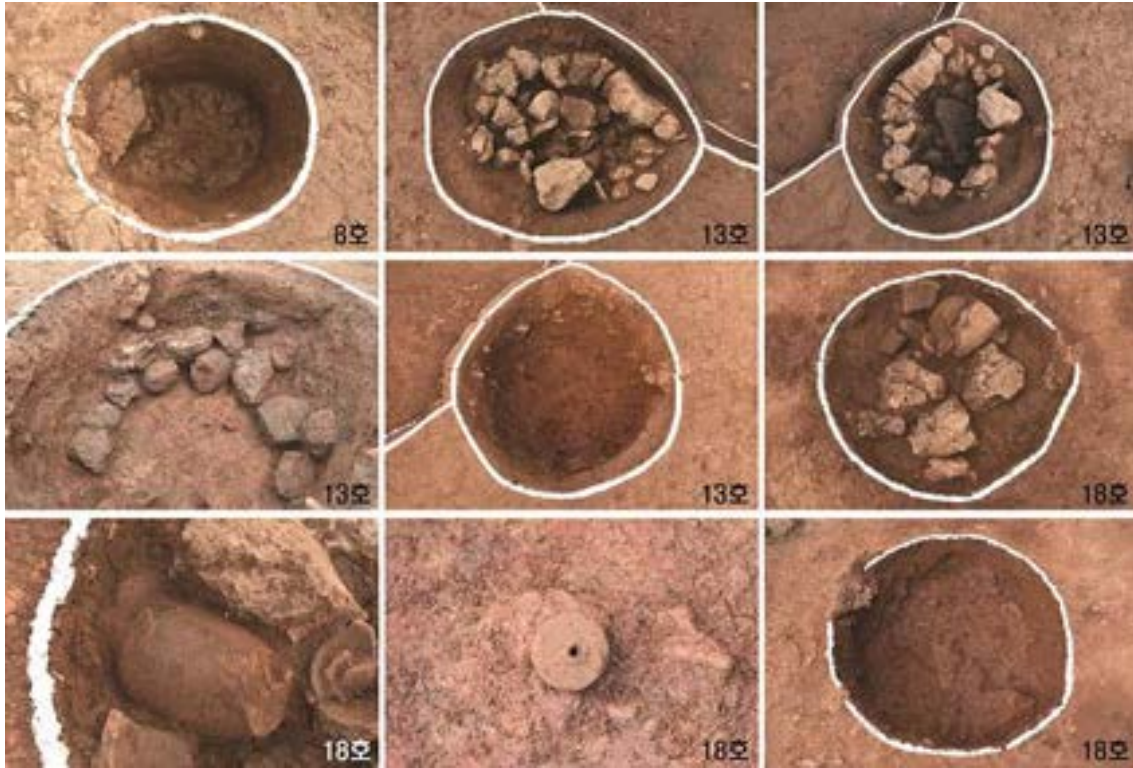
Ⅲ기²²⁾의 수혈유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깊이가 깊은 유구가 많이 조영된다. 전대 수혈유구의 평균 깊이가 10cm 정도인데 반해 Ⅲ기의 수혈유구는 평균 44cm이다. 외도동 유적에서 이 시기의 수혈유구는 전체 169기 중 깊이가 90cm 이상인 것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한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2)²³⁾.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우물(집수정)이 다수 축조된다는 것이다. 축조 방식 또한 토벽조, 석벽조, 목벽조, 혼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유적에서는 13호 수혈유구가 석벽조로 이루어졌다. 벽체는 현무암제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벽을 쌓고(3~4단 정도 잔존) 바닥은 다듬지 않았으나 윗부분이 편평한 대형 자연석으로 깔았다. 벽체와 바닥은 스킨아로 이루어진 지질 특성 상 투수성이 좋아 석재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집수정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집수정 내에서는 물기에 의한 니질토가 검출되는데 반해 13호 수혈유구에서는 니질토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번호	출토유물
8	외도동식토기, 토제방추차
12	외도동식토기
20	적갈색경질토기, 지석
25	연석

<표9> Ⅲ기 주거지 출토유물

22) 삼양동 유적에서 이 시기의 유구는 본 유적을 비롯하여 인근의 삼양2동 1500-2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3)에서 최근에 확인되었다. 송국리 단계의 중심 취락과는 공간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우물(집수정)은 일반 수혈유구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진9> III기 수혈유구

외도동 유적에서 하단에 목조결구부(木槽結構部)를 제작하고 상부에 석조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의 집수정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풍납토성 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우물이 확인되었으며 그 연대를 대략 4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어 참고가 된다(김경주 2018b: 49 재인용).

유구번호	형태	장축방향	장축	단축	깊이	출토유물
8	원형	N27°W	77	75	49	연석
13	타원형	N6°W	144	127	52	외도동식토기
15	원형	N34°E	119	111	32	외도동식토기, 토제방추차

<표10> III기 수혈유구 현황

모식도							
유형	I-1	I-2	II-1	II-2	II-3	III	IV
형태	토벽조	토벽조	석벽조	석벽+목각조	석벽조	석벽+토벽조	목벽조
수량	8	4	16	2	10	11	1
비율(%)	15.3	7.7	30.8	3.8	19.2	21.2	1.9

<도면6> 외도동 유적 우물(집수정) 모식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사진10> III기 유구 출토 유물[8호 주거지(1), 12호 주거지(3), 15호 주거지(4·5)] (크기 무관)

IV. 조사성과

금번 정밀발굴조사에서 유구는 주거지 35동, 수혈유구 15기 등 총 50기가 확인되었다. 주로 유적의 서편에 유구가 분포하는데, 동편으로는 스코리아 암반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유구를 조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토기류, 석기류, 옥류, 토제품으로 구분된다. 토기류로는 무문토기인 직립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고 이외에 적갈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유구석부, 삼각석촉, 석착, 고석, 연석, 요석이 출토된다. 옥류는 관옥 1점이 반파된 채 출토되었다. 토제품으로는 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유구와 유물의 조합에 따라 유적은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I기는 B.C. 5~2(송국리식 주거단계), II기는 B.C. 1~A.D. 2(예래동식 주거단계), III기는 A.D. 3~7세기 대(외도동식 주거단계)로 편년된다.

조사대상지 내에서는 35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얼핏 다수의 주거지가 취락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유적의 시기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세대의 주거지는 매우 소수로 볼 수 있다. 유구의 종류가 주거지와 수혈유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삼양동 일대 유물산포범위를 통한 취락을 생각해 보면 외곽지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금번 유적에서는 기존의 삼양동은 물론 도내에서 확인된 송국리식 주거지 중에서는 대형에 속하는 유구가 많이 확인되었다. 본 유적의 입지가 해안으로부터 다소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해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유적은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와 유물의 조합을 통하여 삼양동은 물론 제주도내 청동기시대 후기~탐라시대 전기의 연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참고문헌

-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김경주, 2001,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5.
- 金慶柱,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 6號.
- 김경주, 2018a, 『제주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과 변천과정』, 韓國青銅器學報 第22號.
- 김경주, 2018b,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耽羅文化 57호.
- 김경주·안재호, 2024, 『제주 예래동취락의 변천-철기시대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第76輯.
- 김범철, 2012, 『青銅器時代 家口變化의 社會經濟的 意味-中西部地域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76호.
- 김훈희,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시기 분묘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진, 2018,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석촉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빈, 2024, 『호서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석기상과 그 의미』, 한국청동기학보 제34호.
- 이종철, 2017, 『제주도 송국리형취락의 특징과 시기 구분』, 한국청동기학보 제21호.
- 장지현,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 양상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1.
- 崔雨林, 2014, 『墳墓를 통해 본 中西南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 忠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한수영, 2021,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과제』, 한국청동기학보 제29호.
- 제주고고학연구소, 2020, 『제주 삼양동 1498-7번지 유적』 제주시 삼양이동 1498-2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신축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 오라동유적(2401-5번지)』 제주시 오라3동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시 용담2동 2718-1번지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8a,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시 용담2동 2631-1번지 건물신축부지내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8b,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시 삼양1동 1239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제주 외도동 유적』 제주시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 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3, 『제주 삼양이동(1500-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울산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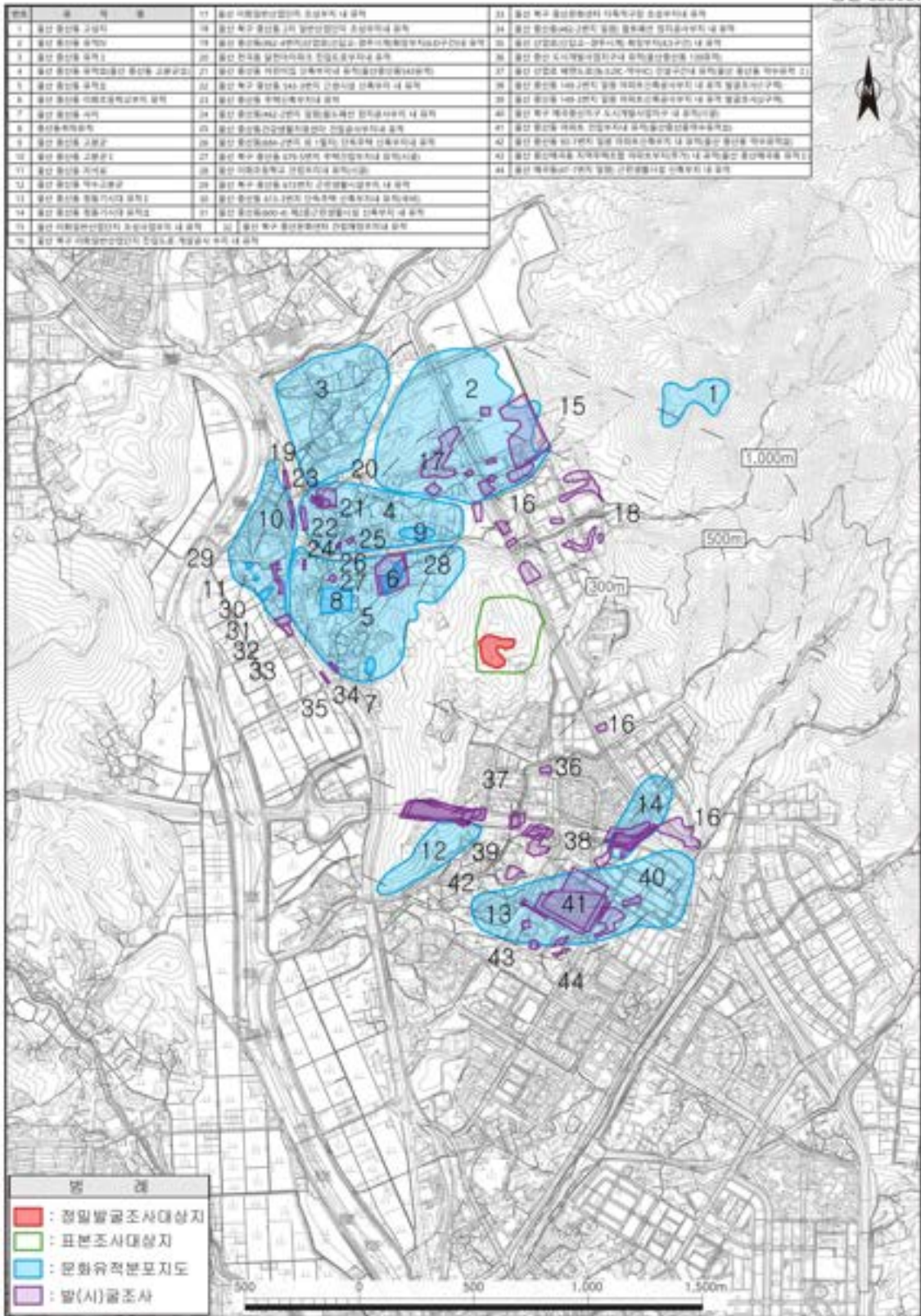
윤재빈
울산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조 사 명	울산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조 사 지 역	울산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조 사 기 간	2024년 10월 23일~2025년 2월 28일(실 조사일수 80일)
조 사 면 적	13,175㎡
조 사 경 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매장유산 조사 의뢰
조 사 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면 적 : 84,169㎡ 조사기간 : 2024년 3월 8일 ~ 2025년 1월 15일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55기의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34,246㎡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필요 ■ 정밀발굴조사 면 적 : 13,175㎡(녹지보존구간 제외 지역) 조사기간 : 2024년 10월 23일~2025년 2월 28일 조사결과 : 초기철기시대 환구 4기, 주거지 5동, 수혈 31기, 구 5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2기, 매납유구 2기 등 총 49기의 유구 조사.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유적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경위도는 북위 35°35'11", 동경 129°06'05"이다.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외동읍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은 울주군 범서읍과 남쪽은 중구, 동쪽은 동구가 있다. 중산동은 북구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의 지형은 포항 영일만에 걸쳐 형성된 형산강 구조곡의 남반부에 해당된다. 즉 영일만에서 시작하여 방어진에



도면 1. 조사대상지와 주변유적분포도(S:1/25,000)

서 끝나는 동대산맥이 남북으로 뻗은 신흥령(526m)에서 동대산(444.8m), 무룡산(450.7m), 동구의 감포산(173m)을 연결하는 산계이다. 이 산계의 서쪽에는 동천강이 태화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연결된다.

유적이 위치한 중산동 일대는 신흥령(526m)과 삼태봉(650m)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구릉들과 동천주변의 충적대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동고서저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유적은 삼태봉에서 서쪽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내린 구릉 중 남쪽에 해당되며, 여기서 서남쪽으로 뻗은 해발 80~170m 내외의 구릉이다. 구릉의 능선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해있으며, 남동쪽과 북서쪽으로 작은 계곡이 발달해 있다. 현재 북동쪽 구릉은 대부분 임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남쪽 능선과 사면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서쪽 사면은 계단식으로 밭이 경작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중산동 일대의 동천강변과 야트막한 구릉에는 청동기시대 취락과 삼국시대 고분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한다. 대표적으로 울산 중산동유적²⁴⁾은 조사대상지에서 북쪽 300m 떨어져 있다. 삼국시대 주거지 51기, 수혈 40기, 주혈 73기,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광묘 9기가 확인되었다.

중산 2차 일반산업단지 유적²⁵⁾은 조사대상지에서 북동쪽 200m 떨어져 있다. 크게 5개 지구로 구분된다. I 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46기·수혈 5기·석실묘 1기, 조선시대 탄요 6기·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II 지구에서는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64동·건물지 3동·수혈 45기·석실묘 1기·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묘 4기·탄요 1기가 확인되었다. III 지구에서는 삼국시대의 석실묘 8기·소형석곽 3기·주거지 2동·석축 1기·적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V 지구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12동·수혈 20기·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울산 중산동 139유적²⁶⁾은 조사대상지에서 동쪽 300m 떨어져 있다. 신석기시대 수혈 9기, 야외노지 2기, 유물포함층 2개소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즐문토기편 80점, 석부 1점 등 총 81점이 출토되었다.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I²⁷⁾은 조사대상지의 동쪽에 인접한다. 가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9동, 구상유구, 근세묘 7기, 수혈유구 31기, 세장방형탄요 1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나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측구부탄요 2기, 구 2기, 근세묘 4기가 조사되었다.

24) (재)동양문화연구원, 2013, 『울산 중산동유적 : 울산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25)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2015, 『울산 중산동 산96유적』.

26)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2009, 『울산중산동139유적』.

27)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2005,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I』.



사진 1. 유적 원경(남→북)



사진 2. 유적 전경

Ⅲ. 조사내용

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시대 환구 4기, 주거지 5동, 수혈 31기, 구 5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2기, 매납유구 2기 등 총 4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초기철기시대 유구에서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석부, 지석,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인화문 개, 완, 단경호 등 231여점(± θ)이 출토되었다. 본 고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유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도면 2. 유구배치도(S:1/2,000)

1. 유구

1) 환구

환구는 해발 145~155m 사이에 위치한다. 모두 4조의 환구가 확인되었는데 1·3호는 약 600cm 정도의 등 간격으로 구름의 정상부를 일주하는 형태이고, 2호는 그 사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4호는 남동쪽 구름에 치우쳐 단독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구의 평면형태는 구름 정상부를 감싸고 도는 테뫼식 형태이다. 단면형태는 'v'자 형태이다. 환구 내·외부에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모두 내부 퇴적토에서 확인되는데 대부분 무문토기 계열의 저부 및 동체부,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 두형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환구 범위 내의 구름 정상부에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 및, 수혈, 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구름 정상부에는 대형의 자연 암석이 균락을 이루고 있다.

<표 1> 환구 제원표

() : 잔존치(형태)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	폭	심		
1호	C	(16,155)	153~234	300~700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 등	
2호	—	(3,177)	87~153	300~700	점토대토기 구연부 등	
3호	C	(14,940)	117~216	150~400	무문토기 저부, 합인석부 등	
4호	—	(3,681)	90~108	200~400	.	



사진 3. 환구(남→북)



사진 4. 환구(북→남, 자연 암석 군락)



사진 5. 1호 환구 토층



사진 6. 3호 환구 토층

2) 주거지

모두 5동이 확인되었다. 모두 기반토를 굴착하고 조성한 수혈식 주거지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호·3호·5호는 말각방형, 2호 주거지와 4호 주거지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노지, 부뚜막, 주혈 등이 확인된다. 노지는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중앙 축 상에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수혈식으로 바닥에 피열흔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부토에는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었다. 부뚜막 시설은 4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북벽에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역제형에 가깝다. 부뚜막을 중심으로 양 쪽에 할석을 세워 지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무문토기 저부,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주혈은 1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지만 배치의 정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표 2> 주거지 제원표

() : 잔존치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장	폭	심		
1호	말각방형	290	(240)	39	노지	.
2호	원형	544	510	45	주혈	무문토기 저부, 지석 등
3호	말각방형	406	283	42	주혈	무문토기 저부 등
4호	원형	338	312	49	주혈, 부뚜막	무문토기 저부 등
5호	말각방형	268	207	20	주혈	점토대토기 구연부, 지석 등



사진 7. 초기철기시대 1호 주거지



사진 8. 1호 주거지 무시설식 수혈 노



사진 9. 초기철기시대 4호 주거지



그림 10. 4호 주거지 부뚜막식 노

3) 수혈

모두 33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기반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부정형이며, 장방형(12호)과 말각방형(9·13호), 원형(2·35호)에 가까운 것도 있다.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대체로 내부퇴적토에서 확인되는데 무문토기 계열의 동체편과 파수,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표 3>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수혈 제원표

() : 잔존치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	폭	심		
1호	부정형	142	107	40	·	·
2호	원형	175	149	33	·	·
3호	부정형	256	172	22	·	·
4호	부정형	261	112	18	·	·
5호	부정형	193	185	47	·	·
6호	부정형	100	72	25	·	·
7호	부정형	149	92	31	·	·
8호	부정형	146	118	13	·	·
9호	말각방형	135	123	20	·	·
10호	원형	196	134	26	두형토기편	·
11호	부정형	119	92	33	·	·
12호	장방형	557	158	28	·	·
13호	말각방형	147	121	25	·	·
14호	부정형	352	224	30	석기 등	·
15호	방형	190	184	17	·	·
16호	타원형	394	206	28	파수부편	·
17호	부정형	246	142	22	무문토기 저부, 국자	·
18호	장방형	374	148	20	무문토기, 두형토기편	주혈
19호	타원형	295	132	15	·	·
20호	타원형	319	178	34	두형토기편 등	·
21호	원형	86	760	29	·	·
22호	부정형	205	152	34	무문토기 저부 등	·
23호	부정형	190	159	26	·	주혈
24호	부정형	175	149	24	·	·
25호	타원형	115	80	26	·	·
26호	부정형	211	104	23	·	·
27호	부정형	228	209	34	파수편 등	·
28호	부정형	270	217	7	무문토기 저부편 등	·
29호	원형	136	132	21	·	·
30호	부정형	367	189	22	무문토기 저부편	·
31호	원형	(220)	205	33	·	·



사진 11. 초기철기시대 2호 수혈(원형)

사진 12. 초기철기시대 6호 수혈(타원형)

4) 구

구는 모두 9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자상 또는 ‘∩’자 형태이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U’형이다.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3호 구와 7~9호 구의 경우 환호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표 4>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구 제원표

() : 잔존치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	폭	심		
1호	∩	644	119	35	.	
2호	—	1,231	126	47	.	
3호	∩	(799)	119	60	.	
4호	∩	3,485	204	25~35	무문토기 저부 등	
5호	—	584	82	40	.	



사진 13. 초기철기시대 1호 구

사진 14. 초기철기시대 5호 구

2. 출토유물

초기철기시대 유물은 지표수습품을 포함하여 토기 194점, 토제품 2점, 석기 10점 등 총 206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옹, 호, 두 등의 기종이 확인되며, 점토대토기는 대부분 구연부편으로 출토되었다. 옹은 홑구연과 점토대구연으로 구분된다. 홑구연 옹으로 보고된 유물은 홑구연화된 주머니호의 가능성이 있다.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은 기종상 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면형태는 모두 삼각형이다. 호는 (파수부)장경호, 단경호 등으로 분류된다. (파수부)장경호는 회색조를 띠지만 소성상태는 무문토기에 가깝다. 단경호는 비교적 소형이다. 두형토기는 대부분 대각만 출토되었는데 장각과 단각이 모두 확인되며, 장각은 공심과 실심으로 구분된다. 대각의 형태는 팔자형과 플라스크형이 대부분이며, 지표수습품 가운데 단각의 내각형이 확인된다. 파수는 우각형 파수와 봉상파수가 확인된다. 우각형파수는 전형적인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토제품은 국자와 토제방추차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함인석부편과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표 5> 초기철기시대 유물 일람표(정리·복원 후 수량 변동 가능성 有)

유구 번호	토기						토제품	석기				합계
	옹	호	점토대	두	저부	파수		석부	지석	미완성	기타	
環1호		1	2	5	10	1						19
環2호						2						2
環3호	1	1	2	1	5	1	1(방추차)	1				13
住2호	1		2	1	1				1			6
住3호		1	4	1	13	4				3		26
住4호			2	1	3							6
住5호			1						1			2
豎10호				1	1							2
豎14호				1	9	8					1	19
豎16호						1						1
豎17호					1		1(국자)					2
豎18호				1	1							2
豎20호						2						2
豎22호	1				1							2
豎27호					1	1						2
豎28호					4	1						5
豎30호					2							2
溝4호					2							2
지표	1	2	2	15	53	15					3	91
합계	4	5	15	27	109	34	2	1	2	3	4	206



사진 15. 출토유물(축척부동)



사진 16. 출토유물(축척부동)



사진 17. 출토유물(축척부동)

IV. 소고

본 유적은 환구 내부 공간에 주거지, 수혈, 구 등 생활유구가 분포하는 유적이다. 환구는 4조의 다중 환구이며, 퇴퇴식으로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도는 형태이다. 환구의 내부 공간에는 주거군과 함께 자연 암석 군락이 분포한다. 환구 내 안정적으로 출토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를 비롯한 생활유구와의 동시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환구의 내부퇴적토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주거군의 조성 이후 환구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역의 초기철기시대 환구(호)²⁸⁾는 교동리 192-37유적²⁹⁾과 달천 유적³⁰⁾ 등에서 확인된다. 교동리 192-37유적의 환호는 1열로 보고되었지만, 동방향으로 이격되어 조성된 협곡의 구를 포함한다면, 다중 환구(호)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만 조사되어 내부 공간의 전모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 수혈을 제외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환호 내부 공간에 주거지 등 유구가 없고 중심부가 환호보다 고지를 이루는 점 등을 들어 제의적 성격의 환호로 판단하고 있다³¹⁾. 달천유적의 환호는 호상으로 잔존하며, 내측에 1열의 구와 함께 2조의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환호의 내부 공간에는 주거지와 수혈이 분포한다. 보고자는 환호 내부에 주거군이 분포하는 점, 채광지라는 유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천유적의 환호는 방어시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³²⁾.

자연 암석 군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본 유적의 환구와 가장 유사한 양상은 경주 죽동리유적³³⁾에서 확인된다. 동일 수계의 동천강 상류역에 위치하는 죽동리유적에는 다중 환구 내측으로 거대한 자연암석군이 분포한다. 이렇게 환구 내측에 자연 암석이나 인위적으로 돌을 쌓는 양상은 초기철기시대에만 나타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천 고강동유적, 안성 반제리유적, 인접하는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등에서 광역적으로 확인된다³⁴⁾.

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는 제의적 성격의 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환구의 특성으로는 ①다중의 구 설치 ②고지성 입지 ③환구 내 공지, 혹은 소규모의 유구 분포 ④환구의 재사용 ⑤수혈과 토기편, 목탄, 소토 등이 확인 ⑥유물의 훼손·폐기 행위 가능성 ⑦두형토기의 출토 ⑧산정부의 적석과 같은 의례시설이나 자연석과 같은 신앙 대상물의 확인 등이 있는데, 이상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의례와 관련된 제장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³⁵⁾. 본 유적의 양상과 비교하면, 4조의 다중 환구(①)에 고

28) 환호와 환구라는 용어는 각각 기능과 의미·배경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환호는 방어, 경계의 기능, 환구는 의례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지영준, 2024, 「청동기시대 평택 용이·죽백동 취락의 변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9)蔚山文化財研究院, 2009, 『蔚山校洞里192-37遺蹟』

30)蔚山文化財研究院, 2010, 『蔚山達川遺蹟 3次 發掘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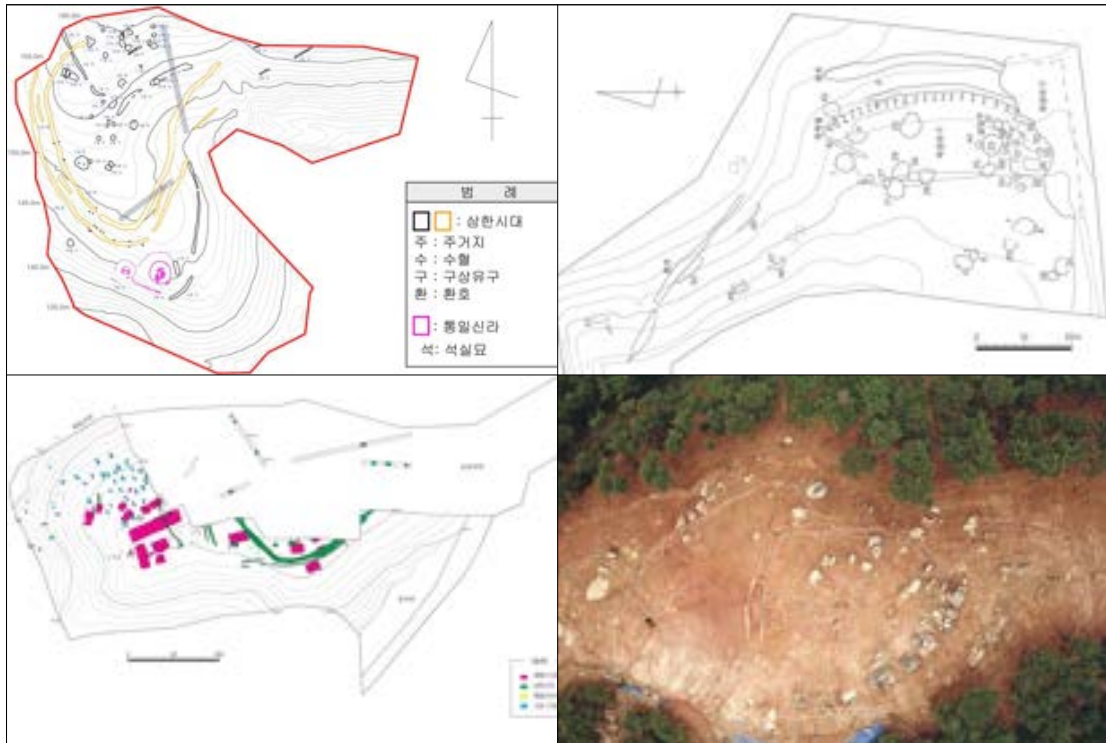
31) 이수홍, 2009, 「V.考察」, 『蔚山校洞里192-37遺蹟』,蔚山文化財研究院.

32) 김광수, 2010, 「V.考察」, 『蔚山達川遺蹟 3次 發掘調査』,蔚山文化財研究院.

33) 부경문물연구원, 2013, 『慶州 竹東里 遺蹟』.

34) 이수홍, 2025, 『發掘과 思索 청동기시대』.

지성 입지②), 두형토기의 출토율이 높고⑦), 환구 내부 공간에 자연 암석 군락이 존재⑧)하는 점 등에서 상당부분 부합하는 면을 보인다³⁶⁾. 따라서 본 유적의 환구는 제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 울산지역 초기철기시대 주요 환구(호)유적
(좌상:본 유적, 우상:달천유적, 좌하:교동리192-37유적, 우하:경주 죽동리유적)

주거지는 평면형태 상 방형계와 원형계로 구분되며, 노 시설은 방형계의 1호 주거지에서 무시설식의 수혈 노가, 원형계인 4호 주거지에서 할석을 이용한 부뚜막 노가 설치되었다.

울산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연구에서는 무시설식 노가 설치된 방형계 주거지를 재지적 요소로, 부뚜막식 노가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를 외래적 요소로 상정하고, 한 취락 내에서 양 요소가 혼재되는 시기를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 보고 있다³⁷⁾.

주거지의 형식과 출토 유물로 보아 본 유적의 초기철기시대 취락은 김나영³⁸⁾의 진한지역 취락 편년 III-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의 이 단계 주요 유적으로는 달천유적, 교동리 192-37유적, 상천리유적³⁹⁾ 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은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35) 김권구, 2021,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76.
 36) 이 외에도, 1호·3호 환구에 비해 2호 환구가 소규모인 점, 4호 환구의 방향성에서 ④의 가능성이 있고, 제토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지표수습 된 점에서 ⑥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37) 김나영, 2023, 「삼한시대 진한(辰韓)지역 취락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38) 김나영, 2023, 전게서.
 39) 蔚山文化財研究院, 2022, 『蔚山象川里遺蹟 I』

에 속하는 고지성환구 취락으로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전엽에서 기원전후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V. 맺음말

본 유적은 울산시 북구 중산동 126번지 일원에 울산중산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이다. 기존 지표조사와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2024년 10월 23~2025년 2월 28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정밀발굴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13,175㎡에 대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원삼국시대(삼각형점토대단계) 환구 4기, 주거지 5동, 수혈 31기, 구 5기, 삼국시대 석실묘 2기, 화장묘 2기 등 총 49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본 고는 이 중 초기철기시대 유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는 4조의 다중 환구이며, 퇴회식으로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도는 형태이다. 환구의 내부 공간에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와 수혈군, 구 등이 입지하며, 자연 암석 군락이 분포한다. 환구의 내부 공간에 자연 암석 군락이 분포하고, 제기로 인식되는 두형토기의 출토율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면 환구는 제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의 대략적인 시기는 주거지와 출토 유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무시설식 노가 설치된 방형계 주거지와 부뚜막식 노가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가 공존하는 양상은 울산지역 초기철기시대 취락 Ⅲ기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대략 유적의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엽에서 기원 전후로 비정된다.

환구와 주거군 간 동시성은 밝히기 어렵지만, 환구의 내부퇴적토에서 주거지와 동시기 유물이 출토된 점에 주목하면 거주민 들은 어느 정도 환구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이 지역 일대의 초기철기시대(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생활문화에 대한 양호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한다.